

최형용 외 집필  
창비 고등 언어와 매체  
교과서용

창비

# 고등 언어와 매체

자습서

정답과 해설



창비  
교육



# I 언어와 매체의 본질



대단원 7월장이

본문 9쪽

확인 문제

01 (1) ○ (2) ○ 02 (1) 매체 (2) 복합 양식적

## 1 언어의 본질

### [1] 언어의 특성

확인 문제

본문 13~14쪽

01 ② 02 사회 03 ③

#### 01

언어는 사고에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사고에 영향을 받는 측면도 있으므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 02

언어의 모습이 달라지게 하는 지역, 성별, 세대, 연령 등은 사회적 조건으로 볼 수 있다.

#### 03

특정 지역의 기후는 해당 지역 사람들의 삶과 문화에 영향을 주고 언어는 그 문화의 영향을 받으므로 기후가 문화와 언어에 각기 다른 영향을 준다고 하기 어렵다.

소단원 핵심 문제

본문 17~19쪽

01 ④ 02 ④ 03 ⑤ 04 ⑤ 05 ① 06 ④ 07 ⑤  
08 ③ 09 ⑤ 10 ② 11 ① 12 ①

#### 01

발화자에게 가까운 것을 먼저 인식하는 사고의 경향이 반영된 단어들을 제시하거나 어린이의 언어 습득 과정을 사례로 들면서 언어와 사고의 영향 관계에 대한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오답 피하기** ① 가정적 상황은 제시되지 않았다. ② 개인적 체험은 소개하지 않았다. ③ 과장된 진술은 찾아볼 수 없다. ⑤ 상반된 견해를 대비시켰다고는 할 수 있으나 결국 언어와 사고가 상호 영향 관계에 있음을 밝혔으므로 판단을

유보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02

인간의 언어가 효율적이라고 보는 이유는 몇 가지 음운과 단어만으로 무수히 많은 문장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이다. 즉 음운과 단어의 수가 적어도 무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율적이라는 것이므로, 더 많은 음운과 단어로 이루어질 때 더 효율적인 언어가 된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인지해야 할 음운과 단어가 많다면 의사소통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언어라고 볼 수 있다.

#### 03

①은 일반적으로 선후 관계를 분명히 밝혀서 말하기 어려운 경우를 빗대어 이르는 말이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①이 ‘말’과 ‘생각’의 선후 관계가 아니라 영향 관계를 논하는 장면에서 비유적 표현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므로 ①은 ‘말’과 ‘생각’ 중 어떤 것이 어떤 것에 영향을 주는지 분명하게 말하기 어려움을 드러내기 위해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① ①은 ‘말’과 ‘생각’의 대비적 속성과 무관하다. ② ①은 ‘말’과 ‘생각’의 유사한 속성과 무관하다. ③ 언어가 인간에 의해 창조된 문화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말’과 ‘생각’의 선후 관계는 ‘생각’이 ‘말’에 우선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글은 둘 중 어떤 것이 먼저 존재했는지에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 ④ ‘말’은 ‘생각’을 담는 그릇이므로 ‘말’이 형식이고 ‘생각’이 내용임은 자명하다. 그러나 이 글은 둘의 내용-형식 관계에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

#### 04

‘피아(彼我)’는 ‘그와 나’ 또는 ‘저편과 이편’, ‘적군과 아군’ 등의 의미로 쓰이는 말이다. 따라서 발화자에게 가까운 것을 먼저 인식하는 사고가 반영된 말이라고 하기 어렵다.

**오답 피하기** ① ‘한중일’이라는 표현에는 ‘중국’보다는 ‘일본’을 멀리 느끼는 언종의 생각이 담겨 있다. ② ‘옛그제’는 ‘어제그제’의 줄임말인데 ‘어제’가 ‘그제’보다 발화자에게 가깝다. ③ ‘조만간(早晚間)’은 ‘머지 않아’의 의미로서 ‘조’는 ‘아침’을, ‘만’은 ‘저녁’을 가리킨다. 통념상 ‘아침’이 ‘저녁’보다 발화자에게 가깝다. ④ ‘국내’가 ‘국외’보다 발화자에게 가깝다.

#### 05

개인이 사용하는 언어를 바탕으로 그가 속한 사회의 특성을 유추할 수 있다는 것은 개인의 언어에 그가 속한 사회 집단의 특성이 반영되어 있음을 전제한다.

**오답 피하기** ② 성별에 따른 언어의 차이가 세대 간 언어에 영향을 준다고 말하기 어렵다. ③ 신분제는 사라졌지만 연령이나 직업, 성별, 지역 등의 사회적 조건에 따른 언어의 차이는 오늘날에도 존재한다. ④ 상이한 집단들이 상이한 언어를 사용하지만 이를 통해 갈등을 조정하고 사회적 합의에 이른다는 것은 언어가 사회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사회적 합의를 위해 언어의 다양성을 파괴해야 한다는 논리는 적절하지 않다. ⑤ 특정 분야에서만 쓰이는 전문어가 모두 비표준어인 것은 아니다. 일반인과 특정 분야 종사자의 의사소통 문제는 표준어나 아니냐 하는 데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라 서로 다른 직업이 사회적 조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 06

각주의 내용으로 볼 때 A의 증상은 ‘여드름’일 뿐인데, 이를 B가 의사로서의 전문 용어로 설명한 탓에 A는 자신이 심각한 병을 앓고 있다고 오해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A가 B의 설명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 것은 사회적 조건 중 ‘직업’이 달랐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 07

쓰레기 처리 시설 유치와 관련된 이해관계가 달라 갈등을 겪은 주민들과 구청이 언어를 이용하여 협상을 함으로써 갈등을 조정하는 과정은 ④의 예가 될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①, ② 문화를 반영하는 언어의 모습이 드러난 예이다. ③ 언어가 사고에 영향을 미침을 보여 주는 예이다. ④ 세대마다 사용하는 언어가 달라 세대 간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모습으로서, 사회적 조건에 따라 언어가 달라지는 예이지 언어로써 사회의 갈등을 조정하는 예로는 볼 수 없다.

## 08

녹도 만호와 안골포 만호는 이순신을 존대하고 이순신은 두 사람을 하대한다. 이는 장군과 부하라는 신분의 차이에 영향을 받은 결과이다.

## 09

단어의 발달이 경제 활동 양상에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 활동 양상이 어떻게 발달하느냐가 단어 발달 양상에 영향을 준다. 즉, 순록을 중심으로 발달한 경제 활동 양상이 그와 관련된 어휘를 발달하게 만든 것이다.

**오답 피하기** ① (나)에 ‘언어는 그 자체가 언중이 오랜 세월을 걸쳐 이룩한 문화의 산물’이라고 제시되어 있다. ② (가)에 ‘모, 벼, 쌀, 밥’이 ‘농경 문화를 근간으로 발전해’ 왔다고 제시되어 있다. ③ (가)에 따르면 ‘우리’라는 말에는 공동체를 중시하는 문화가 반영되어 있다. ④ (가)에 따르면 눈이 많이 내리는 키루나 지역 언어에는 눈에 대한 어휘가 많은데 이것은 기후가 키루나 지역 문화 형성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다.

## 10

언어에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온 독특한 문화가 반영되어 있다. 제시된 사례는 우리나라와 영어권 나라의 상이한 식품 문화가 언어의 차이로 나타난 경우를 보여 주고 있다.

## 11

‘가게 기둥에 입춘’은 추하고 보잘것없는 가게집 기둥에 ‘입춘 대길(立春大吉)’이라 써 붙인다는 뜻으로, 제격에 맞지 않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속담이다. 이는 ㉠의 공동체 중시 문화와 거리가 멀다.

**오답 피하기** ②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여러 사람이 저마다 제 주장대로 배를 몰려고 하면 결국에는 배가 몰로 못 가고 산으로 올라간다는 뜻으로, 주관하는 사람 없이 여러 사람이 자기주장만 내세우면 일이 제대로 되기 어려움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따라서 공동체를 위한 양보와 협동의 자세를 강조한 말로 볼 수 있다. ③ ‘동냥자루도 마주 벌려야 들어간다.’는 간단한 일이라도 서로 협조하여야 잘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속담이다. ④ ‘열의 한 술 밥이 한 그릇 푼푼하다.’는 열 사람이 한 술씩 보태서 밥 한 그릇을 만든다는 뜻으로, 여럿이 각각 조금씩 도와주어 큰 보탬이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⑤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웅덩이를 흐려 놓는다.’는 미꾸라지 한 마리가 흙탕물을 일으켜서 웅덩이의 물을 온통 다 흐리게 한다는 뜻으로, 한 사람의 좋지 않은 행동이 그 집단 전체나 여러 사람에게 나쁜 영향을 미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속담이다. 즉 공동체에 해가 되는 행위를 삼가라는 말이다.

## 12

영어의 ‘rice’에 해당하는 말이 우리말에서는 ‘모, 벼, 쌀, 밥’과 같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은 우리의 농경 문화가 언어에 반영되었기 때문이지 우리말이 영어보다 우수한 언어임을 보여주는 근거는 될 수 없다.

## [2] 국어의 특성과 위상

### 확인 문제

본문 21~23쪽

01 ④ 02 ③ 03 예사소리(평음), 된소리(경음), 거센소리(유기음) 04 ① 05 ③ 06 ③ 07 ③

## 01

국어에는 색채어가 발달되어 있어 ‘갯노랑다, 싯누렇다, 새파랗다, 시퍼렇다’의 ‘갯-, 싯-, 새-, 시-’처럼 접두사를 활용하여 표현을 보다 풍부하게 할 수 있다.

## 02

모음 조화를 활용한 음성 상징어에서 양성 모음은 밝고 작은 느낌을, 음성 모음은 어둡고 큰 느낌을 나타낸다.

## 03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등의 자음이 울림소리(유성음)와 안울림소리(무성음)로 이중 대립 체계를 이루는 것과 달리 국어의 파열음은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로 삼중 대립 체계를 이루고 있다.

## 04

[보기]의 자료는 ‘주어-서술어-목적어’의 어순으로 나타나는 영어, 중국어와 달리 ‘주어-목적어-서술어’의 어순으로 나타나는 국어 문장의 특성을 보여 준다.

## 05

‘형’의 말에서 생략된 문장 성분은 주어와 서술어이다.

**오답 피하기** ① ‘나’의 말에는 ‘형(은)’이라는 주어가 생략되어 있다. ② ‘형’의 말에는 ‘나(는)’라는 주어가 생략되어 있다. ④ ‘나’와 ‘형’의 대화에서 주어와 서술어와 같은 문장 성분이 생략된 것으로 볼 때 국어 문장에서는 필수 성분이 생략되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⑤ 문장의 성립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성분이 실제 대화에서 쉽게 생략될 수 있는 이유는 실제 대화의 상황에서는 대화 당사자들이 대화의 맥락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알 수 있는 정보가 생략되어도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 06

한국 기업 제품의 인지도나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 유학생 수의 증가 등이 한국어에 대한 관심으로 연결될 수 있으나, 한국어의 위상을 직접적으로 보여 주는 것은 한국어 능력 시험 응시생 수의 증가이다.

## 07

한국어 학습 방안을 연구하거나 외국인의 한국어 학습 특성을 파악하는 일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 우리말을 사랑하고 올바르게 사용하려 노력하는 일이다.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언어가 외국인의 사랑을 받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 소단원 핵심문제

본문 27~28쪽

01 ④ 02 ⑤ 03 ③ 04 **예시 답안** 나는 김밥 먹었어. / 국어의 문장은 ‘주어-목적어-서술어’의 어순으로 나타나는 특성을 지닌다. 05 ③ 06 ⑤ 07 ②

## 01

유의 관계에 있는 말을 유의어라고 하며 이는 서로 뜻이 비슷한 말을 가리킨다. ‘주다’의 높임말인 ‘드리다, 바치다, 올리다’는 유의어이지만 친족 관계어인 ‘이모, 숙모, 고모’ 등은 유의어가 아니다.

**오답 피하기** ① ‘알록달록’과 ‘얼룩덜룩’을 보면 양성 모음은 작고 음성 모음은 큰 느낌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접두사를 활용한 ‘셋노랴다, 싯누랴다’, ‘새파랴다, 시퍼랴다’ 등은 앞서 제시된 색채어 ‘노르스름하다, 누르스름하다’ 등과 마찬가지로 미묘한 색감의 차이를 드러낸다. ③ ‘팔딱팔딱’은 의태어이고 ‘달그락’은 의성어이다. ⑤ ‘셋노랴다, 싯누랴다’, ‘새파랴다, 시퍼랴다’에서 접두사 ‘셋-’과 ‘새-’는 어근 첫음절의 모음이 ‘ㄱ, ㄷ’와 같은 양성 모음일 때, ‘싯-’과 ‘시-’는 어근 첫음절의 모음이 ‘ㄴ, ㄹ’와 같은 음성 모음일 때 결합한다.

## 02

[보기]는 우리말에서 친족 관계어가 발달한 이유를 밝히고 사회상의 변화에 따른 친족 관계어의 미래를 예측하고 있다.

## 03

파열음이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의 대립을 이루고 있음을 보여 주기 위해서는 [보기]와 같이 이 소리들을 제외한 음운 환경이 같고 오직 이 소리들에 의해 말의 뜻이 구별되는 단어들을 보여 주어야 한다. ‘불/뿔/풀’은 각각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인 ‘ㅂ, ㅃ, ㅍ’이 말의 뜻을 구별해 주는 음운으로 기능하고 있다.

**오답 피하기** ① 세 단어의 뜻이 ‘ㄴ/ㄹ/ㅇ’에 의해 구별되고 있으나 이것은 파열음이 아니다. ② 세 단어의 뜻이 ‘ㄷ/ㄱ/ㄴ’에 의해 구별되고 있으나 이것은 파열음이 아니다. ④ 세 단어의 뜻이 ‘ㄱ/ㄷ/ㅂ’에 의해 구별되고 있고 이것이 파열음이기기는 하지만 모두 예사소리이다. ⑤ 세 단어의 뜻이 ‘ㅋ/ㅌ/ㅍ’에 의해 구별되고 있고 이것이 파열음이기기는 하지만 모두 거센소리이다.

## 04

[보기]의 상황은 영어와 중국어가 ‘주어-서술어-목적어’의 어순으로 나타나는 것과 달리 국어의 문장은 ‘주어-목적어-서술어’의 어순으로 나타나는 특성을 보여 주고 있다.

## 05

ㄱ: 교육부 국립 국제 교육원 2017년 자료를 제시하여 글의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ㄴ: 한국의 경제 성장,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 제고 등의 최근 동향을 살펴보고 한국어의 발전·보급을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외국인에게 생소할 수 있는 한국어의 음운 현상이나 어휘 체계, 문장 구조 등임을 파악한 후에 그에 맞는 학습 방법과 교육 자료의 개발을 해법으로 제시하였다. ㄷ: 두 번째 단락 첫 번째 문장에서 질문을 던진 다음 그에 대한 답을 글쓴이 스스로 제시하고 있다.

**오답 피하기** 르: 서로 어긋나 충돌하는 견해는 제시되지 않았다.

## 06

한국어가 독특한 어휘 체계와 문장 구조를 지닌 것은 외국인이 한국어를 배우기 어려워하는 요인 중 하나이므로 이것을 높아지고 있는 한국어의 위상을 뒷받침해 주는 사실로 보기는 어렵다.

**오답 피하기** ① 세종 학당은 외국인에게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가르치는 기관이므로 이곳의 수강생이 늘어난 것은 그만큼 한국어의 위상이 높아졌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② 외국인 국내 취업자가 늘어난 것은 한국어를 배워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과 같으므로 높아지고 있는 한국어의 위상과 관련이 있다. ③ 우리나라의 문화 콘텐츠 수출이 활발해졌다는 것은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관심을 두고 있는 외국인이 많아졌다는 것이므로 이것은 한국어의 위상 제고와 관련이 있다. ④ 국내 기업과 제품의 인지도 상승은 한국, 한국어,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도 제고로 이어지므로 이것은 한국어의 위상 제고와 관련이 있다.

## 07

‘역지사지(易地思之)’는 처지를 바꾸어 생각하는 태도를 가리키는 말로서 외국인의 처지에서 한국어를 학습할 때 어렵거나 재미있을 것 같은 부분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자료를 개발하는 태도와 일치한다.

**오답 피하기** ① 부화뇌동(附和雷同): 일정한 자기 생각 없이 남이 하는 대로 따라 하는 태도를 가리킨다. ③ 오불관언(吾不關焉): 어떤 일에도 상관하지 않고 모르는 척하는 태도를 가리킨다. ④ 좌고우면(左顧右盼): 왼쪽을 돌아보고 오른쪽을 결눈질한다는 뜻으로 주변의 눈치를 살피면서 결정을 못 내리는 태도를 가리킨다. ⑤ 초지일관(初志一貫): 처음 먹은 마음을 끝까지 밀고 나가는 의지적 태도를 가리킨다.

### 중단원 핵심문제

본문 29~33쪽

01 ③ 02 ⑤ 03 ③ 04 ⑤ 05 예시 답안 ‘살색’이라는 말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사고가 언어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살색’이라는 용어가 지닌 문제를 인식하고 ‘살구색’으로 순화한 것은 언어가 사고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다. 즉, 언어는 사고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06 ② 07 ② 08 ⑤ 09 ⑤ 10 ③ 11 ③ 12 ④ 13 ⑤ 14 예시 답안 세계 속 한국어의 위상이 높아졌다.

## 01

ㄱ: ‘말’과 ‘생각’의 관계를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에 비유하였다. ㄴ: ‘언어와 사고’, ‘언어와 사회’, ‘언어와 문화’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사례들을 제시하여 말하고자 하는 바를 뒷받침하고 있다. ㄷ: ‘말이 먼저일까, 생각이 먼저일까?’라는 질문

으로 글을 시작하여 독자의 호기심을 유발하고 있다.

**오답 피하기** ㄷ: 언어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조건을 이야기할 때 과거에는 신분에 따라, 오늘날에는 연령이나 직업에 따라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게 나타난다고 하며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언어의 바람직한 변화 과정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시대에 따라 언어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조건이 다르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다.

## 02

(바)에는 우리 민족이 ‘우리’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 이유가 이 말에 공동체를 중시하는 문화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다. 이는 언어에 문화가 반영되어 있음을 말해 주는 사례이다. 공동체 의식이 담긴 언어가 발달하면 공동체 문화가 발전한다는 진술은 선후 관계가 바뀌었다.

**오답 피하기** ① (다)에서 개인이 사용하는 언어를 통해 그 사람이 속한 사회의 특성을 유추할 수 있다고 하였다. ② (바)에서 눈이 많이 내리는 키루나 지역에 눈에 관한 단어가 많은 이유로 그 지역의 기후가 해당 지역의 문화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③ (마)에 집단 간의 이익이 달라 발생하는 갈등을 언어로 조정한다는 내용이 있다. ④ (사)에 언어는 문화의 산물이자 문화 전승의 매개체이며 문화 창조의 수단이라고 되어 있다.

## 03

서울이나 시골이냐에 따라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다는 것은 지역에 따라 언어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오답 피하기** ① [보기]에는 신분의 차이가 드러나지 않는다. ② [보기]에서 발화자의 사고가 특정 단어에 담겨 있지는 않다. ④ 언어는 사고에 영향을 주지만 [보기]는 이와 관련된 사례가 아니다. ⑤ 우리말은 농경 문화와 관련된 말들이 발달했지만 [보기]는 이와 관련된 사례가 아니다.

## 04

[보기]는 관계와 조화를 중시하는 고맥락 언어로서 우리말이 지닌 특성과 생각의 논리적 표현을 중시하는 저맥락 언어로서 영어가 지닌 특성을 설명하고 있다. 이것은 공동체적 삶을 중시하는 우리 문화와 개인의 삶을 중시하는 서구 문화가 각각의 언어에 반영된 결과이다.

## 05

[보기]에는 ‘살색’이라는 말에 차별과 배제의 의식이 담겨 있다고 보고 ‘살구색’으로 표현을 바꾸어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자 한 사례가 제시되어 있다. 이는 언어와 사고가 상호 영향 관계에 있음을 보여 준다.

## 06

색채어, 음성 상징어, 친족 관계어, 높임말의 사례를 보면 어휘의 세분화는 어휘의 발달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국어의 파열음이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의 대립을



이루는 것은 영어 등의 자음이 올림소리와 안올림소리의 대립을 이루는 것과 구별되는 하나의 특징일 뿐이지 상대적으로 발달했다는 사실을 뜻하지는 않는다.

**오답 피하기** ① ‘알록달록, 얼룩덜룩’과 같은 사례들을 보면 양성 모음은 양성 모음끼리, 음성 모음은 음성 모음끼리 어울린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③ 생략해도 된다는 것은 대화에 지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④ ‘셋노랴다, 셋누랴다, ‘새파랴다, 시퍼랴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접두사 ‘셋-’, ‘새-’, ‘셋-’, ‘시-’가 붙은 말들은 본래 어근인 ‘노랴-’, ‘파랴-’, ‘누랴-’, ‘퍼랴-’의 색깔을 짙게 만든다. 또한 음성 모음이 쓰인 ‘얼룩덜룩’, ‘덜그럭’은 양성 모음이 쓰인 ‘알록달록’, ‘달그럭’보다 큰 느낌의 표현이다.

## 07

언어에는 언중들이 형성한 문화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언어를 보면 문화의 특성을 알아낼 수 있다. 친족 관계를 나타내는 말이 발달했다는 사실은 친족 관계를 구분할 필요가 있을 만큼 친족 중심의 생활을 했다는 것을 말해 주며, 높임말이 발달했다는 것은 수직적인 관계를 중시했다는 것을 말해 준다.

**오답 피하기** ① ①에는 신분에 대한 언급이 없다. ③ ⑤를 양보와 배려의 문화로 보기는 어렵다. ④ ①의 높임말은 수직적 문화와 관련이 있지 수평적 문화와는 거리가 멀다. ⑤ ⑤를 분석적이고 논리적인 문화로 보기는 어렵다.

## 08

⑤의 감의 말의 경우 서술어에 쓰인 동사 ‘나다’는 […이 …에]에 해당하는 주어와 부사어를 필요로 하는 두 자리 서술어인데 ‘산불이’가 주어, ‘동네에’가 부사어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생략된 문장 성분이 없다. 또한 을의 말의 경우 서술어에 쓰인 동사 ‘주다’는 […이 …을 …에]에 해당하는 주어와 목적어와 부사어를 필요로 하는 세 자리 서술어인데 ‘자연이’가 주어, ‘피해를’이 목적어, ‘사람에게’가 부사어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생략된 문장 성분이 없다.

**오답 피하기** ① 을: 주어인 ‘그 사람은’이 생략되었지만 대화가 자연스럽다. ② 을: 주어인 ‘나는’과 목적어인 ‘그 사람들’과 서술어인 ‘말했다’가 생략되었지만 대화가 자연스럽다. ③ 갑: ‘부탁하다’는 […이 …에게 …을]에 해당하는 주어와 부사어와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세 자리 서술어인데 주어와 부사어를 생략했지만 대화가 자연스럽다. ④ 을: ‘(제가) 하루 종일 (숙제를) 했지만 아직 (숙제)가 좀 남았어요.’라는 문장에서 괄호 부분이 생략되었지만 대화가 자연스럽다.

## 09

세계 속 한국어의 위상을 보여 주는 사례들이 제시되어 있을 뿐 대조적인 현상은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 피하기** ① 교육부 국립 국제 교육원 2017년 통계 자료를 제시하여 신빙성을 갖추고 있다. ② 세계 속 한국어의 위상이 높아졌음을 보여 주는 여러 가지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③ ‘한국의 경제가 성장하면서 ~ 한국에 오는 외국인도 해마다 늘고 있다.’, ‘최근에는 한국의 드라마와 대중음악 등이 해외에서 큰 인기를 얻으면서 ~ 관심이 높아졌다.’에서 현상이 발생하게 된 경유

를 인과 관계를 바탕으로 설명하는 부분이 드러난다. ④ (가)의 중심 문장은 ‘이러한 사실만 봐도 한국어가 세계의 주요 언어로 자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이므로 중심 문장이나 중심 내용이 단락이나 글의 끝에 제시되는 미괄식 구성에 속함을 알 수 있다.

## 10

글을 마무리하는 부분에서 글쓴이는 우리가 우리말을 사랑하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면서 규범에 맞는 언어생활과 배려하는 마음으로 대화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나머지 선지들도 한국어의 위상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방안이지만 최우선 선결 과제라고 하기 어렵다.

## 11

언어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삶과 문화가 반영된 것으로 모두 독자적 가치가 있는 것이므로, 한국어 교육 시 한국어가 다른 언어보다 우수하고 우월한 언어라는 점을 강조하여 교육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12

④는 언어와 문화의 관계가 아닌 언어와 사고의 관계와 관련된 사례이다.

## 13

높임을 나타내는 어휘가 발달하였음을 보여 주려면 영어로는 똑같이 ‘meal’로 표현되는 말이 우리나라에서는 ‘밥/진지’와 같이 높임 표현이 따로 분화되어 있다는 예 등이 제시되어야 한다.

## 14

①은 외국에서 한국어가 국가의 정규 교육 과정에 편성되고 외국의 대학 입시에서도 한국어가 외국어 과목으로 당당히 자리를 잡았음을 보여 주고, ②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어를 사용함을 보여 준다.

## 2 매체의 본질

### [1] 매체의 유형과 특성

확인 문제

본문 37~38쪽

01 ⑤ 02 전문적 03 ③ 04 ③

## 01

매체의 발달 방향은 대체로 보다 많은 내용을 더 멀리, 더 빠르게 전달하고 오랫동안 보존하려는 인간의 욕망이 당대 기술과 결부되면서 발달해 온 것이라고 하였다. ‘보다 공감하는 방향’은 이 글에 언급되어 있지 않다.

**오답 피하기** ①, ②, ③, ④는 각각 보다 더 멀리, 보다 더 빠르게, 보다 많은 내용, 보다 더 오랫동안 보존한다는 내용으로 글에 나타난 매체 발달 방향과 일치한다.

## 02

인쇄 매체는 주로 전문적인 생산자가 수용자에게 지식이나 정보를 전달하는 한편 내용을 수정하거나 보완하기 어렵다는 언급이 나타나 있다.

## 03

인터넷 매체로 인해 생산자와 수용자의 경계가 허물어졌다고 하였다.

**오답 피하기** ① 인터넷은 상호 소통이 가능한 매체이다. ② 인터넷은 문자, 이미지, 사진, 도표, 동영상 등 다양한 양식의 정보를 주고받는다. ④ 인터넷은 통신망이 연결되어 있는 한 언제 어디서나 소통할 수 있는 매체이다. ⑤ 인터넷을 통해 누리집, 블로그, 온라인 동호회가 만들어졌다.

## 04

전신과 전화는 최신 기술의 발달로 등장한 매체라고 보기는 어렵다. 두 매체는 100여 년이 넘는 역사를 지니고 있다.

**오답 피하기** ①, ②, ④, ⑤에 나타난 전자책, 스마트폰, 인터넷 신문, 태블릿 피시는 인터넷 및 이동 통신 기술의 발달로 등장한 매체에 해당한다.

### 소단원 핵심문제

본문 42~43쪽

01 ① 02 ④ 03 ① 04 ④ 05 ② 06 ③ 07 ①  
08 ②

## 01

이 글은 매체의 정의를 내린 뒤, 매체의 발달 측면에서 매체의 유형과 그 특성을 설명하고 있다.

**오답 피하기** ② 기존 매체의 문제점이라기보다는 특성을 소개하고 있으며 개선점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③ 매체 발달의 과정을 주로 시간적인 순서로 기술하고 있다. ④ 매체의 왜곡은 이 글에서 언급되어 있지 않다. ⑤ 매체가 사회의 각 분야에 구체적으로 미친 영향은 이 글에 언급되어 있지 않다.

## 02

대중 매체는 전자 기술의 발달로 등장한 라디오와 텔레비전

럼 전파를 활용해 수많은 익명의 수용자에게 동시에 내용을 전달하는 매체이다. 대중 매체가 정보를 쉽게 수정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답 피하기** ① 수용은 매체의 특성을 알아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짐을 말하고 있다. ② 민주는 음성 언어인 ‘말’이 감정적임을 파악하고 자칫 감정이 상할 수 있다는 점을 바르게 지적하고 있다. ③ 기철은 인쇄 매체가 수정 및 보완이 어렵다는 점을 생각하고, 수정되지 않고 유통될 것을 염려하며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⑤ 길영은 (다)의 마지막 문장에서 인터넷 등 매체 발달이 엄청난 변화를 가져온다고 한 것을 바탕으로 매체의 영향력을 살펴야 함을 말하고 있다.

## 03

(가)는 매체의 정의를 내리고 매체의 구체적인 예시를 열거하고 있다.

## 04

라디오와 텔레비전은 책, 신문, 잡지와 같은 인쇄 매체와 달리 전파를 통한 동시적 의사소통이 가능해서 본격적인 대중 매체 시대를 열었다.

**오답 피하기** ① ㉠ 역시 원거리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② ㉡을 제외하고 ㉠만 지식의 대중화를 이뤘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은 시공간적 맥락을 공유하기가 어렵다. ⑤ 쌍방향 의사소통은 인터넷 매체 등의 특성이다.

## 05

매체의 유형과 특성을 매체의 발달 측면에서 살펴보고, 문화의 토대를 만든다는 차원에서 올바른 매체 활용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한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 06

(다)는 새로운 대상이 나타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특정 대상을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하는 방식은 ‘분석’으로 (다)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답 피하기** ① (가)는 전자 기술의 발달이 매체의 발달로 이어졌음을 설명하며 원인과 결과의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② (나)에는 인터넷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서술이 나타나 있다. ④ (라)에는 매체 활용의 의의가 서술되어 있다. ⑤ (가)~(라)는 전체적으로 설명문에 가깝다.

## 07

녹화해 둔 드라마를 재생해서 본 것은 개인의 필요에 따른 것일 뿐 수많은 익명의 수용자에게 정보가 동시에 제공된 사례로 보기는 어렵다.

**오답 피하기** ② 신제품을 알리는 광고는 불특정 다수에게 홍보를 위해 활용된다. ③ 시민들은 다수의 수용자이다. ④ 북한 주민들은 다수의 수용자로 볼 수 있다. ⑤ 긴급 재난 상황은 많은 수용자를 대상으로 제공되는 것이다.

## 08

인터넷은 쌍방향 매체로서 누구라도 정보의 생산자가 되어 언제나 소통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오답 피하기** ① 지식과 정보에 대한 차별은 인터넷 시대에도 정보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 ③ 인터넷의 탄생에 의한 변화라고 보기 어렵다. ④ 인터넷에서는 오히려 댓글 등을 통해 감정적인 대응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⑤ 의사소통의 혼란이 인터넷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만한 근거는 나와 있지 않다.

## [2] 매체 언어의 특성

### 확인 문제

본문 45~46쪽

01 ⑤ 02 ③ 03 복합 양식성 04 ⑤ 05 ⑤

### 01

매체 언어의 한계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오답 피하기** 이 글에는 음성 언어의 특징과 그것이 지닌 한계, 문자 언어가 생긴 배경과 매체 언어의 특성 등이 차례차례 서술되어 있다. 각각 ①, ②, ③, ④에 잘 대응되어 있다.

### 02

매체 언어는 기술이 발달하고 다양한 매체가 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생겨났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 03

매체 언어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복합 양식성이다.

### 04

전자 매체는 시청각 자료, 이모티콘, 하이퍼텍스트 등 다양한 자료들을 적극 활용한다.

**오답 피하기** ① 글자색, 크기, 모양, 이미지 등은 인쇄 매체 언어에서 주로 사용한다. ② 전자 매체는 시각 자료 이외에도 동영상 등 시청각 자료도 활용한다. ③ 전자 매체는 하이퍼링크로 자료와 자료의 연결이 가능하다. ④ 전자 매체에는 청각 자료 이외에도 다른 성격의 자료들이 디지털화되어 활용된다.

### 05

복합 양식성은 다양한 기호들의 유기적인 결합을 통해 종합적인 의미를 형성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답 피하기** ① 다양한 기호들이 단순히 활용되는 것은 복합 양식성이라고 하기 어렵다. ② 서로 다른 텍스트로 연결되는 것은 복합 양식성의 특징이 아니다. ③ 기호들은 독립적이 아니라 유기적이어야 한다. ④ 다양한 기호들이 종합적인 의미를 형성하는 것이 복합 양식성이다.

### 소단원 핵심 문제

본문 50~51쪽

01 ② 02 ② 03 ④ 04 ② 05 예시 답안 기존의 언어인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는 음성과 문자로 그 성격이 제한되지만 매체 언어는 매체를 활용하고 다양한 기호와 자료를 복합 양식적으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06 ① 07 ⑤ 08 ③ 09 ②

### 01

매체 언어에 대한 정의와 함께 매체 언어의 사례로 인쇄 매체 언어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 02

문자 언어도 음성 언어처럼 사회·문화적인 맥락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 03

기술의 발달과 매체의 등장이 언어 양식에 변화를 주었고, 다양한 기호가 어우러져 의미를 만드는 복합 양식적 매체 언어가 등장했다.

### 04

인쇄 매체 언어는 기본적으로 시각적인 자료를 중심으로 한 인쇄물에 쓰인 언어이다.

**오답 피하기** ① 휴대 전화 메시지는 전자 매체 언어가 쓰인 예이다. ③ 모바일 메신저를 활용하는 행위는 전자 매체 언어가 쓰인 예이다. ④ 사회 시간에 토론한 것은 음성 언어가 쓰인 예이다. ⑤ 댓글을 올리는 행위는 전자 매체 언어가 쓰인 예이다.

### 05

기존의 언어인 음성 언어, 문자 언어와 달리 매체 언어가 지닌 차이를 서술한다.

### 06

이 글은 매체 언어의 개념과 매체 언어가 지닌 특성을 서술하였다.

### 07

매체 언어의 복합 양식성이란 다양한 요소들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종합적 의미를 만드는 것이다.

**오답 피하기** ①은 (가), ②는 (나), ③과 ④는 (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 08

강연을 기억하기 위해서 노트에 필기를 하는 것은 음성 언어를 단순히 문자 언어로 표현한 것으로 매체 언어를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

**오답 피하기** ① 광고 전단지에는 사진, 문자 등 인쇄 매체 언어가 쓰였다. ② 텔레비전 뉴스는 전자 매체 언어다. ④ 화상 통화는 동영상 기호로 전자 매체 언어다. ⑤ 문자 메시지에 쓰인 이모티콘, 이미지 등은 전자 매체 언어에 속한다.

## 09

㉓는 인쇄 매체 언어, ㉔는 전자 매체 언어로서 모두 다양한 요소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종합적인 의미를 만드는 복합 양식성을 지니고 있다.

**오답 피하기** ① 인쇄 매체 언어는 순서대로 보는 것이 보편적이고 따로 연결된 하이퍼텍스트 등이 없다. ③ 인쇄 매체 언어는 음성 언어를 사용하기 어렵지만 전자 매체 언어는 음성 언어를 굳이 배제하지 않는다. ④ 전자 매체 언어는 시각, 청각, 시청각 자료 모두 활용 가능하다. ⑤ 인쇄 매체 언어 역시 지금도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다.

### 중단원 핵심문제

본문 52~55쪽

01 ⑤ 02 ① 03 ④ 04 ③ 05 예시 답안 생산자와 수용자의 관계에 변화가 생겼다. 수용자에 머물던 개인이 정보를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스스로 내용을 생산하고 공유하는 존재로 변화했다. 06 ⑤ 07 ③ 08 ⑤ 09 ⑤ 10 예시 답안 대중 매체는 대량의 정보를 익명의 수용자에게 동시에 전달할 수 있다. 따라서 정보와 지식을 고루 나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자칫 잘못되거나 왜곡된 정보, 의도된 정보가 있다면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11 ① 12 ④ 13 ⑤ 14 ⑤ 15 ③ 16 ② 17 ④ 18 예시 답안 잔잔한 음악이라는 청각적인 요소, 배우들이 함께 웃는 영상이라는 시각적인 요소, 자막이라는 언어적인 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종합적인 의미를 형성하고 있다.

## 01

이 글은 문화의 발전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 문화를 이해하고 향유하기 위해 매체를 이해할 필요성에 대한 언급이 있을 뿐이다.

**오답 피하기** ① 원거리 의사소통은 전화의 발명으로 가능해졌다. ② 전자 기술의 발달은 대중 매체의 출현을 가능하게 했다. ③ 뉴 미디어는 현장감을 높이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④ 인터넷은 컴퓨터의 발명과 통신 기술의 발달로 이루어졌다.

## 02

이 글은 기술 발달과 더불어서 매체가 발달하고 있음을 밝히고 그에 따라 매체의 유형과 성격을 살펴보는 글이다.

**오답 피하기** ② 익명성을 지닌 매체가 위험한지 여부는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없다. ③ 인터넷이 사회에 변화를 가져온다고는 하였으나 그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댓글을 달지 말아야 한다는 결론을 끌어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④ 기술이 발달해도 기존 매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⑤ 기술 발달이 사람들 간의 소통이 인간적으로 이루어지게 돕는다는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 03

인터넷으로 온라인 동호회가 만들어졌지만 그 자체로 문화가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답 피하기** ① 전자 기술의 발달은 전화 등의 발명으로 정보 전달 시간을 단축시켰다. ② 인터넷 매체의 등장으로 쌍방향 소통이 가능해졌다. ③ 텔레비전 등 대중 매체가 전자 기술의 발달로 등장하였다. ④ 전자 기술의 발달로 인터넷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의사소통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 04

뉴 미디어는 팟캐스트, 인터넷 개인 방송, 유튜브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문화 콘텐츠가 유통되는 문화 환경을 만들었다.

**오답 피하기** ① 감정적인 대립과 갈등을 두고 다양한 문화라고 하기는 어렵다. ② 인터넷에서 즉각적인 반응은 가능하지만 성찰적이기는 어렵다. ④ 소비 문화와 누리 소통망의 직접적인 관련성은 드러나 있지 않다. ⑤ 인기 영합적인 정치 문화에 누리 소통망이 영향을 주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 05

(나)의 내용을 참고하여 인터넷이 보급된 후 매체 이용자, 즉 생산자와 수용자의 관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작성하도록 한다.

## 06

이 글에 매체의 유형과 특성을 이해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언급한 것 외에 자기주장을 내세우는 내용은 없으며, 구체적인 사례로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지도 않다.

**오답 피하기** ① 매체의 개념을 밝히며 글을 시작하고 있다. ② 구체적인 매체들을 열거하고 있다. ③ 전자 기술의 발달이 매체의 발달의 원인이 되었음을 제시하고 있다. ④ 이 글에는 글쓴이의 주관보다는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사실들이 설명되고 있다.

## 07

이 글은 첫 단락에서 언급한 대로 매체의 유형과 그 특성을 매체 발달의 관점에서 서술하고 있는 글이다.

**오답 피하기** ①, ②, ⑤ '매체란 무엇인가', '매체의 발전 방향'은 전체를 포괄하

는 내용이 아니므로 표제로서 부적절하다. ④ '매체 생산자의 관점에서'라는 부제는 이 글이 매체의 발달을 통해 유형과 특성을 파악하고 있다는 점을 포괄하지 못한다.

## 08

매체의 유형과 특성을 이해하는 목적은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이다.

**오답 피하기** ① 매체 발달의 방향성을 짐작하는 것은 유형과 특성을 이해하는 본래 목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유형과 특성만으로 방향성을 짐작하는 것은 쉽지 않다. ②, ③, ④는 부분적으로는 맞지만 전체를 포괄하는 내용은 아니다.

## 09

컴퓨터로 드라마를 보고 인상 깊은 장면을 캡처하여 저장하는 것은 상호 소통이라고 하기 어렵다.

**오답 피하기** ①, ②, ③, ④는 모두 댓글을 작성하거나 의견을 다는 행위로서 모두 상호 소통이라고 할 수 있다.

## 10

(다)에서 이야기한 대중 매체의 특성인 익명의 수용자에게 동시에 대량의 정보를 전달하는 점을 활용하여 논리적으로 답을 작성한다.

## 11

문자 언어는 복잡하고 많은 내용을 논리적으로 전달할 수는 있지만 빠르게 전달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12

매체 언어는 전통적인 언어 이외에 소리, 음성, 이미지, 동영상 등 시각, 청각 자료까지 두루 활용하는 복합 양식성의 특징을 지닌다.

**오답 피하기** ① 매체 언어는 전통적인 언어, 즉 음성 언어, 문자 언어를 단순히 확장시킨 개념이라고 보기 어렵다. 음성과 문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요소들을 복합적으로 활용한 개념이다. ② 기존 문자를 다양하게 표현한 것은 글씨체를 달리한 것일 뿐이다. ③ 매체 언어는 전통적인 언어까지 포함하여 활용하고 있다. ⑤ 매체 언어는 기술 발달과 더불어 자연스럽게 생겨난 것이다.

## 13

음성 언어는 섬세한 감정까지 전달할 수 있는 특징이 있어서 자칫 감정적인 반응으로 이어져 말다툼의 여지가 있다.

**오답 피하기** ① 말투와 몸짓은 의사소통의 보조 수단이다. ② 음성 언어는 감정적인 언어이므로 형식적인 의사소통이 될 여지가 적다. ③ 산만하고 자기중심적인 경우는 오히려 인터넷 등의 매체에 더 가깝다. ④ 음성 언어는 말투, 어조, 성량 등을 통해서 중요한 내용을 강조할 수 있다.

## 14

신문 기사, 사진, 광고 등을 분야별로 폴더에 정리하는 것은 매체를 활용했다고 볼 수 없다. 매체는 의사소통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폴더에 자료를 저장하는 것은 의사소통을 전제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답 피하기** ①, ②, ③, ④는 모두 생산자와 수용자를 전제한 의사소통 상황으로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는 사례에 해당한다.

## 15

(다)는 인쇄 매체 언어와 전자 매체 언어의 차이를 대조하는 설명 방식을 취하는 한편, 텔레비전과 인터넷 등 전자 매체 언어의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그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오답 피하기** ① (가)에는 대조가 아닌 정의의 방법이 사용되었다. ② (나)에는 대상의 배경이 아니라 대상의 특성이 서술되었다. ④ (라)에는 분류가 아니라 예시가 쓰였다. ⑤ (가)~(라)에 문제나 대안 제시 등은 나타나지 않는다.

## 16

전자 매체 언어는 한층 더 복합적인 양상을 띤다. ㄴ의 동영상과 사진을 활용하는 것이나, ㄷ의 누리집 링크는 복합적인 양상을 살린 것이다.

**오답 피하기** ㄱ과 ㄹ은 인쇄 매체 언어만으로도 충분히 만들 수 있으므로 전자 매체 언어의 특성을 충분히 활용했다고 보기 어렵다.

## 17

다양한 요소가 상호 작용한다는 것은 그것들끼리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의미이다.

## 18

영화 예고편에 활용된 각각의 요소를 분석하도록 한다.

### 대단원 핵심문제

본문 60~63쪽

01 ⑤ 02 ① 03 ③ 04 예시 답안 서로 다른 문화가 반영되어 어휘의 발달이 달랐기 때문이다.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에서 친족 관계어나 높임말 등의 어휘가 발달한 이유도 혈연과 상하 관계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유교 문화 등이 우리 말에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다. 05 ⑤ 06 ⑤ 07 ⑤ 08 ④ 09 ④ 10 ③ 11 ① 12 ③ 13 ②

## 01

(가)는 언어와 문화, (나)는 우리말의 특징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오답 피하기** ①, ② (가)는 특정한 주장을 펼친다기보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대상을 설명하고 있다. ③, ④ (나)는 귀납법, 연역법 등을 사용하여 논리적으로 결론을 이끌어 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 02

우리말에 존중하는 표현, 즉 높임법이 발달한 것은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장유유서 등을 중시하는 유교 문화권이었기 때문이다.

## 03

‘헛살다’의 접두사 ‘헛-’은 ‘쓸모없는, 소용없는’이라는 의미를 지닌 접두사이다. 따라서 표현을 강조하는 접두사와는 차이가 있다.

**오답 피하기** ①, ②, ④, ⑤의 ‘드-’, ‘치-’, ‘시-’, ‘휘-’ 등은 모두 부사적인 접두사로 의미를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

## 04

(가)에서 이유를 찾고 (나)에서 사례를 찾아 언급하면 된다. [보기]와 같은 차이가 생긴 것은 서로 다른 문화가 반영되어 어휘의 발달이 달랐기 때문이다. (나)에 언급된 우리말의 친족 관계어나 높임말의 발달에도 우리의 유교 문화가 영향을 끼쳤음을 유추할 수 있다.

## 05

영어권에서는 자아를 중시하는 사고가 문장에서 주어를 생략하지 않는 경향으로 나타난다고 보는 것은 사고의 경향이 언어에 반영된 것으로 보는 예이다.

**오답 피하기** ①, ②, ④ 국어의 규범에 맞고 바른 언어생활을 하는 것은 마땅히 지녀야 할 국어 생활의 태도일 뿐 사고의 경향이 언어에 반영된 경우로는 볼 수 없다. ③ 언어가 사고에 영향을 미침을 전제로 하는 경우이다.

## 06

뉴스 기사가 유통되는 매체가 인터넷이나 이동 통신 기기로 분화한 것에 새롭게 대비하여 카드 뉴스가 취하고 있는 전략이 무엇인지에 중점을 둔 평가는 ⑤이다.

## 07

매체의 유형과 특성을 정확히 알고 활용하는 능력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의사소통의 필수 조건이라고 하였다. ⑤는 조건과 결과에 해당하는 두 대상을 바꾸어 진술하였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08

인터넷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와도 편리하게 소통할 수 있게

해 준다. 다수에게 정보를 전달하기 어렵다는 언급은 이 글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오답 피하기** ①, ⑤는 (나), ②, ③은 (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09

[보기]에서 확인이 가능한 것은 영어와 달리 우리말에서는 중요한 정보만을 남기고 주어를 포함한 나머지는 생략한다는 점이다.

## 10

한글 학당을 각 지역에 두는 것은 매체를 활용한 방안이라고 보기 어렵다.

**오답 피하기** ①, ②, ④, ⑤는 텔레비전이나 인터넷 등의 매체를 활용한 방안으로서 적절하다.

## 11

(가)에는 매체 언어의 복합 양식의 특성에 대한 설명이 나타나 있고, 인쇄 매체 언어를 사례로 들어 그 이해를 돕고 있다.

**오답 피하기** ② (가)에는 특별한 전제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③ (나)는 예시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④ (나)에는 구체적인 사물에 빗댄 내용이 없다. ⑤ (다)는 기행문으로 일반적 인식을 전달하는 글이 아니다.

## 12

이모티콘을 활용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지만 글의 주제와 맞지 않는 최신의 이모티콘을 자주 쓰는 것은 자칫 글의 통일성을 해칠 위험이 따른다.

**오답 피하기** ① 지도를 넣으면 이해가 빠를 수 있다. ② 사진을 넣으면 현장감이 느껴진다. ④ 누리집은 하이퍼링크 등을 통해 다른 정보들을 제공받기에 편하다. ⑤ 사진 등은 현장감을 느껴지게 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 13

제시된 영화 예고편은 각각의 요소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종합적인 의미를 형성하고 있으므로 독자적으로 효과를 낸다고 보기 어렵다.



## 국어의 탐구와 활용



대단원 7월장이

본문 67쪽

확인 문제

01 (1) 표현, 의사소통 (2) 생산 02 (1) × (2) ○

1

### 국어 구조의 탐구와 활용

#### [1] 음운의 체계와 변동

확인 문제

본문 71~75쪽

01 ⑤ 02 단모음, 반모음, 입술, 혀 03 ⑤ 04 파열음, 마찰음, 파찰음, 비음, 유음 05 음운 변동, 교체 06 ④ 07 ① 08 [가치], 구개음화 09 ② 10 ③ 11 '좋은': 'ㅎ' 탈락, '좋은': 거센소리되기 12 (1) ㉠, ㉡ (2) ㉢, ㉣ (3) ㉤ (4) ㉥

01

국어의 단모음은 조음 시 혀의 높낮이에 따라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으로 나뉘며, 혀의 최고점의 앞뒤 위치에 따라 전설 모음과 후설 모음으로 나뉜다.

02

(라)에 이중 모음의 개념과 특징이 나와 있다.

03

여린입천장소리는 혀의 뒷부분을 여린입천장에 대어 내는 소리이다.

04

자음은 조음 방법에 따라 파열음, 마찰음, 파찰음, 비음, 유음으로 분류할 수 있다.

05

음운 변동은 음운이 조건 환경에 따라 달리 실현되는 현상이며, 교체, 탈락, 첨가, 축약으로 나눌 수 있다.

06

'팔뺱'은 음절의 끝소리 현상에 의해 [판뺱]으로 발음된다.

**오답 피하기** ①. ② 파열음 뒤에서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바뀌는 된소리되기에 의해, '박수'는 [박쑤], '속도'는 [속또]로 발음된다. ③ 용언의 어간 말 비음 'ㄹ' 뒤에서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바뀌는 된소리되기에 의해, '넘고'는 [넘:꼬]로 발음된다. ⑤ 한자어 내 'ㄹ' 뒤에서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바뀌는 된소리되기에 의해, '일시'는 [일씨]로 발음된다.

07

'자음군 단순화'는 음절 끝의 두 자음 중 하나가 탈락하는 현상인데 '깎다'의 어간 '깎-'의 받침 'ㄱ'은 하나의 자음이므로 자음군 단순화의 예로 적절하지 않다. 이는 'ㄱ, ㄷ, ㅂ'이 아닌 자음이 음절 끝에서 [ㄱ], [ㄷ], [ㅂ]으로 바뀌는 음절의 끝소리 현상에 해당하는 예이다.

**오답 피하기** ② '깎다'는 받침 'ㄹ' 중 'ㄹ'이 탈락하여 [국:따]로 발음되므로 자음군 단순화의 예로 적절하다. ③ '살다'는 받침 'ㄷ' 중 'ㄷ'이 탈락하여 [삼:따]로 발음되므로 자음군 단순화의 예로 적절하다. ④ '앉다'는 받침 'ㄷ' 중 'ㄷ'이 탈락하여 [안따]로 발음되므로 자음군 단순화의 예로 적절하다. ⑤ '알다'는 받침 'ㄹ' 중 'ㄹ'이 탈락하여 [알:따]로 발음되므로 자음군 단순화의 예로 적절하다.

08

'같이'는 [가치]로 발음되는데 이는 형식 형태소 '-이'의 영향으로 'ㄷ'이 [치]으로 바뀌는 구개음화가 일어난 것이다.

09

'낱-+-다'는 [나타]로 발음되는데 이는 'ㅎ'과 'ㄷ'이 합쳐져 [티]으로 발음되는 축약 현상(거센소리되기)이 나타난 것이다.

**오답 피하기** ① '앉-+-'은 자음군 단순화에 의해 'ㄷ'이 탈락하여 [안]으로 발음된다. ③ '낱-+-'은 'ㄹ'이 탈락하여 [나는]으로 발음된다. ④ '쓰-+-'은 'ㄷ'이 탈락하여 [쑤]로 발음된다. ⑤ '놓-+-'은 'ㅎ'이 탈락하여 [노아]로 발음된다.

10

'꽃잎'은 합성어로, 앞뒤 말 사이에 'ㄴ'이 첨가되어 [꼇닙]으로 발음된다.

**오답 피하기** ① '인연'은 [이년]으로 연음되어 발음되므로 음운 변동이 발생하지 않는다. ② '굳이'는 [구지]로 발음되므로 구개음화에 속한다. ④ '미닫이'는 [미다지]로 발음되므로 구개음화에 속한다. ⑤ '쌀이다'는 [싸이다]로 발음되므로 'ㅎ' 탈락에 속한다.

11

'좋은'은 'ㅎ'이 탈락하여 [조은]으로, '좋은지'는 'ㅎ'과 'ㅈ'이 합쳐져 [조치]로 발음된다.

## 12

㉠은 음절의 끝소리 현상, ㉡은 자음군 단순화, ㉢은 ‘ㅎ’ 탈락, ㉣은 거센소리되기, ㉤은 비음화, ㉥은 ‘ㄴ’ 첨가가 일어난 예이다.

### 소단원 핵심문제

본문 80~81쪽

01 ㉠ 02 ㉢ 03 ㉣ 04 ㉢ 05 예시 답안 단모음. 발음할 때 입술의 모양이나 혀의 위치의 변화 여부를 기준으로 할 때 단모음과 이중 모음은 상대되는 개념이다. 06 ㉠ 07 ㉣ 08 ㉠ 09 ㉢ 10 예시 답안 ‘박’은 ‘ㅍ’이 [ㄱ]으로 교체되어 [박]으로 발음되는데 이는 음절 끝에 위치한 자음이 [ㄱ, ㄴ, ㄷ, ㄹ, ㅁ, ㅂ, ㅇ] 중 하나로 발음되는 음절의 끝소리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반면 ‘닭’은 ‘ㄷ’에서 ‘ㄹ’이 탈락하여 [닥]으로 발음되는데 이는 음절 끝에는 하나의 자음밖에 발음될 수 없기 때문에 두 자음 중 하나가 탈락하는 자음군 단순화가 발생한 것이다.

## 01

(가)~(라)에서 자음과 모음을 구분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오답 피하기** ① (가)에서 ‘한 언어에서 말의 뜻을 구별하여 주는 최소의 말소리를 음운이라고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② (다)에서 ‘표준 발음을 기준으로 할 때 국어에는 19개의 자음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③ (라)에서 ‘파열음은 폐에서 나온 공기의 흐름을 완전히 막았다가 터뜨리면서 내는 소리’라고 설명하고 있다. ④ (나)에서 ‘해당 모음을 발음할 때 입술 모양이 둥글게 되는 모음을 원순 모음, 그렇지 않은 모음을 평순 모음이라고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 02

음운은 말의 뜻을 구별하여 주는 최소의 말소리인데 ‘박수’와 ‘복수’에서 각각의 뜻을 구별하게 해 주는 음운은 ‘박’과 ‘복’이 아닌 ‘ㅍ’과 ‘ㅂ’이다.

**오답 피하기** ① ‘공’과 ‘콩’은 ‘ㄱ’과 ‘ㅋ’의 차이로 인해 말의 뜻이 달라지게 되므로 ‘ㄱ’과 ‘ㅋ’은 각각 음운에 해당한다. ② ‘밥’과 ‘밤’은 종성의 ‘ㅂ’과 ‘ㅁ’의 차이로 인해 말의 뜻이 달라지게 되므로 ‘ㅂ’과 ‘ㅁ’은 각각 음운에 해당한다. ④ ‘물’과 ‘불’에서는 자음 ‘ㅁ’과 ‘ㅂ’이, ‘물’과 ‘말’에서는 모음 ‘ㅜ’와 ‘ㅏ’가 음운에 해당하므로 국어의 자음과 모음은 음운에 포함된다. ⑤ ‘모기’와 ‘고기’는 ‘ㅁ’과 ‘ㄱ’의 차이로 인해 말의 뜻이 달라지게 되므로 ‘ㅁ’과 ‘ㄱ’은 각각 음운에 해당한다.

## 03

‘ㄴ’은 후설 모음이자 평순 모음이므로 발음할 때 혀의 최고점이 뒤쪽에 있으며 입술 모양이 둥글게 되지 않는다.

**오답 피하기** ① 국어의 단모음은 발음할 때 혀의 최고점의 앞뒤 위치에 따라 전설 모음과 후설 모음으로 나뉘므로 ㉠이 ‘전설 모음’이며 이는 발음할 때 혀의 최고점이 앞쪽에 있는 모음을 뜻한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② 평순 모음과 원순 모음은 국어의 단모음을 발음할 때 입술의 모양에 따라 나눈 것이므로 ㉡이 ‘입술 모양’이라는 설명은 적절하다. ③ 단모음 ‘ㅜ’는 후설 모음이자 고모음이므로 ㉢이 ‘ㅜ’라는 설명은 적절하다. ⑤ 국어의 단모음은 발음할 때 혀의 높낮이에 따라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으로 나뉘므로 ㉤이 저모음이라는 설명은 적절하다.

## 04

‘ㅁ’은 두 입술을 맞대어 내는 소리이므로 조음 위치상 입술소리이며, 폐에서 나온 공기의 대부분을 코로 내보내면서 내는 소리이므로 조음 방법상 비음에 속한다.

**오답 피하기** ① ‘ㄱ’은 조음 위치상 여린입천장소리이며 조음 방법상 파열음에 속한다. ② ‘ㄴ’은 조음 방법상 비음에 속하나 조음 위치상 잇몸소리에 속한다. ④ ‘ㅂ’은 조음 위치상 입술소리이나 조음 방법상 파열음에 속한다. ⑤ ‘ㅇ’은 조음 방법상 비음에 속하나 조음 위치상 여린입천장소리에 속한다.

## 05

발음할 때 입술의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변화하지 않으면 단모음, 변화하면 이중 모음임을 알 수 있다.

## 06

‘키읔’은 ‘ㅋ’이 [ㄱ]으로 바뀌어 [키읔]으로 발음되는 음절의 끝소리 현상이, ‘국수’는 ‘ㅅ’이 [ㅆ]으로 바뀌어 [국쑤]로 발음되는 된소리되기가, ‘국물’은 ‘ㄱ’이 [ㅇ]으로 바뀌어 [궁물]로 발음되는 비음화가 나타난다.

**오답 피하기** ② ‘히읇’은 [히읇]으로 발음되므로 음절의 끝소리 현상이, ‘국밥’은 [국뽕]으로 발음되므로 된소리되기가 나타나는 예로 적절하지만 ‘신라’는 [실라]로 유음화가 일어나므로 비음화의 예로 볼 수 없다. ③ ‘발달’은 [발땡]로 발음되므로 된소리되기가, ‘밤물’은 [밤물]로 발음되므로 비음화가 나타나는 예로 적절하지만 ‘입고’는 [입꼬]로 된소리되기가 일어나므로 음절의 끝소리 현상의 예로 볼 수 없다. ④ ‘잡는다’는 [잠는다]로 발음되므로 비음화가 나타나는 예로 적절하지만 ‘해돋이’는 [해도지]로 구개음화가 일어나고 ‘한낮’은 [한남]으로 음절의 끝소리 현상이 일어나므로 각각 음절의 끝소리 현상과 된소리되기의 예로 볼 수 없다. ⑤ ‘숲’은 [쑤]으로 발음되므로 음절의 끝소리 현상이, ‘박사’는 [박싸]로 발음되므로 된소리되기가 나타나는 예로 적절하지만 ‘감다’는 [감:따]로 된소리되기가 일어나므로 비음화의 예로 볼 수 없다.

## 07

‘겉모양’은 음절의 끝소리 현상에 의해 [건모양]으로 바뀐 후 [건모양]으로 비음화되어 발음되므로 음절의 끝소리 현상과 된소리되기가 모두 나타나는 예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 피하기** ① ‘깎다’는 [깎다] → [깎따]로 음절의 끝소리 현상과 된소리되기가 나타난다. ② ‘낮잠’은 [남잠] → [남땡]으로 음절의 끝소리 현상과 된소리되



기가 나타난다. ③ ‘짚신’은 [집신]→[집썩]으로 음절의 끝소리 현상과 된소리 되기가 나타난다. ⑤ ‘발갈이’는 [받가리]→[받까리]로 음절의 끝소리 현상과 된소리되기가 나타난다.

## 08

‘먹히는’은 예사소리 ‘ㄱ’이 ‘ㅎ’과 합쳐져 거센소리 [ㅋ]으로 발음되는 거센소리되기에 의해 [머키는]으로 발음되고, ‘눈요기’는 ‘ㄴ+요기’로 이루어진 합성어로서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반모음 ‘j’로 시작하는 경우 ‘ㄴ’이 첨가되는 현상인 ‘ㄴ’ 첨가에 의해 [눈뇨기]로 발음된다.

## 09

‘옷장’은 음절의 끝소리 현상과 된소리되기에 의해 [온장]→[온짱]으로 발음되는 것이다.

**오답 피하기** ① ‘ㅎ’ 탈락은 용언의 어간 말 ‘ㅎ’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나 접미사 앞에서 탈락하는 현상이므로 ‘놓+아’에서는 ‘ㅎ’ 탈락이 일어나지만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고’ 앞의 ‘ㅎ’은 탈락되지 않고 거센소리되기에 의해 축약되어 [노코]로 발음된다. ② ‘동글+니’가 [동그니]로 발음되는 것은 ‘동글-’의 어간 말 ‘ㄹ’이 ‘ㄴ’으로 시작되는 어미 앞에서 탈락된 것이므로 ‘ㄹ’ 탈락으로 볼 수 있다. ④ 음절 끝에서는 하나의 자음밖에 발음될 수 없기 때문에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 ‘여덟’의 음절 끝 두 자음 중 ‘ㅂ’이 탈락하여 [여덜]로 발음된다. ⑤ 용언의 어간 말 ‘-는’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탈락하게 되므로 ‘바쁘+아서’는 [바빠서]로 발음된다.

## 10

음절의 끝소리 현상과 자음군 단순화를 비교하여 이해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문제이다. ‘뽕’은 음절의 끝소리 현상이 발생한 것인 반면, ‘닭’은 자음군 단순화가 발생한 것이다.

## [2] 단어의 구조와 특성

### 확인 문제

본문 83~89쪽

- 01 ④ 02 ④ 03 형태, 기능, 의미 04 ③ 05 을 06 ①  
07 ④ 08 어근: ‘덮-’, 접사: ‘-개’ / 접사 ‘-개’의 종류: 접미사, 지배적 접사 09 ⑤ 10 ③ 11 축약 12 ① 13 ③  
14 상하 관계 15 ② 16 ②

## 01

‘꼬박’은 문장에서 모습을 바꾸지 않으므로 불변어이고, ‘어떻게’의 자리에 쓰여 뒤에 오는 말을 수식하였으므로 수식언어자 부사이다.

## 02

‘한’, ‘송이’, ‘꽃’, ‘모든’은 불변어이고, ‘피고’는 ‘피면’, ‘피어’

등과 같이 그 모습을 바꿀 수 있는 가변어이다.

## 03

(가)에 품사를 분류하는 세 가지 기준이 제시되어 있다.

## 04

‘별’은 같은 종류의 모든 사물에 두루 쓰이므로 보통 명사이다.

**오답 피하기** ① ‘깜깜한’은 ‘깜깜하다’라는 단어로, 문장에서 ‘어떠하다’의 자리에 쓰이며 목적어를 가질 수 없으므로 형용사이다. ② ‘하늘’은 같은 종류의 모든 사물에 두루 쓰이므로 보통 명사이다. ④ ‘가득’은 ‘떠 있다’라는 용언을 꾸며 주고 있으므로 부사이다. ⑤ ‘떠’는 기본형이 ‘뜨다’로 ‘뜨자’, ‘떠라’와 같이 청유형과 명령형이 가능하므로 동사이다.

## 05

‘는’, ‘만’, ‘까지’는 보조사, ‘와’는 접속 조사, ‘을’은 목적어의 자격을 나타내는 격 조사이다.

## 06

첫 번째 ‘같이’는 ‘다름없이’라는 의미로 용언을 꾸며 주고 있으므로 부사이고, 두 번째 ‘같이’는 체언 ‘매일’ 뒤에 붙어 이를 강조해 주고 있으므로 조사이다.

## 07

‘기쁘다’의 ‘기쁘-’와 ‘-다’는 문장에서 자립적으로 쓰일 수 없기 때문에 모두 의존 형태소이다.

**오답 피하기** ① ‘돌’과 ‘다리’는 모두 문장에서 자립적으로 쓰일 수 있으므로 자립 형태소이다. ② ‘돌’과 ‘다리’는 어휘적인 의미를 지닌 형태소이므로 실질 형태소이다. ③ ‘헛소문’은 ‘근거 없이 떠도는 소문’이라는 뜻으로, 이때 ‘헛-’은 의미의 주변부를 이루고 어근 앞에 왔으므로 접두사이며, ‘소문’은 의미의 중심부를 이루고 있으므로 어근이다. ⑤ ‘기쁘다’의 ‘기쁘-’는 어휘적인 의미를 지닌 형태소이므로 실질 형태소이며, ‘-다’는 문법적인 의미를 지닌 형태소이므로 형식 형태소이다.

## 08

어근은 의미의 중심부를 이루는 부분이며, 접사는 의미의 주변부를 이루는 부분이므로 ‘덮개’에서 ‘덮-’은 어근에, ‘-개’는 접사에 해당한다. 이때 접사 ‘-개’는 어근의 뒤에 왔으므로 접미사이며 동사인 어근의 품사를 명사로 바꾸었으므로 지배적 접사이다.

## 09

‘김밥’은 어근으로만 이루어진 합성어이며, ‘일꾼’은 어근과 접사로 이루어진 파생어이므로 두 단어 모두 복합어이다.

**오답 피하기** ① '나무'는 단일어, '풋사과'는 파생어이다. ② '밤낮'은 합성어, '민들레'는 단일어이다. ③ '자동차'는 합성어, '일찍'은 단일어이다. ④ '물병'은 합성어, '오늘'은 단일어이다.

## 10

'늦더위'는 '어간+명사'로, 우리말의 일반적인 단어 배열 방식인 '어간+어미+명사'('늦은더위')와 다르므로 비통사적 합성어에 해당한다.

**오답 피하기** ① '작은아버지'는 '어간+어미+명사'로 통사적 합성어이다. ② '힘들다'는 '주어+서술어'로 통사적 합성어이다. ④ '첫사랑'은 '관형사+명사'로 통사적 합성어이다. ⑤ '본받다'는 '목적어+서술어'로 통사적 합성어이다.

## 11

'소확행'은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의 앞 음절만 따서 결합한 축약어이다.

## 12

'책방'과 '서점'은 두 단어 모두 '책을 갖추어 놓고 팔거나 사는 가게'라는 의미를 지니므로 유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② '식물-호박'은 상하 관계에 있는 단어들이다. ③ '인간-남자'는 상하 관계에 있는 단어들이다. ④ '입다-벗다'는 반의 관계에 있는 단어들이다. ⑤ '아버지-어머니'는 반의 관계에 있는 단어들이다.

## 13

다른 예들은 정도의 측면에서 대립하는 경우이나 '있다'와 '없다'는 상호 배타적으로 대립하는 경우이다.

**오답 피하기** ① '흑'과 '백'은 어두운 정도의 측면에서 대립하는 반의어이다. ② '선'과 '악'은 선한 정도의 측면에서 대립하는 반의어이다. ④ '크다'와 '작다'는 크기의 정도의 측면에서 대립하는 반의어이다. ⑤ '현명하다'와 '어리석다'는 현명함의 정도의 측면에서 대립하는 반의어이다.

## 14

'생물'은 '생명을 가지고 스스로 생활 현상을 유지하여 나가는 물체'라는 의미를 지니므로 '생물계의 두 갈래 가운데 하나'를 뜻하는 '동물'을 포함하는 단어이다.

## 15

소리는 같으나 뜻이 다른 단어를 동음이의어라고 한다.

## 16

㉓는 '돈이나 물품 따위를 거두어들임. 또는 그 돈이나 물품'이라는 뜻을, ㉔는 '다른 나라로부터 상품이나 기술 따위를 국내로 사들임.'이라는 뜻을 지닌 단어이므로 서로 뜻이 달라 대치

하여 쓸 수 없다. 서로 대치하여 쓸 수 있는 의미 관계는 유의 관계이다.

**오답 피하기** ① ㉓와 ㉔는 소리는 같으나 뜻이 다른 단어이므로 동음이의어이다. ③ ㉓와 ㉔는 뜻은 다르지만 두 단어 모두 명사이므로 품사는 같다. ④ ㉓는 '돈이나 물품 따위를 거두어들임. 또는 그 돈이나 물품'이라는 뜻을, ㉔는 '다른 나라로부터 상품이나 기술 따위를 국내로 사들임.'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으므로 소리는 같으나 뜻은 다른 단어이다. ⑤ ㉓와 ㉔는 동음이의어이므로 사전에서 '수입<sup>01</sup>', '수입<sup>02</sup>'와 같은 방식으로 구분하여 풀이하고 있다.

### 소단원 핵심문제

본문 93~95쪽

01 ④ 02 ④ 03 ⑤ 04 예시 답안 ㉓는 '어떤'의 의미로 뒤에 오는 의존 명사 '개'를 수식하고 있으므로 관형사이며, ㉔는 썸의 수량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수사'이다. 05 ③ 06 ⑤ 07 ② 08 ③ 09 예시 답안 ㉑의 예는 '두통하다-두껍다', ㉒의 예는 '차갑다-뜨겁다', ㉓의 예는 '꽃-장미'이다. 10 ① 11 ⑤ 12 ④

## 01

다른 말과의 관계를 나타내거나 의미를 더해 주는 단어들을 '조사'라고 한다. '수사'는 사물의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단어들을 뜻한다.

## 02

'다음'은 '다음은 내 차례이다'와 같이 '무엇이'의 자리에 쓰이며, 문장에서 모습을 바꾸지 않으므로 불변어이다.

**오답 피하기** ① '도서관'은 체언이자 불변어이므로 ㉠에 위치해야 한다. ② '읽는'은 용언이자 가변어이므로 ㉡에 위치해야 한다. ③ '맑구나'는 용언이자 가변어이므로 ㉡에 위치해야 한다. ⑤ '꼭'은 수식언이자 불변어이므로 ㉡에 위치해야 한다.

## 03

'훌륭한'의 기본형은 '훌륭하다'로,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이므로 '형용사'이다.

**오답 피하기** ① '나'는 '무엇이(나도) 무엇을(이것을 어디에서 샀는지(를)) 어찌 하(잘 모른다)'라는 문장에서 '무엇'의 자리에 쓰였으므로 체언이다. ② '사람'은 '생각을 하고 언어를 사용하며, 도구를 만들어 쓰고 사회를 이루어 사는 동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이므로 명사이다. ③ '이것'은 말하는 이에게 가까이 있거나 말하는 이가 생각하고 있는 사물의 이름을 대신하고 있으며, '어디'는 잘 모르는 어느 곳의 이름을 대신하고 있으므로 모두 대명사이다. ④ '독립'과 '김구'는 문장에서 모습을 바꾸지 않는 단어이므로 불변어이다.

## 04

‘의미’에 따른 품사의 분류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문제로, ③는 ‘어떤’의 의미로 뒤에 오는 의존 명사 ‘개’를 수식하고 있으므로 관형사이며, ⑥는 셈의 수량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수사’이다.

## 05

‘스스로’는 ‘자신의 힘으로’라는 어휘적인 의미를 지니므로 실질 형태소이며, 문장에서 자립적으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자립 형태소이다.

**오답 피하기** ① ‘읽’은 어휘적인 의미를 지니며 문장에서 자립적으로 쓰일 수 있으므로 실질 형태소이자 자립 형태소이다. ② ‘흔들려서’의 ‘흔들리-’는 어휘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으므로 실질 형태소이고, ‘-어서’는 문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으므로 형식 형태소이다. ④ ‘몸’은 어휘적인 의미를 지니며 문장에서 자립적으로 쓰일 수 있으므로 실질 형태소이자 자립 형태소이다. ⑤ ‘을’은 문법적인 의미를 지니며 문장에서 자립적으로 쓰일 수 없으므로 형식 형태소이자 의존 형태소이다.

## 06

‘봄날’의 ‘봄’과 ‘날’은 모두 어근이므로 둘 다 의미의 중심부를 이룬다.

**오답 피하기** ① ‘슬픔’은 어근 ‘슬프-’에 명사 파생 접미사 ‘-ㅁ’이 결합한 파생어이다. ② 형용사 ‘새하얇다’의 접두사 ‘새-’는 어근에 ‘매우 질고 선명하게’의 뜻을 더할 뿐 형용사인 어근 ‘하얇다’의 품사를 변화시키지는 않으므로 한정적 접사이다. ③ ‘겨울’은 ‘겨’와 ‘울’로 쪼갤 수 없는 하나의 어근이므로 단일어이다. ④ ‘눈부시다’는 어근 ‘눈’과 어근 ‘부시다’로 이루어진 합성어이다.

## 07

‘달리기’의 접사 ‘-기’는 어근 뒤에 왔으므로 접미사이며, 동사 ‘달리-’와 결합하여 명사 ‘달리기’를 만들었으므로 어근의 품사와 다른 품사의 단어를 만드는 지배적 접사이다.

**오답 피하기** ① ‘헛수고’의 ‘헛-’은 어근 앞에 왔으므로 접두사이며, 명사 ‘수고’에 ‘이유 없는’, ‘보람 없는’의 뜻을 더할 뿐 어근의 품사와 동일한 품사의 단어인 명사 ‘헛수고’를 만들었으므로 한정적 접사이다. ③ ‘욕심쟁이’의 ‘-쟁이’는 어근 뒤에 왔으므로 접미사이며, 명사 ‘욕심’에 ‘그것이 나타내는 속성을 많이 가진 사람’의 뜻을 더할 뿐 어근의 품사와 동일한 품사의 단어인 명사 ‘욕심쟁이’를 만들었으므로 한정적 접사이다. ④ ‘사냥꾼’의 ‘-꾼’은 어근 뒤에 왔으므로 접미사이며, 명사 ‘사냥’에 ‘어떤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 또는 ‘어떤 일을 잘하는 사람’의 뜻을 더할 뿐 어근의 품사와 동일한 품사의 단어인 명사 ‘사냥꾼’을 만들었으므로 한정적 접사이다. ⑤ ‘풋사과’의 ‘풋-’은 어근 앞에 왔으므로 접두사이며, 명사 ‘사과’에 ‘처음 나온’, 또는 ‘덜 익은’의 뜻을 더할 뿐 어근의 품사와 동일한 품사의 단어인 명사 ‘풋사과’를 만들었으므로 한정적 접사이다.

## 08

‘얼굴’은 단일어, ‘향기롭다’는 어근 ‘향기’와 접사 ‘-롭다’로

이루어진 파생어, ‘첫눈’은 어근 ‘첫’과 어근 ‘눈’으로 이루어진 합성어이다.

**오답 피하기** ‘구름, 고구마’는 단일어, ‘햅쌀, 덧버선, 짓밟다, 지붕’은 파생어, ‘국밥’은 합성어이다.

## 09

‘두툼하다-두껍다’는 ‘내복을 두껍게 껴입었다.’를 ‘내복을 두툼하게 껴입었다.’와 같이 대치하여 쓸 수 있기에 유의 관계로 볼 수 있다. 또한 ‘차갑다-뜨겁다’는 차가움의 정도의 측면에서 대립하고 있으므로 반의 관계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꽃-장미’는 의미상 ‘장미’가 ‘꽃’에 포함되므로 상하 관계로 볼 수 있다.

## 10

사람과 인간은 서로 대치가 가능하며 모두 ‘생각을 하고 언어를 사용하며, 도구를 만들어 쓰고 사회를 이루어 사는 동물’이라는 의미를 지니므로 유의 관계에 있는 단어들로 볼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② 단어 간에 대치가 가능하다는 것은 문장에서 단어의 앞뒤 배열을 바꾸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문장에 사용된 한 단어를 다른 단어로 바꾸어도 문장의 의미에 큰 변화가 없다는 뜻이다. ‘생성’은 ‘새로 생겨남.’이라는 의미를, ‘소멸’은 ‘사라져 없어짐.’이라는 서로 반대되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므로 두 단어는 반의 관계이다. ③ ‘만나다’와 ‘헤어지다’는 만남의 정도를 나타내는 단어가 아니라 마주 보거나 헤어지는 상태를 나타내므로 상호 배타적으로 대립하는 반의 관계이다. ④ ‘연예인’과 ‘배우’는 유의 관계가 아닌 상하 관계이다. ⑤ ‘시계’가 상의어, ‘탁상시계’가 하의어이다.

## 11

‘남자’와 ‘총각’은 [+생물, +동물, +인간, +남성]의 공통된 의미 자질을 가지되, ‘총각’이 ‘남자’보다 [-기혼]의 의미 자질을 하나 더 가지므로 ‘남자’가 상의어, ‘총각’이 하의어가 된다.

**오답 피하기** ① ‘남자’가 ‘총각’보다 하나 더 적은 의미 자질을 가진다. ② ‘남자’와 ‘총각’은 상하 관계에 있으므로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 의미 자질들을 공통으로 가지고 있다. ③ ‘남자’가 상의어이므로 ‘총각’보다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의미를 지닌다. ④ ‘남자’가 상의어이므로 의미상 ‘총각’을 포함한다.

## 12

①, ②, ③, ⑤의 ‘손’은 중심 의미가 ‘사람의 팔목 끝에 달린 부분’인 다의어의 여러 의미 중 한 의미로 쓰였으나, ④의 ‘손’은 ‘다른 곳에서 찾아온 사람’의 의미로서 다른 선지의 ‘손’들의 동음이의어에 해당한다.

**오답 피하기** ① ‘사람의 팔목 끝에 달린 부분’의 의미이다. ② ‘어떤 사람의 영향력이나 권력이 미치는 범위’의 의미이다. ③ ‘일손’의 의미이다. ⑤ ‘어떤 일을 하는 데 드는 사람의 힘이나 노력, 기술’의 의미이다.

### [3] 문장의 짜임과 문법 요소

#### 확인문제

본문 97~105쪽

01 ② 02 ② 03 ② 04 ③ 05 주체 06 ⑤ 07 ㉠:  
과거 시제, ㉡: 미래 시제, ㉢: 현재 시제 08 ⑤ 09 먹어 버  
렸다 10 ⑤ 11 도둑이 경찰에게 잡혔다. 12 ④ 13 동  
생이 울었다. 14 ① 15 ㉢ 16 ④ 17 ①

#### 01

[보기]의 문장은 ‘새다’, ‘내리다’, ‘뒤덮다’와 같이 서술어가 세  
개인 겹문장으로, ‘밤이 새도록’이라는 부사절이 ‘(눈이) 내린’  
에 안긴 후 다시 ‘밤이 새도록 내린’이라는 관형절이 전체 문  
장에 안긴 형태의 안은문장이다.

#### 02

안은문장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안긴문장의 성격에 따라 명  
사절, 관형사절, 부사절, 서술절, 인용절을 가진 안은문장으로  
나뉜다.

#### 03

‘네가 좋아할’은 ‘일’이라는 체언(명사)을 수식하는 관형어 자  
리에 쓰였다.

#### 04

직접 인용절을 간접 인용절로 바꿀 때에는 따옴표를 없애고,  
조사 ‘라고’를 ‘고’로, 종결 어미는 해라체로, 대명사도 화자의  
관점에 맞게 바꾸어야 한다. 따라서 조사 ‘라고’를 ‘고’로, 종결  
어미 ‘-어’를 ‘-냐’로, 대명사 ‘네’를 ‘내’로 바꾼다.

#### 05

문장의 주어가 지시하는 대상인 ‘아버지’를 높이기 위해 주격  
조사 ‘이/가’ 대신에 ‘께서’를 썼으며, 서술어 ‘주었다’에 선어  
말 어미 ‘-시-’를 붙였다.

#### 06

‘여쭙다’라는 특수 동사를 사용하여 문장의 부사어가 지시하  
는 대상인 ‘할머니’를 높이고 있다.

#### 07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앞선 것을 과거 시제, 사건시와 발화시가  
일치하는 것을 현재 시제,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나중인 것을  
미래 시제라고 한다. ㉠는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앞섰으므로 과  
거 시제, ㉡는 발화시가 사건시보다 앞섰으므로 미래 시제, ㉢  
는 사건시와 발화시가 일치하므로 현재 시제이다.

#### 08

㉤의 ‘-겠-’은 미래 상황을 나타냄과 동시에 봉사 활동을 하고  
자 하는 화자의 의지를 표현한다.

#### 09

‘-어 가다’라는 진행상을 ‘-어 버리다’라는 완료상으로 바꾸면  
진하가 밥을 먹는 동작이 끝나지 않고 아직 진행되고 있다는  
문장의 의미가 진하가 밥을 먹는 동작이 이미 끝났다는 의미  
로 달라지게 된다.

#### 10

피동 접미사 ‘-이-’, ‘-히-’, ‘-리-’, ‘-기-’는 ‘주다’와 같은 동  
사와는 결합할 수 없다.

#### 11

피동문은 행동의 대상이 주어가 되어야 하므로 행동의 대상인  
‘도둑’을 주어로 한 문장을 만들어야 한다. 능동문이 피동문으  
로 바뀔 때에는 능동문의 목적어가 피동문의 주어로, 능동문의  
주어가 피동문의 부사어로, 능동사가 피동사로 변화한다.

#### 12

사동문은 동사나 형용사의 어간에 사동 접미사 ‘-이-’, ‘-히-’,  
‘-리-’, ‘-기-’, ‘-우-’, ‘-구-’, ‘-추-’를 붙여 만든 사동사를  
이용하여 만들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① 사동문은 ‘-게 하다’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다. ② 사동 접미사  
는 동사나 형용사의 어간과 결합하여 사동사를 만든다. ③ 사동사는 주어의 지  
시 대상이 다른 사람이나 대상으로 하여금 어떤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것을 표현  
하는 문장이다. 주어의 지시 대상이 스스로 행동하는 것을 나타내는 문장은 주  
동문이다. ⑤ 사동사를 이용한 사동문과 ‘-게 하다’를 이용한 사동문에는 시키  
는 행위의 직접성에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사동사는 직접 사동의 의미를, ‘-  
게 하다’는 간접 사동의 의미를 전달한다.

#### 13

사동문을 주동문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사동문의 주어를 없애  
고, 사동문의 목적어를 주동문의 주어로, 사동사를 주동사로  
바꾼다.

#### 14

피동문은 원래 문장이 타동사 서술어를 가진 경우에만 만들  
수 있다.

#### 15

㉠는 의지 부정으로 주체에게 그 행위를 할 의지가 없음을, ㉡

는 능력 부정으로 주체에게 그 행위를 할 능력이 없음을 나타내는 문장이다.

## 16

이미 존재하는 말이나 생각을 옮겨 표현하는 것을 인용 표현이라고 한다.

## 17

㉑는 원래의 문장을 자신의 표현으로 바꿔 옮긴 간접 인용문으로, ㉒와 달리 전달하는 정보의 출처를 밝힐 수 있다.

### 소단원 핵심문제

본문 110~113쪽

- 01 예시 답안 앞뒤 절의 순서를 바꾸면 '전화벨이 울리는데 현관을 나서려고 했다.'가 되어 문장의 의미가 달라지므로 ㉑에 해당하는 문장으로 볼 수 있다. 02 ㉑ 03 ㉒ 04 ㉑ 05 ㉑ 06 ㉑ 07 ㉑ 08 ㉑ 09 ㉑ 10 ㉑ 11 ㉒ 12 ㉑ 13 ㉒ 14 ㉑ 15 ㉒

## 01

대등적으로 연결된 이어진문장은 앞뒤 절의 순서를 바꾸어도 의미에 큰 변화가 없는 반면 종속적으로 연결된 이어진문장은 앞뒤 절의 관계가 대등하지 않기 때문에 순서를 바꾸면 의미가 달라진다고 하였다.

## 02

원인의 '-아/-어서', '-(으)니까' 등의 연결 어미는 종속적 연결에 사용되는 연결 어미이다.

## 03

[보기]의 문장은 '종규는 밥을 먹었다.'와 '나는 강아지와 산책을 했다.'가 '나열'의 '-고'라는 연결 어미로 연결된 대등적으로 연결된 이어진문장이다.

**오답 피하기** ①, ③ 앞뒤 절의 주어는 각각 '종규'와 '나는'이고, 서술어는 각각 '먹었다'와 '했다'이므로 주어와 서술어가 두 개씩인 겹문장이다. ②, ⑤ 앞뒤 절의 순서를 바꾸면 '나는 강아지와 산책을 했고 종규는 밥을 먹었다.'가 되므로 문장의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대등적으로 연결된 이어진문장임을 알 수 있다.

## 04

⑤는 '눈이 오는 날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와 '눈이 오는 날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문장이 '대조'의 연결 어미 '-지만'으로 연결된 문장으로, 이때 '눈이 오는 날을 싫어하는 사

람도 있지만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와 같이 앞뒤 절의 순서를 바꾸어도 의미에 큰 변화가 없으므로 대등적으로 연결된 이어진문장으로 볼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① 조건의 '-(으)면'이 사용되었으며, 앞뒤 절의 순서를 바꾸면 '꽃이 피면 봄이 온다.'와 같이 의미가 바뀌므로 종속적으로 연결된 이어진문장이다. ② '원인'의 '-어서'가 사용되었으며, 앞뒤 절의 순서를 바꾸면 '학원에 가지 못해서 비가 너무 많이 내렸다.'와 같이 의미가 바뀌므로 종속적으로 연결된 이어진문장이다. ③ 의도나 목적의 '-(으)려고'가 사용되었으며, 앞뒤 절의 순서를 바꾸면 '지원이 돈을 모으고 있으려고 장난감을 샀다.'와 같이 의미가 바뀌므로 종속적으로 연결된 이어진문장이다. ④ 양보의 '-더라도'가 사용되었으며, 앞뒤 절의 순서를 바꾸면 '사과나무를 심더라도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올 것이다.'와 같이 의미가 바뀌므로 종속적으로 연결된 이어진문장이다.

## 05

㉒에서 '굵기'의 '-기'는 명사형 전성 어미가 아니라 명사화 접미사로, 어근과 결합하여 명사를 만드는 접미사이다. ㉑은 '굵기가 일정하다.'라는 문장에 부사형 전성 어미 '-게'를 붙여 만든 부사절을 가진 안은문장이다.

**오답 피하기** ① ㉑은 '기억력이 좋다'라는 서술절을 가진 안은문장이다. ② ㉒은 '나무가 잘 자라도록'이라는 부사절을 가진 안은문장이다. ③ ㉑은 '원시인이 사용하였던'이라는 관형사절을 가진 안은문장이다. ㉒은 '그가 노력하고 있음'이라는 명사절을 가진 안은문장이다.

## 06

'그녀가 이미 떠났음'은 체언이 주로 사용되는 목적어 자리에 쓰이고 있는데, 이는 '그녀가 이미 떠났다.'라는 문장에 명사형 전성 어미 '-음'을 붙여서 명사처럼 사용한 것이다.

**오답 피하기** ① '마음씨가 착하다'라는 서술절을 가진 안은문장이다. ② '내가 제일 좋아하는'이라는 관형사절을 가진 안은문장이다. ④ '대학을 졸업하던'이라는 관형사절을 가진 안은문장이다. ⑤ '이가 시리게'라는 부사절을 안은문장이다.

## 07

㉒의 '너에게 주는'은 '너에게 (선물을) 주다'라는 문장에 관형사형 전성 어미 '-는'을, ㉑의 '혜미가 여기로 온다는'은 '혜미가 여기로 오다'라는 문장에 관형사형 전성 어미 '-는'을, ㉒의 '아까 먹은'은 '아까 (아이스크림을) 먹었다.'라는 문장에 관형사형 전성 어미 '-은'을 붙여서 관형사처럼 사용한 것이므로 ㉒, ㉑, ㉒은 관형사절을 가진 안은문장에 해당한다.

**오답 피하기** ㉑은 '피부가 매우 하얗다'라는 서술절을 가진 안은문장이고, ㉒은 '마음이 넓으시다'라는 서술절을 가진 안은문장이다.

## 08

부사절을 가진 안은문장에는 부사형 전성 어미 '-게', '-도록'



등이 사용되거나 서술절을 가진 안은문장에는 전성 어미가 따로 없다.

**오답 피하기** ② 부사절을 가진 안은문장, 서술절을 가진 안은문장은 모두 겹문장이므로 주어와 서술어를 둘 이상씩 지니고 있다. ③ 둘 이상의 문장이 연결 어미로 연결되어 있는 것은 이어진문장의 특징이나 부사절을 가진 안은문장과 서술절을 가진 안은문장은 모두 안은문장이다. ④ 부사절을 가진 안은문장과 서술절을 가진 안은문장 모두 안은문장이므로 그 안에 안긴문장이 들어가 있다. ⑤ 부사절을 가진 안은문장은 용언을 수식하는 역할을 하는 절을 가진 문장이며, 서술절을 가진 안은문장은 주어의 상태나 행위를 서술하는 서술어 역할을 하는 절을 가진 문장이다.

## 09

‘높임 표현의 개념’은 (가)에, ‘주체 높임법의 실현 방법’은 (나)에, ‘객체 높임법의 실현 방법’은 (다)에, ‘격식체와 비격식체의 특징’은 (라)에 제시되어 있으나, ‘조사와 선어말 어미의 개념’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 10

‘교수님께서는 연세가 많으시다.’에서 주어의 지시 대상은 ‘연세’이지만, 그것이 ‘교수님의 연세’이기 때문에 서술어에 ‘-(으)시-’를 사용하여 ‘교수님’을 간접적으로 높였다.

**오답 피하기** ② 주격 조사 ‘께서’와 높임의 의미를 지닌 명사 ‘진지’, 동사 ‘잡수시다’를 사용하여 주어의 지시 대상인 ‘할아버지’를 직접 높였다. ③ 주격 조사 ‘께서’와 선어말 어미 ‘-(으)시-’를 사용하여 주어의 지시 대상인 ‘어머니’를 직접 높였다. ④ 주격 조사 ‘께서’와 선어말 어미 ‘-(으)시-’를 사용하여 주어의 지시 대상인 ‘선생님’을 직접 높였다. ⑤ 부사격 조사 ‘께’와 높임의 의미를 지닌 동사인 ‘드리다’를 사용하여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인 ‘부장님’을 높였다.

## 11

‘여쭙 것이 있다.’에서 주어는 ‘여쭙 것’이므로 높임 표현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있다며’는 고치지 않아야 한다.

**오답 피하기** ① 동사 ‘여쭙다’를 사용하여 부사어인 ‘선생님’을 높이고 있다. ② 부사격 조사 ‘께’를 사용하여 부사어인 ‘선생님’을 높이고 있다. ③ 부사격 조사 ‘께’와 높임의 의미를 지닌 동사 ‘여쭙다’를 사용하여 문장의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인 ‘선생님’을 높이고 있다. ⑤ 서술어 ‘가셨다’는 주어 ‘민지가’의 행위를 서술하고 있는 것인데 ‘민지’는 높임의 대상이 아니므로 서술어에 ‘-(으)시-’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 12

〈상황 2〉는 학급 회의라는 공적인 자리이므로 〈상황 1〉과 달리 채민이와 소정이가 격식체인 하십시오체를 사용하고 있다.

**오답 피하기** ① 〈상황 2〉에서 소정이와 채민이는 하십시오체를 사용하고 있다. ② 〈상황 1〉에서 채민이와 소정이는 해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두루 다툼의 종결 어미이므로 청자를 높이고 있다고 볼 수 없다. ④ 〈상황 1〉에서 채민이와 소정이는 친밀한 사이이므로 해체를 사용하고 있다. ⑤ 〈상황 1〉과

〈상황 2〉에서 채민이와 소정이의 상대 높임 표현이 달라진 것은 자리의 성격이 사적인 것에서 공적인 것으로 변화했기 때문이다.

## 13

‘엄마가 아끼는 컵을 깨뜨리다니 난 이제 혼났다.’에서 선어말 어미 ‘-았-’은 일반적인 과거 시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하는 시점에서 볼 때 미래의 사건이나 일을 이미 정해진 사실인 양 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오답 피하기** ① 과거 시제 ‘-었-’을 사용하여 지은이가 나에게 생일 선물을 주었던 과거 상황을 표현하고 있다. ③ 과거 시제 ‘-었었-’을 사용하여 작년에는 저수지에 물고기가 적었으나 현재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다. ④ 과거 시제 ‘-더-’를 사용하여 화자가 아침에 까치가 우는 것을 직접 들은 경험을 나타내고 있다. ⑤ 과거 시제 ‘-더-’를 사용하여 화자가 그가 밥 두 그릇을 먹는 것을 직접 본 과거 경험을 나타내고 있다.

## 14

‘행복하다’는 형용사이므로 현재를 표시하는 표현 없이 기본형 자체로 현재 상황을 나타낸다.

**오답 피하기** ① ‘읽다’라는 동사에 선어말 어미 ‘-는-’이 사용되어 현재 시제를 표현하고 있으므로 (1)의 예에 해당한다. ② ‘흐르다’라는 동사에 선어말 어미 ‘-ㄴ-’이 사용되어 현재 시제를 표현하고 있으므로 (1)의 예에 해당한다. ③ ‘끓다’라는 동사에 선어말 어미 ‘-는-’이 사용되어 현재 시제를 표현하고 있으므로 (1)의 예에 해당한다. ④ ‘뛰다’라는 동사에 선어말 어미 ‘-는-’이 사용되어 현재 시제를 표현하고 있으므로 (1)의 예에 해당한다.

## 15

‘교장 선생님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에서 선어말 어미 ‘-겠-’은 미래 상황을 나타낼 뿐 화자의 추측을 표현하는 것은 아니다.

**오답 피하기** ① 선어말 어미 ‘-겠-’을 사용하여 라면이 익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추측의 의미를 표현하고 있다. ② 5분 후에 수업이 끝나는 미래의 상황에 현재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ㄴ-’을 사용하여 수업이 끝나는 것이 이미 계획되고 정해진 사실임을 강조하고 있다. ③ 선어말 어미 ‘-겠-’을 사용하여 화자가 고향 마을에 눈이 오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한 추측을 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⑤ ‘-ㄹ-’을 사용하여 운동을 더욱 열심히 하겠다는 화자의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 [4] 담화의 개념과 요건

확인문제

본문 115~118쪽

01 ② 02 ② 03 ③ 04 통일성 05 ⑤ 06 ③ 07 ①

## 01

맥락에 따라 어떤 문장이 발화되면 문장 본연의 의미가 아닌

다른 의미로 해석되기도 하지만, 모든 문장이 그러한 것은 아니다.

**오답 피하기** ① 발화의 궁극적 의미는 구체적 맥락을 고려해야 파악될 수 있다. ③ 담화 맥락에 따라 “다음 주 시험 기간이잖아.”가 거절의 의미를 지닐 수도 있고, 명령의 의미를 지닐 수도 있다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④ 담화는 둘 이상의 발화가 연속되어 이루어지는 유기적인 연결체이다. ⑤ 예문으로 제시된 ‘동희’와 ‘어머니’의 대화의 경우 맥락을 고려하지 않으면 의미 해석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 02

대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화자와 청자가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협력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화자와 청자의 생각이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오답 피하기** ① (마)에 ‘명령’은 자칫 청자를 불쾌하게 만들 수 있다는 내용이 드러나 있다. ③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나?”와 같은 의문문이 분노의 감정을 표현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④ (마)에는 문장이 나타내는 표면적 의미가 실제 상황에서의 발화 의미와 일치하지 않는 사례들을 소개하고 있다. ⑤ 내용적 측면에서 담화가 갖추어야 할 요건에 해당한다.

## 03

③은 오늘 점심 반찬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던지는 의문문으로서 표면적 의미와 실제 상황에서의 발화 의미가 모두 같다.

**오답 피하기** ① 표면적으로는 의문문이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도와 달라고 요청하는 의미로 쓰인다. ② 표면적으로는 의문문이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문을 닫으라는 명령의 의미를 전달한다. ④ 표면적으로는 의문문이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분노의 감정을 표현하는 데 쓰인다. ⑤ 표면적으로는 의문문이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불만을 표현하는 데 쓰이기도 한다.

## 04

‘정민’의 말은 너무 다양한 내용을 다루고 있고 주제가 일관되지 않아 통일성 있는 담화라고 보기 어렵다.

## 05

담화 주제의 일관성은 담화의 응집성이 아닌 통일성과 관련된 내용이다.

**오답 피하기** ① 지시 표현은 앞선 발화의 내용을 가리킴으로써 발화를 유기적으로 연결시켜 주므로 응집성이 높아지게 하는 것이 맞다. ② 지시 표현은 담화 안에 이미 등장한 언어 표현을 대신하는 기능을 함으로써 동일한 표현의 반복을 피하게 하는 것이다. ③ 지시 표현은 별개로 느껴지는 두 문장의 관계가 명시적으로 드러나도록 한다. ④ 담화가 형식적으로 갖추어야 할 요건은 발화들이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며, 이렇듯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특성을 응집성이라 한다고 하였다.

## 06

접속 표현은 순접, 역접, 인과 등의 접속 부사를 통해 발화 간

의 연결 관계를 분명히 보여 주는 역할을 한다.

**오답 피하기** ① 접속 표현은 발화 간의 연결 관계를 보여 주는 것이지 발화의 의미 자체를 바꾸는 것은 아니다. ② 앞선 발화의 내용을 가리키는 것은 지시 표현이다. ④ 발화된 내용의 통일성은 일관된 주제를 통해 내용이 구성될 때 생기는 것이지 접속 표현에 의해 생기는 특성은 아니다. ⑤ 접속 표현이 있으면 두 문장의 관계가 잘 드러나므로 필요한 부분에는 써 주는 것이 좋지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07

㉞는 앞뒤 문장이 서로 맞서지 않고 순조롭게 이어지고 있으므로 순접, ㉜는 앞 문장이 뒤 문장의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인과, ㉝는 앞 문장과 상반되는 사태가 벌어졌음을 보여 주므로 역접에 해당한다.

### 소단원 핵심문제

본문 122~125쪽

01 ① 02 ④ 03 ② 04 예시 답안 “창문 좀 닫아 주겠니?”, “창문 좀 닫아 주면 좋겠어.” 05 ② 06 ④ 07 ⑤ 08 ① 09 ① 10 예시 답안 ‘거기’가 가리키는 것은 앞 문장의 ‘작은 찻집’이다. 이러한 지시 표현이 앞 문장의 내용을 대신하면서 내용이 이어짐으로써 담화의 응집성이 높아진다. 11 ③ 12 예시 답안 저→이 / 그리고

## 01

㉞는 산책 다녀온다는 할머니의 말에 오늘 날씨를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상황에 대한 고려가 없이 읽으면 제대로 된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㉞는 지금이 몇 시냐는 물음에 시간을 말하고 있으므로 드러난 문장만으로 보면 의사소통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인다.

**오답 피하기** ② ㉞는 화자와 청자가 공유하는 구체적 시간, ㉝는 음식을 차려 놓은 구체적 공간이 담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③ “나가지 마세요.”와 같이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명령문 대신 날씨가 춥다는 정보를 전달하는 평서문을 사용하고 있다. ④ 민희는 약속 시간에 늦은 웅비를 질책하고자 시간을 묻는 것인데, 웅비는 발화의 표면적 의미만 파악하여 시간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민희가 원하는 대답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 ⑤ 많은 음식을 차려 놓고도 인사치레로 차린 것이 없다고 하는 한국 문화의 발화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는 외국인 친구의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므로 적절한 이해로 볼 수 있다.

## 02

청자의 불쾌함을 피하기 위해 간접적인 명령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명령을 할 때 반드시 간접적인 명령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오답 피하기** ① “식사하셨습니까?”는 ‘끼니’를 중시하는 우리의 사회·문화적 맥락에 비추어 인사말로 해석되는 것이므로 다른 문화권에서는 인사말로 쓰인

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을 수 있다. ② 화자뿐 아니라 청자도 담화의 구성 요소이며, 구체적 상황에서 실현된 것을 발화라고 볼 때 맞는 내용이다. ③ 문장이 나타내는 표면적 의미는 특별한 맥락이 없을 때는 표면적 의미 그대로 발화 의미가 될 수 있고, 어떤 맥락이 주어지게 되면 표면적 의미와는 다른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 ⑤ 표면적 의미는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므로 특정 상황이 없는 경우엔 표면적 의미로 전달된다.

### 03

자전거가 없다는 동희의 말에 ‘농구’ 이야기를 하는 것은 겉보기에는 이상해 보이지만, 형이 평소 농구하러 갈 때 자전거를 가져간다는 것을 동희가 알 것이라 생각하고 대답한 것이라면 정상적으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① 자전거를 내어 줄 수 없다는 의미의 거절이 아니라 자전거가 없는 이유를 밝히는 발화이다. ③ 구체적 시간이나 공간적 상황보다는 자전거의 행방과 관련한 배경지식이 필요한 담화이다. ④ ‘동희’가 느낄 불쾌함을 최소화하는 표면은 드러나지 않는다. ⑤ 언어적 맥락을 파악할 수 있는 앞뒤 언어 표현이 없을뿐더러, 그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소통하고 있지도 않다.

### 04

공손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명령문을 의문문이나 평서형으로 다듬는 것이 바람직하다.

### 05

①는 점심을 먹으러 가자는 말에 숙제해야 한다고 말함으로써 거절의 의미를, ③는 숙제 마감 날짜 바뀌었다는 말을 의심하는 윤정이에게 날짜 변경 안내문을 보라는 명령의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 문장이다.

**오답 피하기** ④는 같이 점심을 먹으러 가자는 것이므로 제안의 의미로, ③는 숙제 마감 날짜가 바뀌었으니 지금 문학 숙제를 하지 않고 밥 먹으러 가자는 청유의 의미로, ⑤는 해훈이의 말을 믿지 못하는 의심의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 06

지시 표현은 두 문장을 자연스럽게 연결시키면서 관계를 파악하기 쉽게 해 주는 것이지, 문장이 연결될 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지시 표현이 사용되지 않는 경우 두 문장의 관계를 파악하기 어렵기는 하지만, 두 문장의 관계를 아예 짐작할 수 없거나 전혀 모르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④의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피하기** ① (가)는 의사소통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요건 중 내용적 측면에서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 통일성을 언급하고 있다. ② (나)는 발화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특성인 응집성을 위한 형식적 장치로 지시 표현과 접속 표현을 언급하고 있다. ③ (다)는 이미 등장한 언어 표현을 대신하는 지시 표현의 종류를 설명하고 있다. ⑤ (마)는 접속 표현이 발화 간의 연결 관계를 분명하게 보여 줌을 언급하고 있다.

### 07

④의 ‘그래서’는 앞뒤 문장을 인과 관계로 이어 주며, ④의 ‘하지만’은 앞뒤 문장을 역접의 관계로 이어 주는 접속 부사이다.

**오답 피하기** ① 지시 표현이 없기는 하지만, ‘그’가 서로 다른 사람으로 읽히는 않는다. ② 지시 표현 ‘그런’은 ‘그’가 아니라 ‘항상 타인을 배려한다’라는 내용을 가리킨다. ③ ④는 어떤 특정한 의미와 유사한 것이 아니며, 맥락이 주어지지 않으면 ④~⑥ 중 어떤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④ ⑥에는 접속 표현이 사용되지 않아 ④~⑥의 의미를 모두 지닐 수 있으므로, 전혀 다른 의미를 전달한다고 볼 수는 없다.

### 08

정민은 오늘 본 영화를 이야기하는 상황에서 지난번 본 영화와 영화관 시설에 대해 언급하더니 다시 오늘 본 영화의 주인공 공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이처럼 대화의 주제가 계속 바뀌고 있어서 담화의 통일성이 부족해지고 있다.

**오답 피하기** ② 윤희는 주인공과 관련하여 일관성 있게 말하고 있다. ③ 윤희는 자신의 생각을 정민에게 강요하고 있지 않다. ④ 정민이 일관성 없이 말하는 것으로 보아 담화의 공통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⑤ 정민은 오늘 본 영화가 괜찮았다는 평을 하는 한편 윤희의 말에 공감하며 주인공이 고집을 부린다고도 하고 있으므로, 윤희의 반응에 일관되게 반박한다고 보기 어렵다.

### 09

①은 자전거 교통사고 발생이 늘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에 이어, 이와 관련된 내용인 자전거 교통사고 발생 건수 비율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역접의 접속 표현인 ‘하지만’이 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오답 피하기** ② 2006년에는 3.7퍼센트였던 자전거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2015년에 들어서 증가했다는 내용으로 같은 층위의 내용이 역접 관계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인과적 관계를 드러내는 ‘그래서’보다는 ‘그러나’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앞에 이미 등장한 표현인 ‘자전거 통행 방법’을 ‘이’라는 표현을 통해 대신함으로써 연결이 자연스러워질 수 있다. ④ ⑥의 내용은 자전거 통행 방법을 알고 지켜야 한다는 전체적 내용의 흐름에서 벗어나므로 통일성을 해치고 있다. ⑤ 우리나라의 도로 교통법에서는 자전거를 ‘차’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전거 이용자 역시 차의 통행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문장이다. 즉, 인과 관계에 있으므로 ‘따라서’가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 10

‘거기’라는 지시 표현은 앞 문장에 나온 장소를 반복하여 언급하는 대신 사용하는 표현으로서 이러한 지시 표현을 통해 담화의 응집성이 높아진다.

### 11

딸이 말한 ‘그 사람’은 아빠가 말한 ‘준복이’를 지시하는 것으로서 대화 상대방의 발화 내용을 지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① 지시 형용사가 아닌 지시 관형사 '그'가 사용되었다. ② '그 사람'은 '준복'을, '그것'은 '돈'을 가리킨다. ④ 앞 문장과 뒤 문장의 '그'는 같은 대상을 가리키고 있다. ⑤ 앞선 문장의 '타인을 배려'하는 심성을 '그런'이라는 지시 표현으로 가리키면서 내용이 이어지고 있을 뿐 역접의 관계라고 볼 수 없다.

## 12

발밑에 내려놓은 짐을 가리키는 표현이므로 화자에게 가까운 대상을 가리키는 지시 표현 '이'를 사용하는 것이 맞다. 또한 빈칸에 들어갈 접속 표현은 앞 문장의 뜻을 긍정하며 이어지고 있으므로 '그리고'를 쓴다.

### 중단원 핵심 문제

본문 126~131쪽

- 01 ② 02 ③ 03 예시 답안 '삶'은 자음군 단순화에 의한 탈락에 의해 [삼]으로 발음되고, '맨입'은 'ㄴ' 첨가에 의해 [맨닙]으로 발음되며, '칼날'은 유음화에 의한 교체에 의해 [칼랄]로 발음된다. '절대'는 된소리되기에 의한 교체가 일어나 [절때]로 발음되고, '놓을'은 'ㅎ' 탈락에 의해 [노을]로 발음되며, '없는'은 자음군 단순화에 의한 탈락에 의해 [업는]이 되었다가 다시 비음화에 의한 교체에 의해 [업는]으로 발음된다. 04 ⑤ 05 ② 06 ② 07 ② 08 예시 답안 '건강하세요', '행복하자' / 형용사는 명령형이나 청유형으로 활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09 ④ 10 ④ 11 ⑤ 12 ⑤ 13 ② 14 ③ 15 ④ 16 ⑤ 17 ⑤ 18 ④ 19 ④ 20 ④ 21 ④ 22 ② 23 ② 24 ④ 25 ② 26 ⑤ 27 ⑤ 28 ⑤ 29 ③

## 01

단모음은 발음할 때 입술의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변하지 않는 모음이다. 변하는 모음은 이중 모음이다.

## 02

조음 위치가 여린입천장이면서 조음 방법이 파열음이자 된소리인 자음은 'ㄱ'이고, 혀의 높이가 높은 고모음이면서 혀의 최고점의 위치가 뒤쪽인 후설 모음이면서 입술 모양이 둥근 원순 모음은 '우'이며, 조음 위치가 입술이면서 조음 방법이 비음인 자음은 'ㅁ'이다. 이 세 자음을 각각 초성, 중성, 종성에 배치하여 만든 단어는 '꿈'이다.

## 03

'삶'은 탈락 중 자음군 단순화, '맨입'은 첨가 중 'ㄴ' 첨가, '칼날'은 교체 중 유음화, '절대'는 교체 중 된소리되기(한자어 'ㄹ' 뒤 예사소리가 된소리가 되는 경우), '놓을'은 탈락 중 'ㅎ'

탈락, '없는'은 탈락 중 자음군 단순화와 교체 중 비음화가 같이 일어난 예이다.

## 04

'닭'은 자음군 단순화에 의한 탈락, '씨'는 'ㄷ' 탈락, '만드는'은 'ㄹ' 탈락이 일어난다.

**오답 피하기** '성급한'은 거센소리되기에 의한 축약, '붙이고서'는 구개음화에 의한 교체, '멋지지'는 음절의 끝소리 현상과 된소리되기에 의한 교체가 일어난다.

## 05

'덮고'는 음절의 끝소리 현상에 의해 [덥고]가 되었다가 다시 된소리되기에 의해 [덥꼬]로 발음된다.

## 06

'밥을 세 공기나 먹었다.'에서 '세'는 '공기'라는 명사를 수식해주고 있으므로 수사가 아닌 관형사이다. '3'의 수량을 나타내는 양수사는 '셋이' 같이 학교에 갔다.'처럼 '셋'의 형태로 나타난다.

## 07

'걷다'는 '걷는', '따라'는 '따르는'과 같이 '-는'과 결합할 수 있으며, '지는'은 '-는'과 결합한 상태이므로 동사임을 알 수 있다.

**오답 피하기** '길게'와 '뚜렷했다'는 '길는', '뚜렷하는'과 같이 '-는'과 결합이 불가능하므로 형용사임을 알 수 있다.

## 08

지문에서 형용사는 동사와 달리 명령형이나 청유형으로 활용할 수 없다고 하였다. '건강하다'는 '건강한다'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형용사이므로 '건강하세요'와 같이 명령형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행복하다' 역시 '행복한다'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형용사이므로 '행복하자'와 같이 청유형으로 활용하지 못한다. 각각 '건강하게 지내세요'와 '행복하게 지내자' 등으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

## 09

조사 중 서술격 조사 '이다'는 '이고, 이며'와 같이 활용을 한다는 점에서 가변어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10

㉞는 체언 뒤에서 앞말과 비슷한 정도나 한도임을 나타내는 조사로 쓰인 것이므로 앞말에 붙여 써야 한다.



# 11

제시된 문장에는 감탄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독립언은 확인할 수 없다.

**오답 피하기** ① '경치'는 명사, '너희'는 대명사, '둘'은 수사로서 체언에 속한다. ② '멋진'은 형용사, '보고'는 동사, '싫다'는 형용사로서 용언에 속한다. ③ '저'는 관형사, '함께'는 부사로서 수식언에 속한다. ④ '를', '과'는 조사로서 관계언에 속한다.

# 12

'푸르-'와 같은 어간은 자립성이 없으므로 의존 형태소이나, 의미의 실질성을 기준으로 할 때에는 어휘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으므로 실질 형태소에 속한다.

# 13

형태소 두 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단어는 복합어이며, 합성어는 어근으로만 이루어진 복합어를 가리킨다.

# 14

'눈물'은 명사와 명사가 결합된 것이므로 우리말의 일반적인 단어 배열 방식과 동일한 통사적 합성어가 맞으나, '덮밥'은 어간에 명사가 바로 결합된 것이므로 우리말의 일반적인 단어 배열 방식과 다른 비통사적 합성어에 해당한다.

**오답 피하기** ① '바다'만 단어이다. ② '개살구'의 '개-'는 어근의 품사를 바꾸지는 못했으므로 한정적 접사이자 어근의 앞에 온 접두사이다. 한편 '먹이'의 '-이'는 어근의 품사를 명사로 바꾸어 주었으므로 지배적 접사이자 어근의 뒤에 온 접미사이다. ④ '칼제비'는 '칼국수'의 앞부분과 '수제비'의 뒷부분을 따서 결합한 축약어이다. ⑤ '껍질깍개'는 '껍질'이라는 어근에 '깍개'를 결합시킨 합성어인데, 이때의 '깍개'는 '깍-'이라는 어근에 '-개'라는 접사를 붙인 파생어이다.

# 15

④는 유의 관계, 나머지는 모두 반의 관계이다.

# 16

㉠에는 '상하 관계', ㉡에는 '반의 관계', ㉢에는 '유의 관계'가 들어간다. 유의 관계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도 언제나 서로 대치하여 쓸 수 있는 경우와 문맥에 따라 대치하여 쓸 수 없는 경우로 나뉜다.

# 17

'사람의 팔목 끝에 달린 부분'이라는 뜻의 '손'은 '다른 곳에서 찾아온 사람'이라는 뜻의 '손'과 의미적 연관성이 없으므로 소리는 같으나 뜻이 다른 단어인 동음이의어로 볼 수 있다.

# 18

㉠이 서술절을 가진 안은문장인 것은 맞으나, 서술절에는 전성

어미가 따로 없다.

# 19

④에서는 주어의 지시 대상인 '아버지'를 높이기 위해 주격 조사 '께서'와 전어말 어미 '-시-'를 사용하였고(주체 높임법), 목적어의 지시 대상인 '할머니'를 높이기 위해 '모시다'라는 어휘를 사용하였으며(객체 높임법), 청자를 높이기 위해 '-습니다'라는 하십시오체를 사용하고 있다(상대 높임법).

**오답 피하기** ① 상대 높임법만 쓰였다. ②, ③ 주체 높임법만 쓰였다. ⑤ 객체 높임법만 쓰였다.

# 20

④는 미래의 상황에 현재를 나타내는 시간 표현 '-ㄴ-'을 사용하여 이미 계획되고 정해진 사실임을 강조한 것으로서 미래 시제를 드러낸다. 나머지는 모두 현재 시제이다.

# 21

원래의 문장 형식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옮기는 것을 직접 인용이라고 하고, 원래의 문장을 자신의 표현으로 바꿔 옮기는 것을 간접 인용이라고 한다.

# 22

'편하다'는 '몸이나 마음이 거북하거나 괴롭지 아니하여 좋다.'라는 의미를 지닌 형용사이므로 '편하지 않았다.'라는 부정 표현은 의지 부정의 의미를 지니고 있지 않다. 또한 서술어 '뜨다'의 주체인 '달'은 의지를 가질 수 없는 대상이므로 '달이 뜨지 않았다.'는 중립적인 부정을 나타낸다.

**오답 피하기** ① ㉠의 '-지 않다'는 '하다'라는 동사에 사용되었으므로 의지 부정의 의미를 더하고 있으며, ㉡는 의지를 가질 수 없는 대상인 '그릇'이 주어 자리에 왔으므로 중립적인 부정을 나타낸다. ③ ㉢의 '-지 않다'는 '가깝다'라는 형용사에 사용되었으므로 의지 부정의 의미를 더하지 않으며, ㉣의 '-지 않다'는 '가다'라는 동사에 사용되었으므로 의지 부정의 의미를 더한다. ④ ㉤의 '-지 않다'는 '크다'라는 형용사, ㉥의 '-지 않다'는 '신선하다'라는 형용사에 사용되어 의지 부정의 의미를 더하지 않는다. ⑤ ㉦의 '-지 않다'는 '가파르다'라는 형용사에 사용되었으므로 의지 부정의 의미를 더하지 않으며, ㉧의 '-지 않다'는 '먹다'라는 동사에 사용되었으므로 의지 부정의 의미를 더하고 있다.

# 23

원래의 문장을 자신의 표현으로 바꿔 옮기는 간접 인용으로 밑줄 친 부분을 표현할 경우, 어제 지민이가 '내일'로 표현했던 시간을 현재 사회의 입장에서 '오늘'로 바꿔야 하며 종결 어미를 해라체인 '가자'로 바꾸어야 한다. 또한 간접 인용에서는 조사 '고'를 사용하며, 따옴표는 사용하지 않는다.



24

㉓의 ‘열려져’는 ‘열--+리--+어지다’로 이루어진 것으로 이중 사동이 아닌 이중 피동의 예로서 고쳐 써야 한다.

25

㉔는 쏘는 행동의 대상인 ‘나’를 주어로 하고 있으므로 피동문, ㉕는 모는 행동의 대상인 ‘도둑’을 주어로 하고 있으므로 피동문, ㉖는 생략된 주어가 불씨로 하여금 살아나게 만드는 것을 표현한 문장이므로 사동문, ㉗는 가르는 행동의 대상인 ‘오늘 경기의 승패’를 주어로 하고 있으므로 피동문, ㉘는 생략된 주어가 종이비행기로 하여금 날게 만드는 것을 표현한 문장이므로 사동문이다.

26

‘배고픈데 매점 가자.’라는 발화를 한 시간이 어제와 오늘로 서로 다를지라도 그것이 전달하고 있는 의미는 동일하다. 시간적, 공간적 상황이 다르다고 해서 발화의 의미가 반드시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27

㉙는 평서문을 사용하여 친구가 준 선물이 자신이 갖고 싶었던 것이라는 정보를 전달하고 있으므로 표면적 의미와 발화 의미가 일치하고 있다.

**오답 피하기** ① 문장이 나타내는 표면적 의미는 지금 시간을 물어보는 것이지만 발화 의미는 아들이 집에 늦게 들어온 일에 대해 질책하는 것이다. ② 문장이 나타내는 표면적 의미는 상대의 행위에 대한 칭찬이지만 발화 의미는 시험 기간임에도 공부를 하지 않고 게임을 하는 동생을 질책하는 것이다. ③ 문장이 나타내는 표면적 의미는 조용히 하자며 청유하는 것이지만 발화 의미는 조용히 하라고 명령하는 것이다. ④ 문장이 나타내는 표면적 의미는 담당 교사를 맡아 줄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이지만 발화 의미는 담당 교사를 맡아 주기를 요청하는 것이다.

28

㉚는 의문문을 사용하여 간접적으로 소리를 줄여 달라는 의미를 표현함으로써 공손성을 높였다.

**오답 피하기** ① 의문문을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공손성을 높인 표현으로 보기는 어렵다. ②, ③ 평서문을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공손성을 높인 표현으로 보기는 어렵다. ④ 평서문과 의문문을 사용하였으나 공손성을 높인 표현으로 보기는 어렵다.

29

㉛의 앞뒤 문장은 역접 관계를 이루고 있으므로 역접 관계 접속어가 들어가야 하고, ㉜은 바로 앞에 제시된 ‘예외적으로 보도 주행을 할 수 있습니다.’를 대신하는 지시 표현이다.

## 2 국어 자료의 탐구와 활용

### [1] 국어의 변천

확인 문제

본문 135~138쪽

01 ④ 02 ⑤ 03 ③ 04 어엿브다 05 ③ 06 ④

01

이 시기에는 우리말을 표기할 고유의 문자가 없었기 때문에 한자를 빌려 쓰되 우리말식으로 바꿔 쓰는 차자 표기를 사용했었다.

**오답 피하기** ① 차자(借字) 표기는 우리말이 없어서 빌려 온 글자이므로 우리 고유의 문자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② 차자(借字) 표기는 한자 표기를 우리말에 맞게 바꾸어서 사용하는 것이다. ③ 우리말 표기가 존재하지 않은 것은 맞지만 우리말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우리말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 한자를 빌려 썼던 것이다. ⑤ 이두, 구결, 향찰은 한자를 빌려서 쓴 것이지만 한자의 표기 원리까지 빌려 쓴 것은 아니다.

02

㉑의 향찰은 어휘적 의미를 지닌 요소는 한자의 뜻을, 문법적 의미를 지닌 요소는 한자의 음을 빌려 적었으므로 뜻만 빌려 표기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피하기** ① ‘貫忽(매홀)’ 혹은 ‘水城(수성)’이라고 썼던 우리나라 지명에 대한 것이므로 고유 명사 표기와 관련된 것이 맞다. ②, ③ 하나의 지명을 음을 빌려 쓴 ‘貫忽(매홀)’, 뜻을 빌려 쓴 ‘水城(수성)’, 이렇게 두 개 이상으로 표기할 수 있었다. ④ ‘夜(밤)’는 어휘적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 한자의 뜻을, ‘伊(-이)’는 문법적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 한자의 음을 빌린 것으로서, 어휘, 문법 형태소를 표기한 것들이다.

03

중세 국어에서 쓰던 어휘가 현재 쓰이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놈’과 같이 여전히 쓰이는 경우도 있다.

**오답 피하기** ① ‘이전의 차자(借字) 표기 자료와 달리’라는 말을 통해 중세 국어 이전에는 차자 표기를 썼음을 알 수 있다. ② ‘한글로 표기된 문헌 자료에는 당시 우리말의 음운, 어휘, 문법의 특징이 잘 반영되어 있다.’를 통해 알 수 있다. ④ ‘어리다’는 현재 ‘나이가 적다’라는 의미로만 쓰이고 있으므로 맞는 내용이다. ⑤ ‘놈’, ‘겨집’의 의미 변화에서 알 수 있다.

04

‘어엿브다’는 ‘불쌍하다’에서 ‘예쁘다’로 의미가 이동한 예이고, 나머지는 모두 의미가 축소된 예이다.

05

‘앙[雌]’과 ‘송[雄]’이 본래 지니고 있던 ‘암컷’, ‘수컷’이라는

의미는 현대 국어에도 여전히 남아 있다.

**오답 피하기** ① ‘남진’은 현재 사용되지 않는 어휘이므로 경쟁의 과정에서 소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는 현대 국어에서는 사용되지 않아 ‘둘’과 같은 단어는 ‘닭’으로 표기가 바뀌었으므로 맞는 내용이다. ④ 중세 국어의 ‘하다’는 ‘많다[多]’라는 의미이므로 현대 국어의 ‘하다’와는 의미가 다르다. ⑤ 현재는 고유어인 ‘조름’과 ‘ㄱ 룼’ 대신 한자어인 ‘천(千)’, ‘강(江)’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맞는 내용이다.

## 06

‘몬쁘다’의 ‘ㅁㅅ’에서 ‘ㅅ’이 발음되었던 까닭에, ‘몹슬’이라고 표기하고 있다.

**오답 피하기** ① 기존에 없던 모음이나 자음이 생겼다는 내용은 없다. ② 기존의 자음이 사라졌음을 드러내는 내용은 없다. ③ ‘몹슬’의 의미가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나쁜’의 의미를 지녔으나, ‘악독하고 고약한’을 뜻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⑤ 근대 국어는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의 과도기적 언어로서 중세 국어의 흔적이 남아 있거나 음운이 조금 변화한 정도의 언어라고 볼 수 있다.

### 소단원 핵심문제

본문 142~143쪽

01 ③ 02 ② 03 ⑤ 04 ① 05 ④ 06 ③ 07 ③

## 01

고유 명사를 표기할 때는 한자의 음을 빌려 적거나 뜻을 빌려 적는 두 가지 방법을 사용했으므로 ③은 맞는 내용이다.

**오답 피하기** ① ‘차자(借字) 표기’는 우리의 고유 문자가 아니라 한자를 빌려 사용한 것이다. ② 같은 단어를 다르게 발음한 것이 아니라 유사한 발음의 표기로 다르게 적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어휘적 의미와 문법적 의미가 무엇이며, 그것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⑤ 향찰 표기는 차차 표기의 일종이므로 차차 표기의 한계를 극복했다고 볼 수 없다.

## 02

같은 대상을 표기하기 위해 ‘買忽(매홀)’을 쓰기도 하고, ‘水城(수성)’을 쓰기도 했던 것으로서, 대상이 같으므로 읽을 때의 발음도 유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매홀’은 ‘음’을, ‘수성’은 뜻을 빌렸기에 표기가 다르게 나타날 뿐이다.

**오답 피하기** ① 같은 말을 가리키므로 같은 음으로 읽었겠지만, ‘忽’의 경우는 의미가 아닌 음만 빌려 온 것이기에 의미가 동일한 것은 아니다. ③ 같은 우리 말을 표기하기 위해 빌려 온 것이기에 발음은 서로 비슷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④ 의미를 제외하고 뜻의 발음만 빌려 온 것이므로 한자어의 뜻도 유지하고 있다는 말은 틀리다. ⑤ 제시된 두 개의 한자어는 발음은 동일했던 것이므로 ‘수성’, ‘매홀’ 두 개의 발음으로 읽었다는 설명은 부적절하다.

## 03

‘入(들-)’, ‘遊行(노니-)’를 표기할 때 어휘적 의미를 지닌 부

분이라서 한자의 뜻을 빌렸다고 하였으므로 용언의 어간은 한자의 뜻을 빌려 표기했다고 해야 적절하다.

**오답 피하기** ① 향찰 표기는 한자를 통해 우리말 문장을 표기한 것이므로 맞는 내용이다. ② 어휘적 의미를 드러내는 경우는 한자의 뜻을 읽고, 문법적 의미를 드러내는 경우는 한자의 음을 읽으므로 한자를 읽는 기준에 차이가 있는 것이다. ③ ‘伊’는 ‘-도록’의 의미를 표현한 것이므로 어미를 적기 위해 쓴 것이다. ④ 문법적 의미 ‘-가’를 표현할 때는 한자의 음만 빌리는 것이므로 한자어 음이 ‘가’인 ‘加(더할 가)’를 써도 된다.

## 04

‘놈’은 ‘사람’을 가리키는 ‘일반칭’에서 ‘비칭(卑稱)’으로 바뀌었으므로 의미의 범위가 축소된 것이다. ‘어린’은 ‘어리석다’는 의미로 쓰이던 것이 ‘나이가 적다’는 의미로 쓰이고 있어 의미의 관련성이 없으므로 의미가 전혀 달라진 것이다. ‘하니라’는 현재 쓰이지 않고, ‘많다’라는 말을 사용하므로 쓰이지 않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답 피하기** ‘어엿쁘다’는 ‘불쌍하다’는 의미에서 ‘예쁘다’는 의미가 되었으므로 의미가 전혀 달라진 예에 해당한다.

## 05

‘쁘들’은 ‘뜯+을’을 이어적기한 것으로서 목적격 조사는 ‘을’이다. 따라서 현대 국어와 조사의 형태가 같다.

**오답 피하기** ① 현대 국어에서는 한자어라 하더라도 한글로만 적는데, (가)의 문헌 자료에서는 한자와 한글을 함께 표기하고 있으므로 맞는 내용이다. ② 현대 국어에서는 띄어쓰기를 사용하지만, (가)의 문헌 자료에는 띄어쓰기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③ ‘전초’는 현대 쓰이지 않고, ‘까닭’이라는 말이 대신 쓰이고 있으므로 맞는 내용이다. ⑤ ‘씩성’의 ‘·’가 사라지고, 이중 모음 ‘ㅟ’가 ‘ㅜ’로 단모음화되는 음운(모음)의 변화를 거쳐 ‘백성’이라는 표기로 자리 잡았다.

## 06

‘글시’나 ‘몹슬’은 현대 국어와 달리 된소리 표기가 없지만, ‘글시쑤’, ‘썰지말며’에는 된소리 표기가 있는 것으로 보아 된소리 발음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피하기** ① ‘스름’은, ‘부엌의’와 같이 끊어적기를 쓰는 표기가 주로 나타나서 어휘의 뜻을 파악하기 수월해졌다. ② 다수의 문장으로 구성되었으나, 마침표나 쉼표가 없어 의미가 끊어지는 부분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아 읽을 때 다소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 ④ ‘나무로’를 ‘남그로’라고 썼던 것으로 보아 ‘나무’를 ‘남’으로 썼음을 알 수 있다. ⑤ ‘서로>서로’, ‘정성>정성’, ‘썰지>썰지’의 변화 양상으로 보아 이중 모음이 단모음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07

㉔은 모음에는 변화가 없고, ‘몹’이 ‘몹’, ‘썰’이 ‘슬’을 거쳐 ‘썰’로 변하는 자음 변화가 있었다. ㉕, ㉖ 모두 ‘조희>종희’, ‘밍골다>민들다’와 같이 모음 ‘·’가 소실되는 과정에서 모음

의 변화가 생기고 있고, ㉠에 없었던 받침 ‘ㅇ’이 생기고 ㉡의 받침 ‘ㅇ’이 ‘ㄴ’으로 ‘ㄱ’이 ‘ㄷ’으로 변하는 것에서 자음의 변화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① ㉠과 ㉡은 ‘ㅇ’이 소실되면서 다른 모음으로 교체되는 변화가 있는 것과 달리 ㉢은 모음에 변화가 없다. ② ㉠과 ㉡에만 해당하는 설명으로서, ㉢엔 소멸된 모음이 없다. ④ ㉠~㉢ 모두 어휘의 형태가 변화되었지만, 의미가 변화한 것은 ㉢뿐이다. ㉢은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나쁜’의 의미를 지녔으나 점차 그 의미가 변하여 ‘악독하고 고약한’을 뜻하게 되었다. ⑤ 특정 음운이 첨가되는 것은 ㉠에만 해당한다. ‘조희[紙] > 종희’의 과정에서 ‘ㅇ’이 첨가되었다.

## [2] 다양한 국어 자료

### 확인문제

본문 145~149쪽

01 ⑤ 02 ⑤ 03 ③ 04 ④ 05 제기됐다 06 ② 07 ⑤ 08 ③

### 01

지역 방언은 산맥이나 하천 등의 지리적 요인에 따라 분화된 말이다.

**오답 피하기** ① 제주 방언이나 동북 방언 모두 표준어와는 멀어진, 지역의 특색을 담은 지역 방언이다. ② 한 국가 내에서도 지리적 차이에 따라 지역 방언이 생기거나, 연령·사회 계층 등에 따라 사회 방언이 생기므로 한 국가 내에서 국어 사용 양상이 동일하다는 것은 부적절하다. ③ 지역적 요인에 따라 나는 것은 지역 방언이고, 연령·사회 계층 등에 따라 나는 것은 사회 방언이며, 이 둘을 합친 것이 방언이다. ④ 지역 방언의 특징은 문학 작품 뿐 아니라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말과 생활 속에 여전히 남아 있다.

### 02

‘삼촌’은 동일한 말임에도 가리키는 대상이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

**오답 피하기** ‘감쥐’와 ‘지술’은 각각 동북 방언과 제주 방언에서 ‘감자’를 가리키는 말이고, ‘할망’과 ‘아메’는 각각 제주 방언과 동북 방언에서 ‘할머니’를 가리키는 말로서, 지역에 따라 동일한 대상을 가리키는 말이 차이를 보이는 예에 해당한다.

### 03

지역 방언은 사적인 자리에서 친밀감을 더하기 위해 사용하기도 하지만, 사적인 자리에서 꼭 써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오답 피하기** ①, ② 화자의 세대 차이·사회 계층에 따라 언어의 차이가 생기는 것을 사회 방언이라고 한다. ④ 화자의 성별에 따라 같은 대상을 ‘오빠’ 혹은 ‘형’이라고 달리 부를 수 있고, 말하는 대상이 어린아이이면 엄마가 ‘더러운 것’을 말할 때 ‘지저’라고 말하는 것에서 알 수 있다. ⑤ 문화적 차이에 따라 언

어의 사용 양상이 달라지기도 하는데, 특히 어휘나 관용 표현에 그러한 특성이 반영된 경우가 많다.

### 04

피동 표현은 사태를 객관적으로 보여 주는 효과를 얻을 수 있으나 기사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사용해야 한다.

**오답 피하기** ① 종이 신문의 경우 기사문이 실리는 면적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간결하게 써야 한다. ② 정보 전달을 하는 기사는 신뢰도가 매우 중요하다. ③ 신뢰도가 높으려면 허위나 과장이 있어서는 안 된다. ⑤ 정보 전달의 글 중에서는 일상적으로 접하는 글이 기사문이라는 내용이 (자)에 제시되어 있다.

### 05

‘제기됐다’는 피동 접미사 ‘-되다’를 사용한 피동 표현에 해당한다.

### 06

학생회장/부회장 후보뿐 아니라 그들을 뽑을 다른 학생들도 예상 독자로 볼 수 있다. 다른 학생들도 공고문을 봄으로써 선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오답 피하기** ① 제목은 군더더기 없이 간략한 표현으로 ‘학생회장/부회장 선거’를 치를 것을 공고하고 있다. ③ ‘~ 공고합니다.’와 같이 ‘하십시오체’를 사용함으로써 독자를 정중히 대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④ 후보자 등록일부터 선거일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안내하고 있다. ⑤ 하위 항목 번호를 통해 세부적으로 알아야 하는 내용들을 안내하고 있다.

### 07

기사문에 해당하는 설명으로서, 광고문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는 특성이다.

**오답 피하기** ① 영상, 문자, 음악 등 다양한 매체를 복합적으로 사용하여 광고를 제작할 수 있다. ② 광고는 수용자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여 기억에 오래 남도록 해야 하므로 맞는 내용이다. ③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설득하는 것이므로 맞는 내용이다. ④ 기억에 오래 남도록 수사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광고문의 특징 중 하나다.

### 08

두 광고 모두 에너지를 낭비하는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에너지를 아끼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수용자의 인식과 행동의 변화를 유도하여 공적 이익을 꾀하는 광고에 해당한다.

**오답 피하기** ① 제시된 인쇄 광고와 영상 광고는 모두 공적 이익을 꾀하는 광고이다. ② 두 광고의 내용은 자원을 아끼자는 차원에서 동일한 내용을 전하고 있다. ④ 인쇄 광고에 비해 다양한 표현 수단을 사용하는 영상 광고가 더 강한 인상을 준다. ⑤ 영상 광고에도 문자는 등장할 수 있으며, 인쇄 광고에도 이미지와 같은 시각 자료는 들어갈 수 있다.

01 ③ 02 ④ 03 ② 04 ⑤ 05 ④ 06 ⑤ 07 ①  
08 ③ 09 **예시 답안** 공고문은 정보를 전달하는 글이고, 광고문은 정보 제공을 통해 독자를 설득하려는 글이다.

## 01

지역 방언의 다양한 예, 사회 방언의 다양한 예를 제시하여 각 방언의 특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 02

(라)에서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표준어를 사용하고 사적인 자리에는 지역 방언을 사용한다는 것이나 부모님이나 조부모님께 말할 때는 친구들과끼리 사용하던 말을 쉽게 바꾸어서 표현한다는 것으로 보아 지역 방언이나 사회 방언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사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① (가)의 첫 번째 문장에 '지리적 요인에 따라 분화된 말을 지역 방언이라고 한다.'라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② 제주도에서는 여성을 '삼촌'이라고 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제주도에 사는 사람과 의사소통을 할 때 오해가 생길 수 있다. ③ 방언에는 지역 방언 뿐 아니라 연령·세대·성별·사회 계층 등에 따라 분화된 사회 방언도 포함되므로 맞는 내용이다. ⑤ 어휘나 관용 표현은 그 언어가 포함된 문화적 맥락을 고려해야 제대로 의미를 이해할 수 있으므로 표면적 의미로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말은 적절하다.

## 03

'언니'와 '누나'는 같은 대상을 가리키는 말이지만, 화자의 성별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사회 방언이다. '언니'는 여성 화자의 사회 방언, '누나'는 남성 화자의 사회 방언이므로 같은 집단의 사회 방언에 속하는 말이라고 볼 수 없다.

**오답 피하기** ① 초연이가 사용한 '심땃'이라는 말을 명진이가 선생님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③ '심땃'이 무엇인냐고 묻는 선생님의 질문에 명진이가 선생님이 알 수 있는 말로 쉽게 설명해 주고 있다. ④ 여성 화자는 '민서'를 '언니'라고 하고 있고, 남성 화자는 '누나'라고 하는 것을 통해 성별을 기준으로 서로 다른 사회 방언을 사용할 수 있다. ⑤ 선생님이 명진이와 초연이가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해서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겼음을 볼 때, 이런 문제가 심해지면 제대로 된 의사소통이 어려워질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 04

각 언어들은 그 언어가 속한 문화적 맥락을 담고 있으므로, 그것을 한국어로 번역할 때는 원래 작품이 속한 사회와 우리 사회의 문화적 맥락을 이해하는 게 도움이 된다.

**오답 피하기** ① 상황에 따라 직역을 해도 무방한 경우가 있고, 문화적 맥락을 고려할 때는 의역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한 가지만 고집해서는 안 된다. ② 외국에서 사용하는 한국어는 이미 외국의 문화적 맥락의 영향을 받아 의미가 달라졌을 수 있으므로 한국어와 동일한 맥락으로 해석하면 잘못된 해

석을 할 수도 있다. ③ 외국의 관용 표현이나 한국의 관용 표현 모두 그 나라의 문화적 맥락을 알아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④ 외국의 관용 표현을 번역할 때는 그 나라의 문화적 맥락을 반영하되, 우리나라의 문화적 맥락도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독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05

할미는 표준어에 해당한다.

**오답 피하기** ① '삼촌'은 제주도에서 사용되는 지역 방언, ② '매화'는 궁중에서 사용되던 사회 방언, ③ '오빠'는 여성 화자가 사용하는 사회 방언, ⑤ '지르다'는 젊은 세대가 사용하는 사회 방언이다.

## 06

(마)에는 광고문이 갖춰야 할 요건이나 광고문이 지닌 장단점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오답 피하기** ① (가)에는 기사문의 신뢰도가 매우 중요하며, 종이 신문의 경우 간결하게 써야 한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② (나)는 기사문의 특성인 피동 표현을 설명하고, 그 효과를 언급하고 있다. ③ (다)는 기사문에 드러난 인용 표현을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다. ④ (라)는 광고문이 갖춰야 하는 태도와 표현을 언급하고, 제목, 전문, 내용 등의 구성 요소를 설명하고 있다.

## 07

④는 기상청의 예보 내용을 옮겨 표현하고 있다.

**오답 피하기** ② '-겠-'을 통해 책임을 회피한 것이 아니라 기상 예보를 하는 것이므로 벌어지지 않은 미래의 상황에 대해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다. ③ 피동 표현을 사용한 것은 맞지만 ㉠의 경우는 '예상'하는 주체가 '국립 환경 과학원'임이 드러나므로 행위의 주체를 밝힐 수 없음이 드러난다는 것은 잘못된 내용이다. ④ 직접 인용을 드러내는 큰따옴표를 쓰고 있기는 하지만 간접 인용 조사인 '고'를 사용한 간접 인용문이다. ⑤ '풀리겠다'는 행위의 주체를 일부러 감춘 것이 아니라, 날씨를 '풀-'어 주는 주체를 밝힐 수 없어서 피동의 표현을 사용한 것이다.

## 08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가)의 기사문과 달리 (라)의 공고문은 빛나라 고등학교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글이므로 불특정 다수의 독자를 대상으로 한 글로 볼 수 없다.

**오답 피하기** ① 기사문과 공고문은 모두 정보를 전달하는 글이다. ② 정보를 전달하며 객관성을 보이는 글이므로 개인적 생각이 드러나지 않는다. ④ 공고문이 명사형으로 끝나고 있는 반면, 기사문은 완결된 문장으로 서술되어 있다. ⑤ 기사문과 달리 공고문은 1, 2, ①, ② 등의 번호를 붙여 간결하게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 09

(라), (마)로 볼 때, 공고문은 정보를 전달하는 글이고 광고문은 정보 제공을 통해 독자를 설득하려는 글임을 알 수 있다.



- 01 ④ 02 ⑤ 03 ① 04 예시 답안 하늘이 불쌍히 여기시어  
몸이 편안하면 갈 것이다. 05 ④ 06 ① 07 ① 08 ③  
09 ④ 10 ③ 11 ① 12 ④ 13 ④ 14 ①

## 01

(가) 시기엔 한자를 이용한 표기인 차자(借字) 표기를 썼고,  
(나) 시기엔 한글이 창제되어 한글로 표기하였다.

**오답 피하기** ① (가)와 (나) 시기 모두 한자 표기를 사용하였다. ② (나)는 문장을 표기하는 데 한계가 없었다. ③ (가)와 (나) 모두 우리말을 표기했으나 (가)는 한자를 빌려 쓴 것이고, (나)는 우리 고유의 문자인 한글을 사용한 차이가 있을 뿐이다. ⑤ (가) 시기에 사용되던 어휘들은 한자 표기를 사용하긴 했지만 우리말 어휘에 해당하므로, (나) 시기에 와서 표기 방식만 변화했을 뿐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

## 02

㉠의 표기는 일정한 기준 없이 한자의 음이나 뜻을 빌려 단어를 표기하는 것으로서 단어만 표기할 수 있는 것이었다면, ㉠은 어휘적 의미를 지닌 부분뿐 아니라, 문법적 의미까지 표기하게 되면서 문장을 표기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⑤는 적절한 내용이다.

**오답 피하기** ① 표기는 한자지만 우리말을 표기하기 위해 빌려 온 것이므로 우리말로 볼 수 있다. ② ㉠의 표기는 고유 명사와 같은 어휘뿐 아니라 문장까지 모두 표기할 수 있는 방식이었다. ③ ㉠은 하나의 표기를 읽는 방식이 두 가지 이상인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이상의 표기를 유사하게 읽었던 것이다. ④ ㉠, ㉡ 모두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서 표기한 것이다.

## 03

‘어엿비’의 경우는 의미가 전혀 다른 의미로 이동되는 변화를 겪게 되었다. 반면 ‘하나라’의 ‘하다’는 ‘많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던 단어인데, 의미의 변화를 겪은 것이 아니라 아예 사라지고 대신 ‘많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같은 방식의 의미 변화를 겪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오답 피하기** ② ‘스물여덟’이 현재는 ‘스물여덜’으로 표기되는 것으로 보아 모음 ‘-’가 ‘ㄴ’과 ‘ㄷ’로 변화된 것을 알 수 있다. ③ ‘ㅇ’은 음가가 있는 ‘ㅇ’으로 소리가 났지만 ‘ㅇ’은 음가가 없는 것으로서 소리가 나지 않았다. ④ 앞 글자의 종성이 뒤 글자에 이어 적힌 것으로 보아 소리 나는 대로 표기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⑤ ‘니르고져’와 ‘너겨’는 현대 국어에서 ‘이르고자’, ‘여겨’로 표기된다. 자음 ‘ㄴ’이 어두에서 사용되지 않는 변화가 생긴 것이다.

## 04

중세 국어에서 ‘어엿브다’가 지녔던 의미에 유의하여 해석한다.

## 05

(가)의 ‘조.쌀’은 ‘좁쌀’, (나)의 ‘썰’은 ‘빠’로 현대 국어에 남게 되었으므로 둘 다 된소리로 남아 있다고 보아야 한다.

**오답 피하기** ① (가)에는 된소리를 나타내는 표기가 따로 없는 데 반해, (나)에는 ‘썰’, ‘썰지’와 같이 된소리 표기가 나타나고 있다. ② (가)에는 표기되었던 성조 표기가 (나)에서는 보이지 않으므로 맞는 내용으로 볼 수 있다. ③ (가)에는 ‘남지니, 겨지비, 모기, 시서, 훈마래’ 등과 같이 이어적기가 많이 보이는 데 반해, (나)에는 ‘스름은, 부엌의, 살오지’ 등과 같이 끊어적기가 많이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⑤ (가)와 (나)에는 모두 첨표나 마침표 등의 문장 부호가 사용되지 않아서 어디서 끊어서 읽어야 할지 알기 어렵다.

## 06

㉠의 ‘얹’은 현대 국어의 ‘암탉(얹+닭)’에, ㉡의 ‘쌀’은 현대 국어의 ‘좁쌀(조+쌀)’에 흔적을 남겼다.

**오답 피하기** ② ㉠의 ‘으로’, ㉡의 ‘를’, ‘애’와 같은 조사들은 현대 국어에서 형태가 바뀐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계속 사용되고 있는 조사들이다. ③ ‘남진’의 경우는 현대 국어에서 사용되지 않지만, ‘겨집’은 ‘계집’으로 형태가 바뀌어 사용되고 있다. ④ ‘ㄱ장’은 ‘여럿 가운데 제일’이라는 뜻 외에 ‘매우, 몹시’라는 의미도 지녔으나, 지금은 ‘여럿 가운데 제일’이라는 의미로만 쓰이므로 의미가 축소된 예로 볼 수 있다. ⑤ ㉠의 ‘·’는 ‘암탉>암탉’, ‘수탉>수탉’에서 보듯 모두 ‘ㅌ’로 바뀐 것이 맞지만, ㉡의 ‘·’는 ‘무르거든>마르거든’, ‘닷되롤>닷되롤’과 같이 ‘ㄹ’로 바뀐 경우도 있다.

## 07

‘안팎’은 ‘ㅎ’ 종성 체언인 ‘얹’이 ‘밖’과 결합하면서 ‘얹’의 종성 체언 ‘ㅎ’이 뒤따르는 ‘ㅂ’과 결합하여 ‘ㅍ’으로 변한 ‘ㅎ’ 종성 체언의 사례에 해당한다. 하지만 ‘암투’의 경우는 ‘투’가 싸운다는 의미의 한자어로서 앞 글자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없어, ‘암’과 ‘ㅎ’ 종성 체언은 관련이 없다.

**오답 피하기** ② ‘숯’은 표기상 종성에 ‘ㅎ’이 있으며, 단어의 합성 과정에서 뒤따르는 자음과 축약되기도 하는 ‘ㅎ’ 종성 체언에 해당한다. ③ 자음 ‘ㅎ’과 ‘ㄱ’이 ‘ㅋ’으로 축약되면서 ‘숯고기’가 ‘살코기’가 되었다. ④ 중세 국어의 ‘살코기’가 현대 국어에서 ‘살코기’로 표기되는 것으로 보아 ‘·’가 ‘ㅌ’로 교체된 것을 알 수 있다. ⑤ 단일어로 적을 때 현대 국어에서는 ‘살+고기>살코기’에서처럼 ‘살’이 ‘ㅎ’을 갖고 있는 ‘ㅎ’ 종성 체언임에도 불구하고 ‘살’로만 표기하는 것과 달리 중세 국어에서는 ‘숯’이라고 표기함으로써 ‘ㅎ’의 형태를 밝혀 적었다.

## 08

‘사르다’라는 의미의 단어를 활용한 ‘스르며’, ‘살오지’를 보면, 전자는 이어적기에 ‘·’ 표기가 되어 있고 후자는 그렇지 않은 것을 통해 표기법에 혼란이 있던 시기임을 알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① 현대 국어에서는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면 ‘를’, 자음으로 끝나면 ‘을’을 쓰는 것을 엄격하게 지키는데, (나)에서는 ‘중회를’, ‘등속을’에서 볼 수 있듯이 목적격 조사 ‘을/를’이 엄격하게 구별되어 사용되지는 않았음을 알 수



있다. ② ‘몹쓸’은 중세 국어 ‘몹쓰다’로부터 온 말로서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나쁜’의 의미를 지녔었으나, ‘악독하고 고약한’의 의미로 변하게 된다. (나)에서 사용된 의미는 후자의 의미로서, 중세 국어의 의미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④ 모음 ‘·’가 사라지면서 ‘ㅏ’, ‘ㅑ’와 같은 기존의 다른 음운들로 대체된 것이지, 새로운 음운이 생긴 것이 아니다. ⑤ ‘똥에탈’, ‘쪼임에썰’에 사용된 조사 ‘에’는 의미상 관형격 조사 ‘의’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부엌의’에서와 같이 관형격 조사 ‘의’도 사용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09

제시된 부분에는 동북 방언과 제주 방언이 유사한 어휘를 보여 주는 예가 없으며,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라고 볼 만한 근거도 나와 있지 않다.

**오답 피하기** ① ‘그러잖애두’, ‘먹었습메’, ‘그러겠담메’, ‘할망이엔’에서 볼 수 있듯이 조사나 어미도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다. ② 지역 방언은 지리적 요인에 의해 분화된 것인데, 동북 방언과 제주 방언은 지역 방언에 해당한다. ③ ‘감자’를 ‘감쥐’나 ‘지술’로 부르는 것에서 알 수 있다. ⑤ ‘감자’를 가리키는 말이나 ‘할머니’를 가리키는 말, 그 외의 문법적 기능을 하는 말들도 서로 차이가 많기 때문에 서로 다른 지역 방언의 화자끼리 대화를 나누는 경우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 10

사회 방언이나 지역 방언은 모두 말하는 상황이나 대상에 따라 달리 사용할 수 있으므로 ③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피하기** ①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표준어를 사용하다가도 사적인 대화에서는 지역 방언을 사용한다는 것을 통해 지역 방언을 상황에 맞게 의도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이 드러난다. ② ‘맘마’, ‘지지’의 경우는 유아기의 어린 화자들이 사용하는 사회 방언으로서 점차 성장해 나가면서 사용하지 않는 말이다. ④ 보통은 ‘얼굴’이라고 말하는 것을 사회 계층이 높은 임금의 얼굴의 경우는 ‘용안’이라고 하고 있으므로 계층에 따라 사용하는 말이 달랐음을 보여 주는 예에 해당한다. ⑤ 성별에 따라 언어가 분화되는 것도 사회 방언이므로, 같은 대상을 화자의 성별에 따라 ‘오빠’, ‘형’이라고 달리 부르게 되는 것은 사회 방언으로 볼 수 있다.

## 11

③가 관용 표현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객관적 상황을 진술한 문장인 경우엔 직역하는 것이 맞으므로 ⑥로 번역될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② 외국어로 번역할 때는, 그 국가의 문화적 맥락에 따라 상황에 맞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번역하게 되므로 ⑥로만 번역해야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③ ⑥와 같은 외국어 문장을 번역할 때는 그것이 원래 지니는 의미와, 우리의 문화적 관습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번역하게 되므로 상황에 따라 의미가 다양해질 수 있다. 따라서 두 가지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④ 한국어 문장인 ⑥가 해외에서 사용되게 되면 그곳의 문화적 맥락의 영향을 받아 달라지지만 그것이 반드시 ⑥의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것은 아니다. 문화적 맥락은 다양한 것이므로 그 맥락이 무엇인가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바뀌게 될 수 있다. ⑤ ⑥는 단순히 직역한 것이고, 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여 의역한 것은 ⑥에 해당한다.

## 12

‘고령화’대책과 ‘교육’ 정책의 필요성을 지적할 수 있는 주체는 사람이 될 것이므로 그 존재가 분명히 있을 텐데 ‘제기됐다’는 피동 표현을 사용하면서 그 주체를 일부러 드러내지 않고 있다.

**오답 피하기** ① ‘고령화’에 대한 언급만 있을 뿐 그 부분을 과장한 내용은 없다. ② 글쓴이의 주관적인 생각을 드러낸 부분은 없다. 기존의 세계적 변화와 그에 따른 지적이 제기되는 현상을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③ 이중 피동이 사용된 부분은 없다. ⑤ 객관성이 결여된 정보라고 볼 만한 부분이 없다.

## 13

공고문은 특정 정보를 두루 알리기 위해 쓰는 것이지만 한 공고문 내에서 예상 독자층을 구분지어 내용을 따로 전달하는 글이 아니다. 제시된 공고문 역시 예상 독자에 따라 내용을 구분하고 있지 않다.

**오답 피하기** ① ‘제목’ 부분에서 공고문을 통해 전달될 내용이 굵은 글씨로, 핵심적인 내용만 간략히 전달되고 있다. ② 내용이 전반적으로 줄글로 서술된 부분이 없이 명사나 명사형 어미로 끝나고 있다. ③ 전달의 주체가 ‘빛나라 고등 학교 선거 관리 위원회’라고 밝히고 있으며, 마지막 8번 항목을 보면 문의 사항이 있으면 문의하라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⑤ 전반적으로 명사형으로 쓰였고, ‘1, 2, 3...’과 같이 항목 나열식으로 쓰였으므로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전문’에서 ‘하십시오체’를 사용하면서 독자를 정중히 대하는 느낌을 주고 있다.

## 14

광고문은 어떤 대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수용자를 설득하는 것이 주요 목적인 글이다.

### 대단원 핵심문제

본문 166~173쪽

01 ① 02 ① 03 ⑤ 04 ② 05 예시 답안 합성어의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ㄷ’로 시작할 때 ‘ㄴ’이 첨가되는 현상이 공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06 ④ 07 ① 08 ④ 09 ③ 10 ⑤ 11 예시 답안 손<sup>1</sup>과 손<sup>2</sup>는 소리는 같으나 뜻이 다른 동음이의어이다. 12 ④ 13 ① 14 ⑤ 15 ④ 16 ① 17 예시 답안 민지는 어제 나에게 같이 수영장에 가는 게 어떠냐고 물었다. 18 ③ 19 ④ 20 ③ 21 ④ 22 ④ 23 ② 24 예시 답안 ‘쌀’을 의미하는 ‘쌀’의 ‘ㅅ’은 따로 소리가 나는 자음이었는데 이것이 앞 글자의 받침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현대 국어에 흔적을 남겨 쯔쌀로 표기되게 되었다. 25 예시 답안 각 나라별로 서로 다른 문화적 차이가 관용 표현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26 ② 27 ⑤ 28 ④

## 01

‘ㄱ, ㅋ’은 단모음으로서 입술의 모양이나 혀의 위치에 변화가 없지만 ‘ㄱ, ㅋ’은 이중 모음으로서 입술의 모양이나 혀의 위치에 변화가 있다.

**오답 피하기** ② 공기의 흐름을 막고 내는 소리는 ‘ㄱ, ㄷ, ㅂ’이다. ③ 된소리되기 현상은 음운의 첨가가 아닌 교체에 해당한다. ④ 탈락되면서 그냥 없어질 뿐, 다른 음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⑤ ‘ㄴ’ 첨가는 음운이 늘어나는 현상이지만, 거센소리되기는 자음이 축약되기 때문에 음운의 수가 줄어든다.

## 02

‘얹은’의 경우는 ‘ㅎ’ 소리가 탈락하기 때문에 실제 소리에 반영되지 않지만, ‘입학[이팍]’, ‘어색한[어새칸]’의 경우는 ‘ㅎ’ 소리가 뒤따르는 자음과 합쳐져 축약되었으므로 실제 소리에 반영된 것이다.

**오답 피하기** ② 음절의 끝소리 현상에 의해 ‘낫선’의 ‘낫’은 [남]으로, ‘얹문’의 ‘얹’은 [압]으로 바뀐 뒤 된소리되거나 비음화 현상이 적용된다. ③ ‘얹은’은 [아]는 [아]로 발음되므로 자음 ‘ㅎ’이 탈락, ‘다문’은 ‘다물-+ㄴ’에서 자음 ‘ㄹ’이 탈락된 것이다. ④ ‘입학’은 [이팍]으로, ‘어색한’은 [어새칸]으로 발음되는데, 이는 모두 거센소리되기가 진행되면서 두 개의 자음이 하나의 자음으로 축약된 것이다. ⑤ ‘낫선[남선]’은 음절의 끝소리 현상과 된소리되기, ‘얹문[암문]’은 음절의 끝소리 현상과 비음화가 나타나는데, 이 음운 변동들은 모두 교체에 해당한다.

## 03

뒤따르는 음운 환경이 바뀌면 음운 변동 현상도 함께 바뀌긴 하지만, 그렇다고 음운 변동이 아예 안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나무’가 아닌 ‘집’이 나오면 비음화는 일어나지 않겠지만, 음절의 끝소리 현상은 일어나며 된소리되기에 의해 ‘집’이 [쩍]으로 발음된다.

**오답 피하기** ① ‘ㄱ, ㄷ, ㅂ’이 아닌 자음이 음절 끝에서 [ㄱ], [ㄷ], [ㅂ]으로 바뀌는 음절의 끝소리 현상으로 맞는 내용이다. ② [꼴]이 ‘나무’ 앞에 놓이면서 비음 ‘ㄴ’의 영향으로 비음화되어 [꼴]이 되는 것이다. ③ ‘ㄴ’은 잇몸소리인데 ‘ㄷ’도 잇몸소리이므로 같은 조음 위치라는 말은 맞다. ④ ‘꼴’의 받침 ‘ㄷ’은 뒤따르는 첫소리 ‘ㄴ’과 조음 방법이 달라 발음이 어려웠는데, 같은 음운 ‘ㄴ’으로 바뀌게 되면서 더 편하게 조음을 할 수 있게 되었다.

## 04

㉠ ‘밭이랑’은 ‘밭+이랑→[반이랑](음절의 끝소리 현상)→[반니랑](‘ㄴ’ 첨가)→[반니랑](비음화)’, ㉡ ‘흙만’은 ‘흙만→[흑만](자음군 단순화)→[흑만](비음화)’의 음운 변동 현상을 거쳤으므로 비음화 현상이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오답 피하기** ① ㉡가 아닌 ㉡가 합성어이다. ③ ㉡는 [시뻘뻘만], ㉢는 [바테만]이라고 읽는데 받침으로 쓰인 자음 ‘ㅍ’, ‘ㅌ’ 각각의 본연의 소리대로 읽으므로 음절의 끝소리 현상이 적용된 것이 아니다. ④ 음절의 끝소리 현상이 적용되는 것은 ㉠뿐이다. ⑤ ㉡는 [흙기]라고 읽는데, 이 경우 ‘흙’의 받침 자음 두 개

를 모두 발음하게 되는 것이므로 자음군 단순화에 해당하지 않는다. ㉠은 ‘흙만→[흑만]→[흑만]’과 같이 자음군 단순화에 의해 하나의 자음만 발음한다.

## 05

‘숨이불’, ‘꽃잎’, ‘뒷일’은 각각 [숨:니불], [꼇:닙], [뒷:닐]로 발음되므로, 합성어의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ㅣ’로 시작할 때 ‘ㄴ’이 첨가되는 현상이 공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 06

‘폼사’, ‘형태소’ 등 주요 개념들의 의미를 정의하는 방식을 빈번하게 사용함으로써 서술 대상의 개념을 명확히 드러내고 있다.

**오답 피하기** ① 예상되는 문제 상황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대안도 없다. ② 다양한 사례는 제시되어 있지만, 서술자의 견해는 드러나지 않는다. ③ 기존의 통설이나 새로운 이론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⑤ 현상에 대한 분석이 없으므로, 이를 통해 일반적 이론을 도출하는 내용도 드러나지 않는다.

## 07

‘아이들’과 ‘큰’의 수식을 각각 받고 있는 ‘싸움’은 ‘싸우-’에 명사 파생 접미사 ‘-ㅁ’이 결합되어 만들어진 명사에 해당한다.

**오답 피하기** ② 앞의 ‘모두’는 주어로 쓰일 수 있는 명사, 뒤의 ‘모두’는 동사 ‘해결하다’를 수식하는 부사에 해당한다. ③ 앞의 ‘읽기’는 명사, 뒤의 ‘읽기’는 ‘대표로’라는 부사어의 수식을 받는 동사(어간 ‘읽-’+ 어미 ‘-기로’)에 해당한다. ④ 앞의 ‘같이’는 ‘가다’라는 동사를 수식하므로 부사, 뒤의 ‘같이’는 명사 ‘바보’에 붙어서 사용되는 조사에 해당한다. ⑤ 앞의 ‘잠’은 관형사 ‘깊은’의 수식을 받는 명사, 뒤의 ‘잠’은 서술의 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동사이다.

## 08

‘부글부글하다’는 부사 ‘부글부글’에 동사 파생 접미사 ‘-하다’가 붙어 만들어진 것으로서 부사가 동사로 바뀌었으므로 품사가 바뀌었다.

**오답 피하기** ① ‘오늘’은 실질적인 의미가 있고, 혼자 독립해서 쓰일 수 있으므로 실질 형태소이자 자립 형태소이다. ② ‘놀이’는 동사 ‘놀다’ 어간 ‘놀-’에 명사 파생 접미사 ‘-이’가 붙어서 새로운 명사로 만들어진 것이므로 맞는 내용이다. ③ ‘숫다’에 ‘치-’가 붙게 되면서 ‘숫다’의 중심 의미는 변하지 않고 ‘세차게, 험차게’ 정도의 의미를 더해 준 것이므로 ‘치-’는 의미의 주변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⑤ ‘모르-’는 ‘어떤 사실을 알지 못하다.’라는 실질적 의미가 있기는 하지만 ‘모르고 / 모르지 / 모르니’ 등 뒤따르는 말이 있어야 쓰일 수 있으므로 자립 형태소로 볼 수 없다.

## 09

‘개살구’의 어근인 ‘살구’는 독립적으로 쓰일 수 있으나, ‘먹이’의 어근인 ‘먹-’은 독립적으로 쓰이지 못하고 뒤따르는 말이 있어야 한다.

**오답 피하기** ① 동사 ‘먹다’의 어간 ‘먹-’에 명사 파생 접미사 ‘-이’가 붙어 ‘먹이’라는 명사로 바뀌었다. ② 형태소가 두 개 이상 결합되어 만들어진 것을 복

합어라고 하므로 '접사+어근', '어근+접사', '어근+어근'의 결합인 세 단어는 모두 복합어이다. ④ '살구'라는 말에 '개-'가 붙음으로써 '살구보다 시고 뽕은 열매'를 가리키게 되었지만 이 역시 명사이므로 품사가 바뀐 것은 아니다. ⑤ 어근과 어근이 결합한 것은 합성어이므로 맞는 말이다.

## 10

다른 말들은 반의 관계인데 반해, '겨'와 '똥'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지저분한 것'이라는 맥락에서 유의 관계에 해당한다.

## 11

표제어가 따로 구분되어 제시된 점 등으로 볼 때 손<sup>01</sup>과 손<sup>02</sup>는 소리는 같으나 뜻이 다른 동음이의어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 12

(라)에는 부정문이 무엇인지, 어떤 부정문들이 있는지 제시되어 있다.

**오답 피하기** ① 높임법은 제시되어 있지만 그 안에 반영된 가치관이 제시되지는 않았다. ② 시제의 종류는 제시되어 있지만 시제 표현 시 유의할 점이 제시되지는 않았다. ③ 피동문과 사동문이 제시되어 있지만 공통점과 차이점은 나와 있지 않다. ⑤ 직접 인용문과 간접 인용문은 제시되어 있지만 각각의 작성법을 알려 주고 있지는 않다.

## 13

다른 선지들은 주체를 높이고 있는 반면, ①은 '모시다'라는 높임의 어휘를 통해 객체인 '할머니'를 높이고 있다.

**오답 피하기** ② 높임의 선어말 어미 '-시-'를 통해 주체인 '할아버지'를 간접적으로 높이고 있다. ③ 높임의 주격 주사 '께서'를 통해 주체인 '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④ '말씀'이라는 높임의 어휘와 높임의 선어말 어미 '-시-'를 통해 주체인 '어머니'를 높이고 있다. ⑤ 높임의 어휘 '진지'를 통해 밥을 먹는 행위의 주체인 '할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 14

'-겠-'은 의지를 드러낼 때도 쓰지만, 미래에 대한 추측을 할 때도 사용한다. ㉠의 경우는 내일 비가 온다고 해서 체육 수업을 안 할 것이라고 추측을 하는 것이므로 '의지'를 표현한다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피하기** ① 교생 선생님이 오시기로 한 사실이 확정적이기 때문에 미래에 벌어질 일인데도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 있다. ② 지금까지 벌어졌던 일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므로 과거 시제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③ 교생 선생님이 오실 예정인 것을 미래 시제를 드러내는 '-ㄹ 것'을 통해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고 있다'는 현재 진행 중일 때 쓰는 표현인데,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이해이다.

## 15

남편이 아이를 등에 업는 행동을 하게 만드는 주체는 아내로

서, 문장의 맥락을 고려할 때, 아내가 아이를 직접 남편의 등에 올려놓은 것이므로 사동 표현에 해당한다.

**오답 피하기** ① 월급을 받지 못해서 돈을 구해야 하는 주체가 자신의 의지로 시계를 전당포에서 담보로 잡게끔 한 것이므로 '잡히고'는 사동 표현에 해당한다. ② 주체가 아이로 하여금 밥을 먹게 한 것이므로 '먹이고'는 사동 표현이라 볼 수 있다. ③ 긴장을 풀어 준 주체를 상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용된 피동 표현에 해당한다. ⑤ 행위를 할 수 있는 주체는 '사람'이지만 어려운 형편에서 주체의 '삶'이라는 대상이 개선될 수 있는지에 대해 회의적인 상태를 피동 표현을 통해 부각하고 있다.

## 16

짧은 부정문으로 바꾸려면 '신뢰가 깨지면 못 함께할 것이다.'가 되는데, 이 경우 문장이 자연스럽지 못하다.

**오답 피하기** ② '이 세상에 못 오를 산이 어디 있다.'로 바꾸어도 자연스럽다. ③ '안 갈 거면 어서 이리 와서 앉아라.'로 바꾸어도 자연스럽다. ④ '은혜는 단 것을 싫어해서 잘 안 먹는다.'로 바꾸어도 자연스럽다. ⑤ '그 배우는 발목 부상으로 결국 무대에 못 올랐다.'로 바꾸어도 자연스럽다.

## 17

큰 따옴표를 빼고 조사 '고'를 붙인 뒤 종결 어미를 해라체로 바꾸고 호칭어나 시간 표현 등도 적절히 빼거나 수정한다.

## 18

담화를 구성하는 요소, 발화의 의미 해석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 담화가 갖춰야 할 요건 등의 하위 요소를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다.

## 19

㉠과 ㉡이 지시하는 대상은 같다. 진우가 ㉠'이건'이라고 새롭게 제시한 것을 민희가 읽어 본 뒤 ㉡'이게'라고 가리키며 '어제 준 것'보다 낫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같은 대상을 가리키는 말임을 알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① 어제 진우가 민희에게 준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이 가리키는 것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으므로 공유하고 있는 담화 맥락을 알아야 한다는 것은 적절한 이해이다. ② ㉠은 진우가 말한 '어제 준 것'을 가리키는 것인데, '그게'라는 지시 표현으로 이미 등장한 것을 가리킴으로써 응집성을 높인다. ③ ㉠을 풀어 쓰면 "그게 조금 어렵게 느껴졌어?" 정도가 될 것이므로 앞선 발화 내용을 가리킨 것이 맞다. ⑤ '저번에 만난 전문가'의 이야기는 진우가 준 자료에 포함된 것이므로 진우도 이미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그때의 사건을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 20

한자어의 음을 표기할 때는 한자를 병기하였으며, 초성, 중성, 종성의 표기를 모두 갖추서 썼다. 받침이 없는 글자인 경우

에도 한자어의 음을 표기할 때는 ‘爲·윙’과 같이 중성 자리에 ‘ㅇ’을 표기하였는데, 우리말을 표기할 때는 받침이 없는 글자인 경우에는 그 자리를 비워 두었다는 점에서 표기의 차이를 알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① 단어나 문장 모두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 표기했다. ② 차자(借字) 표기는 한자를 빌려 표기한 것이기 때문에 한자를 모르면 읽을 수 없었다. ④ 한글 창제 이전 시기에 사용하던 어휘들은 표기가 달라졌을 뿐, 한글 창제 후에도 우리말로 적히며 그 흔적이 남은 경우가 많으므로 어휘가 모두 사라진 것은 아니다. ⑤ 근대 국어 시기에는 중세 국어 시기에 비해 끌어적기가 자주 나타나긴 하지만 여전히 이어적기도 사용되고 있었으므로 끌어적기가 원칙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 21

‘남진’은 ‘사내, 남편’을 의미했으나 현대 국어로 오면서 사용하지 않게 되었으며, ‘ㅁ장’은 ‘여럿 가운데 제일’이라는 뜻 외에 ‘매우, 몹시’의 의미도 가지고 있었으나 지금은 ‘여럿 가운데 제일’만 의미하게 되었으므로 의미가 축소된 예에 해당한다.

**오답 피하기** ① ‘즈믄’이나 ‘ㅁ름’은 고유어지만, 현재는 사용되지 않고, 한자어 ‘천(千)’, ‘강(江)’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한자어와의 경쟁에서 밀려난 것이라 볼 수 있다. ② ‘전초’는 ‘까닭으로’라는 의미였으나, 지금은 쓰이지 않으므로 맞는 내용이다. ③ ‘어린’은 ‘어리석다’는 의미로 쓰이다가 지금은 ‘나이가 적다’는 의미로 바뀌었고, ‘어엿비’는 ‘불쌍하다’는 의미로 쓰이다가 지금은 ‘예쁘다’는 의미로 쓰이고 있으므로 지금과는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되던 어휘들이 맞다. ⑤ ‘노미’의 ‘놈’은 사람을 가리키는 ‘평칭’이었는데 ‘비칭’으로 바뀌었고, ‘겨집’ 역시 ‘여자, 아내’를 가리키는 ‘평칭’이었는데 ‘비칭’으로 바뀌었으므로 의미의 범위가 축소된 것이 맞다.

## 22

‘암퉁’과 ‘수퉁’은 모두 ‘ㅎ’ 중성 체언인 ‘않’과 ‘송’에 ‘툼’이 합쳐지면서 자음이 축약되어 나타난 형태이다. 따라서 중세 국어 시기에 ‘닭’을 ‘툼’으로 표기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피하기** ① ㉠의 ‘홀배’가 ‘할 바가’, ㉡의 ‘부테’가 ‘부처’로 해석되는 것으로 보아, 현대 국어의 주격 조사 ‘가’ 자리에 지금은 쓰이지 않는 형태의 주격 조사 ‘ㅣ’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② ㉢의 ‘하다’는 현대 국어의 ‘ 많다[多]’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고, ㉣의 ‘하다’는 현대 국어의 ‘하다’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③ ‘ㅼㅼ’들은 ‘ㅼㅼ+을’로서 앞 글자에 받침이 있는 경우 목적격 조사 ‘을’을 쓰고, ‘ㅣㅼㅼ’에서처럼 앞 글자에 받침이 없는 경우 목적격 조사 ‘를’을 썼음을 알 수 있다. ⑤ 현대 국어의 ‘씻어’를 ‘사·서’, ‘끓여’를 ‘글·혀’로 표기한 것으로 보아, 현대 국어의 된소리 표기는 아직 사용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 23

어미나 조사가 모음 조화에 의해 철저히 구분되던 것은 중세 국어의 특징으로서 근대 국어로 오면서 ‘스름은’, ‘ㅎ는바는’과 같이 모음 조화가 깨지는 예가 쉽게 발견된다.

**오답 피하기** ① (다) 자료에는 이전 자료에서 나타나던 방점이 표기되지 않고

있다. ③ ‘세상’, ‘셔로’, ‘정성’, ‘종회’, ‘썰지’ 등 지금은 단모음으로 사용하는 어휘들이 이중 모음 표기로 나타나고 있다. ④ 띄어 쓴 부분이나, 마침표, 쉼표 등의 문장 부호가 나타나지 않는다. ⑤ ‘꾸지고’, ‘쏘’, ‘썰’와 같이 지금은 된소리로 표기되는 것들이 어두 자음군으로 표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24

어두 자음군 ‘ㄴㄴ’의 흔적이 현대 국어에 남게 된 과정을 쓴다.

## 25

나라별로 문화적 차이가 관용 표현에 반영되기 때문에 비슷한 의미를 나타내는 나라별 속담이 차이가 나는 것이다.

## 26

‘시나몬 파우더, 사이즈, 스물’ 등은 노년층에 비해 젊은 세대가 많이 사용하는 말이지, 특정한 직업만 사용하는 어휘라고 보기 어렵다.

## 27

기사문은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며, 중요한 정보를 재구성하는 인용문을 만드는 과정에서 독자의 주의를 끌기 위해 규범에 어긋난 문장을 쓰기도 한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광고문의 경우는 대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수용자를 설득하기 위해 수용자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는 전략을 사용한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오답 피하기** ①, ③ 기사문의 특성이다. ②, ④ 광고문의 특성이다.

## 28

㉠의 기사문은 간접 인용문인데 직접 인용문에만 사용하는 큰 따옴표를 사용하고 있다. 이는 규범에는 어긋나지만, 독자의 주의를 끄는 점에서 효과가 있는 방식이다.

**오답 피하기** ① 종이 신문에 실리지 않는다고 간결하지 않은 장황한 문장을 써도 되는 것은 아니다. ② ㉢은 ‘-고’라는 간접 인용의 조사를 사용한 간접 인용문인데, 독자의 주의를 끌기 위해 의도적으로 큰따옴표를 붙인 것이다. ③ 피동 표현을 쓰게 되면 내용이 객관적인 것으로 보이는 효과가 있는 경우도 있으나, 행위의 주체를 의도적으로 감추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자주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⑤ 인용에 해당하지도 않는데 중요한 내용이라고 기자가 판단하여 임의로 큰따옴표에 묶어 전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III 매체 언어의 탐구와 활용

#### 대단원 7월잡이

본문 177쪽

##### 확인 문제

01 (1) 매체 (2) 비판적 02 (1) ○ (2) × 03 (1) 배려 (2) 대중문화

## 1 매체 자료의 수용과 생산

### [1] 매체 자료의 수용

##### 확인 문제

본문 181~183쪽

01 ⑤ 02 ④ 03 ② 04 ② 05 ②

#### 01

인쇄 매체는 문자, 그림, 사진, 도표 등 주로 시각 자료를 활용한다.

**오답 피하기** ① 인터넷은 전문가가 아닌 누구나 다 정보 제공이 가능하다. ② 정보의 보존과 삭제 용이한 것은 인터넷 매체이다. ③ 텔레비전은 실재감이 높은 매체이다. ④ 책은 정보의 유통 속도가 느리다.

#### 02

매체 수용자의 주관적인 입장도 경우에 따라 매체 자료를 다르게 수용하는 원인이 될 수 있으나 매체 자료 자체의 차이를 만들어 내지는 못한다.

**오답 피하기** 매체 자료에 차이가 드러나는 까닭은 ① 매체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고, ②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에 차이가 있으며, ③ 매체별 정보의 양과 질이 다르고, ⑤ 정보 제공자의 관점과 가치가 다르기 때문이다.

#### 03

매체 자료에는 정보 생산자의 관점과 의도가 개입되어 있으므로 이를 파악하며 읽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오답 피하기** ① 매체에는 생산자의 관점과 의도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③, ④ 생산자의 견해를 무조건 긍정하거나 공감하기보다 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⑤ 표현상의 효과에 주로 주목하게 되면 내용과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다.

#### 04

정보 제시에 쓰인 기법이 얼마나 창의적인가보다는 그 기법에 담긴 의도 등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답 피하기** 매체 자료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려면 ① 주장과 근거의 타당성, ③ 자료의 신뢰성, ④ 관점의 공정성 등을 살펴야 한다. ⑤ 정보의 왜곡 가능성은 자료의 신뢰성이나 관점의 공정성 차원에서 논의가 가능한 내용이다.

#### 05

매체 문해력은 매체 자료를 이해하고 분석하고 평가하는 능력이다. 서로 다른 신문 기사를 살펴본 것은 매체를 비판적으로 보려는 노력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① 텔레비전 광고를 그대로 따르는 것, ③ 약성 댓글에 영향을 받는 것, ④ 홈쇼핑 광고를 따르는 것, ⑤ 드라마에 영향을 받는 것은 모두 매체 문해력이 적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들이다.

#### 초단원 핵심문제

본문 188~190쪽

01 ① 02 ③ 03 ④ 04 ⑤ 05 **예시 답안** 책, 책은 정보 제공자의 전문성이 높고, 정보의 질적인 신뢰도가 높은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06 ① 07 ④ 08 ⑤ 09 ④ 10 **예시 답안** (가)는 인용한 정보나 자료의 출처를 정확히 밝히지 않아 신뢰성이 부족하다. (나)는 특정한 연령층과 관련한 정보나 자료를 주로 제시하여 공정성이 부족하다.

#### 01

(가)는 매체 자료를 올바르게 수용할 능력을 갖출 것을 힘주어 말하고 있다.

**오답 피하기** ② (나)는 차이를 중심으로 서술되었다. ③ (다)는 주장하는 글이 아니다. ④, ⑤ (라), (마)는 대상의 차이점을 주로 밝히고 있다.

#### 02

인쇄 매체는 문자 이외에도 그림, 사진, 도표 등의 시각 지료가 모두 활용되는 만큼 모든 시각 자료를 두루 살펴야 한다.

**오답 피하기** ① 매체 자료는 생산자 이외에도 매체 자료의 구성 방식과 유통 방식 전반에 걸친 이해가 필요하다. ② 매체 자료에 쓰이는 언어는 매체별로 각각 차이가 있다. ④ 책, 신문, 텔레비전은 모두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정보를 제공한다. ⑤ 인터넷에는 전문성을 지니지 않은 정보도 적지 않다.

#### 03

정보의 구성과 유통 방식은 정보를 제시하는 언어,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의 특성, 정보의 양과 질, 정보 제공의 속도와 보존



방식을 말한다.

## 04

인터넷은 지리적, 물리적 한계나 제약이 거의 없다.

**오답 피하기** ①, ②, ③, ④는 모두 본문에서 확인이 가능한 내용이다.

## 05

신뢰도와 전문성이 높은 매체 자료를 선택하면 된다.

## 06

매체 자료는 생산자의 관점과 가치가 반영되어 재구성되는 것으로서 객관적이지 않고 주관적이다.

## 07

생산자가 관점과 가치를 드러내는 방식은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 강조할 것과 그렇지 않은 것 등을 구분하여 표현함을 의미한다.

**오답 피하기** ① 매체 자료는 객관적이 아니라 관점과 의도가 반영되는 주관적인 성격을 띤다. ② 정보가 왜곡되어 제공된다고 보는 것은 지나치다. ③ 생산자는 사회·문화적 맥락 안에 존재하지만 ㉠이 가리키는 의미는 아니다. ⑤ 생산자가 수용자의 입장을 고려하지만 ㉠이 가리키는 의미는 아니다.

## 08

(가), (나)는 모두 카드 뉴스 자료이다. 카드 뉴스는 정보의 가독성과 이미지 비율을 높인 매체 자료로서 이동 통신 기기로도 접할 수 있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오답 피하기** ① 인터넷과 이동 통신 기기로 전달되는 만큼 정보의 제공 속도가 빠르다. ② 카드 뉴스는 일상에서 접하기 쉬운 매체 자료이다. ③ 언어적인 정보 이외에 이미지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④ 카드 뉴스는 분량을 많게 하기에는 부담이 있다.

## 09

(가)는 혼밥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나)는 부정적 인식을 각각 자료를 통해서 제시하고 있다.

**오답 피하기** ① (나)는 혼밥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보여 준다. ② (가)는 근거를 들어 해석하고 있다. ③ (나)는 통계를 인용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사례는 사용하지 않았다. ⑤ (가)는 긍정적인 인식을 보여 준다.

## 10

[보기]의 판단 기준으로 볼 때 (가)는 신뢰성이, (나)는 공정성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 [2] 매체 자료의 생산

### 확인문제

본문 192~194쪽

01 ③ 02 ② 03 ① 04 ① 05 ① 06 ③

## 01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매체 자료는 주제와 내용의 객관성이 요구되지만, 설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주관적 주장이 드러날 수 있다.

## 02

일반적으로 수용자의 연령, 성별, 관심사, 배경지식 등에 따라 매체 자료의 종류와 전달 방식 등이 선택된다.

## 03

창의적 표현은 수용자가 생산자의 의도를 더욱 분명하고 효과적으로 인지하게 하므로 생산자는 전달 내용을 수용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창의적 표현을 사용한다.

**오답 피하기** 수용자의 특성 파악(②), 재미있는 전달 방식(③)은 수용자의 흥미를 유발(④)하여 매체 자료에 집중하게 함으로써 전달 효과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다양한 표현 요소를 활용하는 것(⑤) 역시 전달 효과와 관련이 있다.

## 04

상대 높임법의 비격식체에는 ‘해요체, 해체’가 있다.

**오답 피하기** ② ‘사랑하네’는 ‘하게체’, ③ ‘사랑하오’는 ‘하오체’, ④ ‘사랑합니다’는 ‘하십시오체’, ⑤ ‘사랑하자’는 ‘해라체’로서, 모두 격식체에 해당한다.

## 05

창의적인 표현을 사용한다고 해서 매체 자료의 주제가 다양해지는 것은 아니며, 매체 자료 역시 글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주제를 통일성 있게 다루는 것이 좋다.

## 06

주위 환경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 반응, 그 속에서 의미를 찾으려는 노력이 창의적 표현의 생산자가 되는 방법이라고 하였다.

**오답 피하기** 심미적 가치를 드러내는 방식이나 매체 자료의 특성과 종류를 공부하고 매체 자료에 활용할 표현 방법 등을 습득하는 것은 모두 창의적 표현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은 부수적이고 기술적인 부분에 해당한다.

### 소단원 핵심문제

본문 198~199쪽

01 ③ 02 ③ 03 ④ 04 ② 05 ④ 06 ① 07 ①

## 01

매체 자료의 생산을 위해 고려해야 할 소통의 목적, 수용자의 특성, 매체의 특성과 사회적 파급력 등을 열거하고 있다.

## 02

㉑, ㉒는 정보 전달이 목적인 반면, ㉓는 1회 용기 사용 줄이기, ㉔는 종이 아끼기, ㉕는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등 설득을 목적으로 한다.

## 03

휴대 전화에 익숙하지 않은 할머니에게 다양한 휴대 전화를 제시하는 것은 휴대 전화에 대한 배경지식이 많지 않은 할머니를 더 혼란스럽게 할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①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은 정보 전달이 목적이므로 정확한 사실을 전달해야 한다. ② 시각적 구조화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일련의 과정을 간단하게 보여 줄 수 있다. ③ 문자 메시지는 일상생활 중에 빈번하게 사용하는 것이므로 편하게 휴대하고 볼 수 있으며, 할머니에게 익숙한 매체인 인쇄 매체가 적절하다. ⑤ 생산자는 손주이고, 수용자는 할머니이므로 친근감 있는 비격식체 중 '해요체'를 사용할 수 있다.

## 04

1문단에서 창의적 표현 방법과 그에 따른 효과를 설명하고, 2, 3문단에서는 사례를 들어 1문단의 내용을 보충하고 있으며, 4문단에서는 이와 같은 창의적 표현의 생산자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를 제시하고 있다.

## 05

소리, 자막, 이미지, 내레이션 등은 매체 언어의 다양한 표현 요소로서, 이것들이 복합적으로 사용되어 표현 효과를 높이는 것이지, 어느 것이 다른 것에 비해 더 효율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오답 피하기** ① 1문단에서 '전달 효과를 높이기 위해 창의적 표현 방법을 고민'한다고 하였다. ② 4문단에서 '창의적 표현과 심미적 가치를 담은 매체 자료'라고 하였다. ③ 1문단에서 '매체 언어는 소리, 음성, 이미지, 문자, 동영상 등의 ~ 창의적 표현을 구사할 수 있는 여지가 더욱 크다.'라고 하였다. ⑤ 2문단에서 '다양한 요소를 복합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는 수용자의 이해를 돕고'라고 하였다.

## 06

창의적 표현을 사용하면 심미적 가치가 느껴져 예술적 가치도 높아질 수 있겠으나, ㉑의 문장으로 볼 때 매체 언어 활동에서 창의적 표현을 사용하는 주된 목적은 전달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② '세상에서 가장 예측하기 어려운 것은?'이라는 다소 의외의 질문을 던져 수용자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다. ③ '부장님'은 직장인과, '시험'은 학생과 연관된 표현으로, 영상의 주제가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과 관계가 있음을 암시한다. ④ '연기, 소리, 자막, 이미지, 내레이션' 등 다양한 표현 요소를 활용하여 '지진 경보'라는 주제를 직관적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⑤ 창의적 표현은 누구라도 노력에 의해 생산할 수 있는 것임을 의미한다.

## 07

'인지하다'는 '어떤 사실을 알다.'라는 뜻인 반면, '인정하다'는 '확실히 그렇다고 여기다.'라는 뜻이다.

### 중단원 핵심문제

본문 200~203쪽

01 ② 02 ⑤ 03 ① 04 ③ 05 **예시 답안** 텔레비전의 정보 제공자는 비교적 해당 분야의 전문가이거나 전문적인 소양을 갖춘 사람인 반면 인터넷은 누구나 정보를 생산하고 유통할 수 있기 때문이다. 06 ⑤ 07 ① 08 ④ 09 **예시 답안** 개인 정보 유출이나 초상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다. 10 ④ 11 ⑤ 12 ④ 13 **예시 답안** 장애는 삶의 여정에서 누구에게라도 발생할 수 있는 일이며 장애를 갖게 되어도 삶은 계속된다는 응원의 의미를 함축적인 문구와 그림, 대사를 곁들여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 01

이 글에서는 몇 가지 기준에 따라 매체에서 정보가 구성되고 유통되는 방식을 설명하고 있다.

## 02

3문단에서 인터넷은 정보 제공자의 범위가 훨씬 개방적이라고 했다. 이것은 전문가뿐만 아니라 비전문가들도 정보 제공자가 될 수 있다는 의미이지, 전문가들이 인터넷보다 책을 정보 제공의 매체로서 더 선호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오답 피하기** ① 각 매체별로 정보가 구성되는 방식은 다르다. 예를 들어 한 권의 책은 하나의 주제를 바탕으로 정보가 유기적으로 구성되는 반면 잡지는 다양한 주제를 담은 정보들이 한 권에 담긴다. ② 수용자마다 수용 목적이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수용자는 자신이 접하는 자료가 자신에게 적절한 것인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③ 5문단에서 인터넷은 기존 내용의 변형이 쉽게 이루어진다고 했다. 반면 신문은 인쇄 매체이기 때문에 한번 인쇄된 정보는 변형이 어렵다. ④ 매체에 따라 정보가 구성되고 유통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매체 자료를 적절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매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 03

3문단에서 ‘인터넷은 정보의 생산자가 다양해서 그 양이 방대하지만 그만큼 신뢰하기 어려운 정보도 많다.’라고 한 것은 인터넷 정보의 생산자에 비전문가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보기]의 신문 기사를 인터넷 뉴스로 만들면 정보 제공자는 동일하고, 매체만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정보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않는다.

**오답 피하기** ② 인터넷은 신문에 비해 정보 제공의 속도가 빠르다. ③ 신문은 인쇄 매체이므로 시각 자료만 사용할 수 있는 반면 텔레비전은 시각 자료뿐만 아니라 청각, 시청각 자료를 사용할 수 있다. ④ 텔레비전은 현장을 생생하게 제시할 수 있으므로 신문에 비해 정보의 실재감이 높다. ⑤ 인터넷은 기존 내용의 변형이 쉬우나, 신문이나 텔레비전은 변형이 쉽지 않다.

### 04

④는 ‘옳고 그른 것을 밝혀 가리다.’라는 뜻이다.

**오답 피하기** ①, ⑤는 ‘문제가 되는 일을 상대방에게 캐묻고 분명한 답을 요구하다.’라는 뜻이고, ②는 ‘계산, 득실, 관계 따위를 낱알이 헤아리다.’, ④는 ‘어떤 것을 기준으로 순위, 수량 따위를 헤아리다.’의 의미이다.

### 05

정보의 질적 신뢰도는 결국 정보 제공자가 누구인가와 관련된 문제이다. 텔레비전의 정보 제공자는 비교적 전문가이거나 어느 정도 전문적인 소양을 갖춘 사람들인 반면 인터넷은 정보 제공자의 범위가 훨씬 개방적이기 때문에 누구나 정보를 생산하고 유통할 수 있다.

### 06

(가)의 2문단에서 ‘매체 자료를 수용할 때에는 다양한 관점과 가치를 고려하는 것과 더불어 비판적 태도도 갖추어야 한다.’라고 했고, (나)의 3문단에서 ‘생산자 스스로 비판적인 입장에서 어떤 영향을 끼칠지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고 했다.

**오답 피하기** ① (가)에서 매체 자료에는 생산자의 목적과 의도에 따른 다양한 관점과 가치가 담겨 있다고 하였으므로 매체 자료의 객관성을 언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② (가)에서는 매체 자료를 수용할 때의 유의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③ (나)는 매체 자료를 생산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을 설명하고 있다. ④ (나)에는 매체 자료의 신뢰성에 대한 언급이 없다.

### 07

생산자의 관점과 가치가 반드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아니므로 매체 자료를 수용할 때는 겉으로 드러나는 내용뿐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생산자의 관점과 가치를 파악해야 한다.

### 08

④, ⑥, ㉠, ㉡는 모두 ‘일, 것’의 뜻인 반면, ㉢는 ‘어떤 일을 설

명하거나 묻거나 시키거나 제안하기 위하여 그 대상과 상관되는 상황을 미리 말할 때에 쓰는 연결 어미’이다. 의존 명사는 명사이기 때문에 띄어 쓰지만, 연결 어미는 어간에 붙여 써야 한다는 점에서도 ㉣만 이질적인 것을 알 수 있다.

### 09

인터넷이나 누리 소통망은 불특정 다수가 접근할 수 있는 매체이므로 개인 정보가 유출되어 피해를 보거나, 타인의 사진을 함부로 사용할 때 법적 분쟁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10

매체 자료의 수용자에 따라 격식을 갖춘 표현을 써야 할 때도 있지만, (라)에서처럼 가족인 할머니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비격식체를 사용할 수도 있다.

### 11

‘책’은 시각 매체인 반면 ‘텔레비전’은 시청각 매체이므로 시각 자료, 청각 자료, 이 둘이 더해진 시청각 자료까지 사용할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① 책은 시간의 한계가 있는 텔레비전에 비해 비교적 정보의 양에 구애받지 않는다. ② 텔레비전은 책보다 정보 제공의 속도가 빠르다. ③, ④ 책이나 텔레비전의 정보 제공자는 전문가 내지 전문적 소양을 갖춘 사람으로 정보의 질적 측면에서는 구분하기 어렵다.

### 12

문자 메시지 보내는 과정을 시각적으로 구조화한 것은 할머니가 휴대 전화의 사용법이 익숙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용자의 연령이나 배경지식을 고려한 것이기는 하지만 성별과는 무관하다.

**오답 피하기** ① 할머니가 휴대 전화에 익숙하지 않아 휴대 전화에 대한 배경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미지를 활용한 것이다. ② 인쇄 매체는 다른 매체에 비해 휴대가 간편하다. ③ 할머니가 휴대 전화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을 알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이 매체 자료를 작성한 것이다. ⑤ 할머니와 손주의 관계이기 때문에 개인 정보를 담아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 13

[보기]의 매체 자료에서는 장애는 삶의 여정에서 누구에게라도 발생할 수 있는 일이며 장애를 갖게 되어도 삶은 계속된다는 응원의 메시지가 수용자에게 감동을 주고 공감을 불러일으키며, 이러한 메시지가 단순히 글로만 제시되지 않고 함축적인 문구와 그림, 대사를 곁들여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전달 효과와 크고 심미적 가치도 느낄 수 있게 되었다.

## 2 매체와 사회

### [1] 매체 언어와 인간관계

확인문제

본문 207~209쪽

01 ② 02 ⑤ 03 ② 04 ① 05 ② 06 ①

#### 01

매체 언어는 간접 소통이지만 즉각적 반응과 쌍방향적 소통이라는 대면 소통의 특징을 갖는다. 일방향적 소통을 강화하는 것은 아니다.

**오답피하기** ①, ⑤ 인터넷과 휴대 전화를 사용한 소통은 사람들 사이의 공간적 거리감을 줄여 주었고, 시간 차이도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게 해 주었다. ③ 매체를 사용한 의사소통으로 소통 맥락의 구분이 모호해졌다. ④ 소통 상대방 사용 상황에 따라 다양한 언어 사용 양상이 나타난다.

#### 02

인터넷 등의 매체로 인하여 비전문가도 과거의 전문가처럼 새로운 용어를 만들고 보급하는 생산자가 될 수 있다.

#### 03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의 순화어인 '누리 소통망'은 인터넷 내에서의 인맥 형성을 위해 개발되었다.

#### 04

던바의 법칙은 누리 소통망을 통해 인간관계를 경쟁적으로 확대하려는 현대인에게 적절한 인간관계의 폭을 제시하여 진정한 인간관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 성찰하게 한다.

**오답피하기** ② 던바의 법칙은 경쟁적 관계 확대를 부정한다. ③ 인간 소외의 원인과는 무관하다. ④ 인간관계의 경쟁적 확대는 일종의 자기 과시를 위한 것이고, 던바의 법칙은 이것을 경계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억제할 방법을 제시하지는 않는다. ⑤ 누리 소통망이 인맥 형성이라는 목적에서 개발된 것이므로 이것을 통해 인맥을 형성하는 것이 매체를 잘못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 05

인간관계의 폭이 넓어지는 것은 매체의 발달이 주는 장점에 속한다.

#### 06

매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역지사지'의 자세가 필요하다.

**오답피하기** ②~⑤는 모두 절친한 친구 사이를 나타내는 한자 성어이다.

### 초단원 핵심문제

본문 213~215쪽

01 ⑤ 02 ④ 03 ③ 04 ③ 05 예시 답안 자기 과시를 위해 누리 소통망을 이용하여 경쟁적으로 인맥을 확장하는 요즘의 세대에서 진정한 인간관계에 대해 성찰하게 한다. 06 ④ 07 ③ 08 ① 09 ④ 10 ① 11 예시 답안 똥글이, 멍하늘, 아무나 /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의사소통의 기본 태도를 염두에 두고 예의를 갖추어 소통해야 한다.

#### 01

누리 소통망을 통해 경쟁적으로 인간관계를 확장하려는 세대에 대해 로빈 던바의 주장은 진정한 인간관계를 맺는 데 한계가 있음을 보여 준다.

**오답피하기** ① (가)는 과거에 비해 사회 규모가 커지면서 소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매체를 활용하게 된 사회적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② (나)는 매체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소통 구조가 바뀌었음을 설명하고 있다. ③ (다)는 매체를 사용한 의사소통에 나타나는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④ (라)는 매체, 특히 인터넷이 인간관계와 사회생활에 미친 영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02

이 글에서는 인터넷 공간에서 문어와 구어를 섞어 쓰는 것을 매체를 활용한 의사소통의 특징으로 소개하고 있을 뿐, 그것의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오답피하기** ① 누리 소통망은 여러 분야, 다양한 국가의 사람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하게 함으로써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인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하였다. ② 인터넷, 특히 누리 소통망이 인간관계의 폭을 넓혀 주었다. ③ 인터넷과 휴대 전화를 사용한 소통은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고, 쌍방향적으로 이루어지므로 대면 소통과 공통점이 있다. ⑤ 사회의 규모가 커지면서 음성 언어를 사용한 직접 소통이 어려워졌고, 사람들은 효과적인 소통을 위해 매체를 활용하게 되었다.

#### 03

공간적 거리감을 줄인다는 것은 거리에 구애받지 않으면서 거리상 먼 곳에 있는 사람과 소통하거나 그곳의 뉴스를 접하는 등 공간적 제약을 초월한다는 뜻이다.

**오답피하기** ① 폭넓은 인간관계에는 공간적 의미도 포함될 수 있지만, 반드시 공간적 의미만을 나타내지는 않는다. 다양한 분야에 속한 사람들과의 인맥 형성 역시 폭넓은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②, ④, ⑤는 매체를 사용한 의사소통의 특징이다.

#### 04

㉔은 일반 대중들이 전문가들과 대등하게 전문적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는 전문가들이 유행어나 개념어들을 대중 사이에 보급하였으나, 인터넷의 발달로 개인이 사용한 표현이 널리 퍼지기도 한다는 의미이다.

**오답 피하기** ① 사회의 규모가 커지면서 음성 언어로는 의사소통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매체를 활용한 의사소통을 하게 되었다. ② 문법적 표현과 비문법적 표현이 혼재된 양상을 보인다는 의미이다. ④ 인터넷과 누리 소통망을 활용하여 인간관계가 형성되기도 한다. ⑤ 로빈 던바는 연구를 통해 진정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 한계를 150명 정도라고 주장하였다.

## 05

로빈 던바가 말하는 150명은 진정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 한계점을 의미하는 것이다. 누리 소통망에서 수천 혹은 수만 명과 인적 관계를 형성하더라도 진정하고 끈끈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 수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즉 던바의 주장은 누리 소통망을 통해 경쟁적으로 인맥을 확장하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보는 계기를 마련하게 한다.

## 06

매체가 발달하면서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을 잃어 가고 있는 현실과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역지사지의 태도를 제시하고 있다.

**오답 피하기** ① 이 글은 매체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현재의 장단점을 설명하고 있다. ② 이 글은 매체의 발전으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설명이다. ③ 매체가 발전해 온 역사적 과정을 설명한 부분은 없다. ⑤ 매체를 다른 대상과 비교한 부분은 없다

## 07

3문단에서 ‘매체를 활용한 소통도 의사소통의 한 방법’이라고 했다.

**오답 피하기** ① 매체의 발달로 인해 인간관계의 갈등이 증폭되기도 하므로 비례한다고 볼 수 없다. ② 매체의 한계는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극복할 수 있다. ④ 매체의 발달은 소통의 효율성을 높여 주었다. ⑤ 대면 소통에 불편을 느끼면서 한자리에 모여 있으면서도 각자 자신의 휴대 전화를 보는 상황에서 현대인들의 고독을 엿볼 수 있다.

## 08

현대인은 매체의 발달로 인간관계의 폭이 넓어졌지만 그 속에서 고독을 느끼고 그것에서 벗어나기 위해, 즉 타인의 관심을 받기 위해 자기 과시나 자극적인 발언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타인을 불편하게 하여 다시 고독에 빠지게 된다.

**오답 피하기** ②, ③은 매체를 활용한 의사소통에서 상대를 배려하지 않는 구체적인 모습을 예로 든 것이고, ④는 매체를 활용한 소통의 장단점을 설명하였으며, ⑤는 의사소통에 필요한 기본 태도를 말하고 있다.

## 09

④에서는 ‘줍든지’가 아니라 ‘줍던지’로 써야 한다. ‘-던지’는 막연한 의문이 있는 채로 그것을 뒤 질의 사실과 관련시키는

태 쓰는 연결 어미이다.

## 10

‘역지사지’는 ‘처지를 서로 바꾸어 생각함.’이라는 뜻으로, 자신의 마음을 미루어 타인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의미이다.

**오답 피하기** ② ‘타산지석’은 ‘다른 산의 나쁜 돌이라도 자신의 산의 옥돌을 가는데 쓸 수 있다’는 뜻으로, 본이 되지 않은 남의 말이나 행동도 자신의 지식과 인격을 수양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③ ‘교화상장’은 ‘가르치고 배우면서 서로 함께 성장함.’이라는 뜻이다. ④ ‘동병상련’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연민함.’을 뜻한다. ⑤ ‘풍수지탄’은 ‘효도를 다하지 못한 채 아버지를 여윈 자식의 슬픔’을 이르는 말이다.

## 11

똥글이, 멍하늘, 아무나는 익명성에 기대어 예의에 어긋나거나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는 발언을 하고 있다.

## [2] 대중 매체와 대중문화

확인문제

본문 217~219쪽

01 ④ 02 ④ 03 ② 04 ① 05 ③ 06 ④

## 01

과거에 특권 계층만 누릴 수 있던 문화가 대중 매체를 매개로 누구에게나 균등하게 제공되게 됨으로써 대중문화가 형성된 것이다.

**오답 피하기** 대중문화는 확산 속도가 빠르고(①), 공유되는 범위가 넓으며(②), 대량으로 생산되고 다수가 소비(③)하며, 사회적 영향력과 파급력이 크다(⑤)는 특징을 갖는다.

## 02

대중 매체는 대중의 문화 수용의 욕구를 해결하는 역할을 하였다.

**오답 피하기** 대중 매체는 문화를 누구에게나 균등하게 제공(①)하고, 문화의 범위를 확장(②)하며, 문화를 중심으로 구성원들의 사회적 관계를 넓히는 역할을 하였다.(③) 또한 사회 구성원에게 지식과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사회의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화 기관으로서의 역할(⑤)도 하게 되었다.

## 03

대중 매체는 대중문화를 수용하는 사람들을 수동적으로 만든다는 비판을 받는다.

**오답 피하기** ① 경제 권력이 대중 매체를 장악하여 대중 매체를 이윤 추구의



도구로 활용하게 되면 대중문화는 대중의 소비를 촉진하는 상업적인 내용으로 채워진다고 했다. 하지만 그러한 전제 없이 대중의 소비가 촉진되는 현상 자체로는 부정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③ 이 글에서는 대중이 유행을 따르는 것으로 대중 매체의 영향력을 설명하고 있을 뿐, 그것 자체로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에 대한 가치 판단을 내리고 있지는 않다. ④ 대중 매체가 항상 정치권력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은 아니다. 정치권력이 대중 매체를 통제하는 경우에 그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⑤ 대중이 대중 매체를 통해 정보를 쉽게 접하는 것은 대중 매체의 긍정적 기능이라 할 수 있다.

## 04

대중은 대중 매체가 보여 주는 것을 바탕으로 현실을 인식하므로 대중 매체에 대한 성찰과 비판이 있어야만 대중문화가 발전할 수 있다.

## 05

현실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중 매체와 우리는 매우 밀착된 관계에 있으므로 대중 매체와 우리가 처한 현실의 관계를 고려하면서 대중 매체가 전하는 정보를 수용할 때 주체적인 수용자가 될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① 대중 매체의 영향력을 실감하는 수준만으로는 주체적인 수용자가 될 수 없다. ② 매체가 선도하는 유행을 따르는 것은 수동적인 태도이다. ④ 매체가 제공하는 정보에 무관심한 태도는 대중 매체와 관계를 맺지 않는 것이므로 주체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 ⑤ 대중 매체의 생산자라 할지라도 매체와 현실의 관계를 성찰하지 않는다면 주체적이라고 할 수 없다.

## 06

인터넷, 스마트폰과 같은 쌍방향적 매체의 등장으로 일반 대중이 문화 생산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오답 피하기** ①~③, ⑤의 생산자는 주로 전문가 집단이다.

### 소단원 핵심문제

본문 223~224쪽

01 ② 02 ③ 03 ⑤ 04 ③ 05 ② 06 ① 07 ②

## 01

㉓는 인과, ㉔는 정의, ㉕는 분류, ㉖는 대조를 가리킨다. (가)~(다)에서 대중과 대중문화의 발생 과정을 인과적으로 서술하였고, (다)에서 대중문화를 정의하였다. 이 글에서 분류와 대조가 사용된 부분은 없다.

## 02

(라)에서는 대중문화가 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해석

과 평가를 제공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여론 형성에 기여한다고 하였다.

**오답 피하기** ① (가)에서 과학 기술의 발달로 산업 사회가 출현하였고, 이로 인해 대중 사회가 도래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② (마)에서 대중 매체의 발달로 새로운 문화 생산의 공간이 만들어졌다고 하였다. ④ (다)에서 대중문화는 다수인 대중이 소비하는 문화이므로 사회적 영향력과 파급력이 크다고 하였다. ⑤ (나)에서 산업 사회가 되면서 신분제가 해체되고, 전문화, 분업화의 영향으로 노동자들의 임금과 여가 시간이 늘면서 대중의 문화 수용 욕구가 커지게 되었다고 하였다.

## 03

(가)에서 과학 기술의 발달로 전통적 농경 사회가 산업 사회로 변화하면서 공동체적 유대 관계가 해체되었다고 하였다.

**오답 피하기** ① (나)에서 산업 사회가 도래하면서 전문화, 분업화가 되었다고 했다. ② (가)에서 사람들의 일상은 표준화된 시간표에 따라 재조직되었다고 했다. ③ (라)에서 대중 매체는 사회 구성원에게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한다고 하였다. ④ (라)에서 과거에 특권 계층만 누릴 수 있던 문화가 대중 매체를 매개로 누구에게나 균등하게 제공되었다고 하였다.

## 04

문화의 균등한 제공은 대중 매체 보급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이다.

**오답 피하기** ① 상품의 대량 생산은 공급을 늘리므로 가격을 하락시킨다. ②, ④ 전문화, 분업화로 노동자들의 임금과 여가 시간이 늘어나면서 문화 수용의 욕구를 증가시켰고, 이를 위해 대중 매체를 구입하였기 때문에 대중 매체의 보급이 가속화되었다. ⑤ 기술이 발달하면서 다양한 매체가 개발될 뿐만 아니라 대중이 쉽게 구매할 수 있는 매체가 생산되었다.

## 05

(나)에서 대중은 대중 매체의 표면에 드러나지 않은 숨은 의도와 가치를 비판적으로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따라서 ②는 '아니요'라고 대답해야 한다.

**오답 피하기** ① (다)에서 인터넷이나 스마트폰과 같은 매체의 등장으로 일반 대중도 문화 생산에 쉽게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고 했다. ③ (나)에서 '누군가가 정치적, 상업적 의도로 대중 매체를 이용'할 수 있다고 했다. ④ (가)에서 대중이 유행을 따르는 것은 대중 매체의 영향 때문이라고 했다. ⑤ (가)에서 '사람들은 대중 매체가 보여 주는 것을 바탕으로 현실을 인식한다.'라고 했다.

## 06

㉑은 자신이 주체적으로 접하는 일상이나 현실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에도 대중 매체의 의도적 영향력이 반영된 것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대중 매체의 영향력을 실감하고 비판적·성찰적으로 이해해야 함을 의미한다.

**오답 피하기** ② 개인의 관심사가 대중 매체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지, 개인의 관심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③ 대중이 대중 매체와 현실의

관계, 대중 매체의 영향력 등을 성찰할 때 대중문화가 발전할 수 있다. ④ 선별 한다는 것은 목적과 필요에 따라 가려서 수용한다는 것이지, 관심을 갖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 ⑤ 대중은 기본적으로 대중문화의 수용자이고, 소비자이다. 다만 인터넷,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소비자이면서 생산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다.

## 07

(나)에 대중 매체를 통해 전달되는 정보를 비판적으로 접근하는 자세가 제시되어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할 때 수입 과일의 가격이 하락하는 이유를 파악하는 것은 [보기]의 기사문이 전달하는 내용과는 관련이 없다.

**오답 피하기** ① 수입 과일과 국산 과일의 판매량을 조사해 보면 기사문이 공정하지, 신뢰할 수 있는지 등을 판단할 수 있다. ③ 기사가 게재된 매체와 과수 농가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면 기사문이 과수 농가의 입장만을 옹호하는지의 공정성을 판단할 수 있다. ④ 수입 과일의 가격 하락으로 다양한 과일을 소비할 수 있는 소비자의 입장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⑤ 기사문은 마치 국산 과일의 가격 하락이 수입 과일의 증가 때문인 것처럼 기술하고 있으나 상품의 가격 하락이 어느 한 가지 원인 때문인 경우는 흔치 않다. 따라서 다른 원인도 있는 것인지를 따져 보는 것은 대중 매체가 전하는 정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자세라 할 수 있다.

### 중단원 핵심 문제

본문 225~227쪽

01 ① 02 ④ 03 ① 04 ③ 05 ② 06 ④ 07 ④  
08 ① 09 ④ 10 ③ 11 예시 답안 사람들은 대중 매체가 보여 주는 것을 바탕으로 현실을 인식하는데, 대중 매체는 권력에 의해 통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

## 01

(나)에서 대중문화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 02

매체를 통한 소통의 문제점은 (가)에서 설명하고 있다.

**오답 피하기** ①, ② (가)는 매체로 인한 소통 구조의 변화, 다양한 언어 사용의 양상 등을 통해 매체를 사용한 소통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③ (나)는 과학 기술의 발달, 산업 사회의 등장으로 대중과 대중 사회가 형성되고, 이 과정에서 대중 매체가 탄생하게 되었음을 설명하고 있다. ⑤ (가)는 매체를 활용한 의사소통의 변화로 사회가 변화되었음을, (나)는 과학 기술의 발달로 대중 사회가 도래하였고, 대중 매체의 등장으로 대중과 대중문화가 형성되는 등의 사회 변화를 설명하고 있다.

## 03

인터넷은 신문, 잡지, 영화, 텔레비전과 함께 대중 매체에 속하지만, 신문, 잡지, 영화, 텔레비전은 일방향으로 소통하는 반면,

인터넷을 통한 소통은 쌍방향으로 소통이 가능하다.

**오답 피하기** ② 텔레비전은 인터넷처럼 정보의 확산 속도가 빠르다. ③ ①과 ④는 모두 대중 매체에 속한다. ④ ①과 ④는 모두 정보를 대량으로 유통한다. ⑤ 대면 소통의 특성을 갖는 것은 ①이다.

## 04

매체는 정보를 빠르게 확산시키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대중의 관심을 받는 대중의 의사 표현도 전문가의 것처럼 널리 퍼진다는 뜻이지, 대중이 전문가와 대등한 지위를 갖게 된 것은 아니다.

**오답 피하기** ① 인터넷과 휴대 전화를 통해 공간적으로 멀리 있는 사람들과도 즉시 소통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②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대화를 나누는 것은 의사소통을 하는 방법이다. ④ 비슷한 시간에 일터로 가고, 비슷한 시간에 퇴근을 하며 주말에는 쉬는 등 대중의 생활이 비슷한 패턴을 갖게 되었다는 뜻이다. ⑤ 대중 매체는 대중이 과거에 접할 수 없었던 고급문화를 접할 수 있게 하였고, 새롭게 출현한 문화를 향유할 수 있게 하였다.

## 05

(나)는 로빈 던바의 주장을 근거로 인맥을 과시하기 위해 누리소통망에서 경쟁적으로 친구의 숫자를 늘리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성찰을 요구하고 있다.

**오답 피하기** ① 누리소통망은 새로운 인맥 형성을 위해 개발되었으며, 그로 인해 시공간을 초월한 인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되었다. ③ 대중 매체의 사용에 익숙해지면서 대면 소통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로 인해 현대인들은 고독을 느끼게 된다. ④ 대중 매체는 대중에게 균등하게 문화를 제공하고, 대중의 문화 수용 욕구를 충족시켜 주었으며, 사회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여론 형성에 기여한다. ⑤ 대중 매체로 인해 문화의 범위가 확장되고, 새로운 문화 생산의 공간이 만들어졌으며, 문화적 소통도 활성화되면서 사회 구성원들의 사회적 관계를 넓혀 주었다.

## 06

(라)에서 대중 매체는 지식과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사회의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했다.

**오답 피하기** ① 과거에 특권 계층만이 누리던 문화를 대중 매체를 매개로 대중도 접할 수 있게 된 것이지, 대중문화로 인해 특권 계층과 대중이 평등해진 것은 아니다. ② 누리소통망은 형식적으로 인적 관계를 확대할 뿐이다. ③ 매체를 활용한 소통에 익숙해지면 직접적인 대면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⑤ 누리소통망을 이용한 인간관계의 수는 무제한으로 확장이 가능하다.

## 07

㉔의 연구는 끈끈하고 진정한 인간관계가 수명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 준다. 따라서 ㉔을 단순히 인맥의 확장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피하기** ① ㉔은 50명, ㉕은 150명으로 보았다. ② 누리소통망이 인적 관계의 확장을 추구하지만 ㉔가 인적 관계를 50명으로 제한한 것은 진정한 관

계를 추구하기 때문이다. ③ ④는 دنب아의 주장을 기업 경영에 적용한 사례이다. ⑤ ①과 ⑦, ④, ⑥는 모두 누리 소통망이 추구하는 인적 관계의 확장과는 반대 입장을 보인다.

## 08

(가)에서는 매체를 통한 의사소통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나)에서도 대중 매체가 수용자를 수동적으로 만드는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오답 피하기** ② (가)와 (나)는 모두 설명문으로서, 정보를 전달하는 글이므로 글쓴이의 주장이 나타났다고 보기 어렵다. ③, ④, ⑤ (가), (나)에서는 정의, 분석, 인용을 한 부분이 없다.

## 09

정치권력이 대중 매체를 통제하는 것은 자신들이 장악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이다. 이윤을 추구하는 것은 경제 권력이다.

**오답 피하기** ① 매체의 발달은 인적 관계의 형성을 쉽게 만들었다. ② (가)에서 매체를 활용한 소통으로 인한 문제점을 나열하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을 제시하고 있다. ③ (가)에서 매체의 한계는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하였다. ⑤ (나)에서 대중 문화가 만들어 낸 유행을 따르는 사람이 많아지면 개인의 개성이나 집단의 다양성은 점차 사라진다고 했다.

## 10

대중 매체에 자주 노출되는 인기 상품을 구매하는 행위(㉗), 유행을 따라 하는 행위(㉘), 지역 할당형 상점을 찾게 되는 행위(㉙)는 모두 수용자가 대중 매체의 의해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행태이다. 반면 신문에 불온하다고 소개된 집단이 어떤 집단인지, 왜 불온한지 등을 알아보는 것은 대중 매체를 주체적으로 수용하는 자세로 볼 수 있다.

## 11

대중은 매체와 밀착되어 있어 매체를 통해 현실을 인식하는데, 매체를 통제하는 권력 집단이 존재하게 되면 대중은 매체를 통제하는 집단이 원하는 대로 현실을 인식하게 된다. 그러므로 주체적인 수용자가 되기 위해서는 매체와 현실의 관계를 자각하고, 성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전달하고 정치적, 상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대중 매체를 이용하여 자신이 선택하고 재구성한 내용을 수용자에게 보여 주는 것이다. 11 ④ 12 ③

## 01

(가)에서는 몇 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그에 따라 책, 신문, 텔레비전, 인터넷 등의 매체가 갖는 특성을 설명하고 있다.

**오답 피하기** ② (가)에 매체의 특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매체가 갖는 장단점이 소개되고 있으나, 매체의 장단점에 맞는 수용자의 자세를 설명한 부분은 없다. ③ 매체에 대한 여러 견해가 소개되지 않았으므로 절충안도 제시되지 않았다. ④ 매체에 따른 표현 방법과 사례는 소개되지 않았다. ⑤ (나)에 창의적 표현이 주는 효과는 제시되어 있으나, 매체별로 활용법이 설명되지는 않았다.

## 02

정보 제공의 속도는 신문이 책보다 빠르고, 신문과 텔레비전은 모두 정보의 신뢰도가 높다. 인터넷은 정보의 변형이 다른 매체에 비해 쉽고, 책은 전문가 내지 전문가에 준하는 사람들이 정보를 제공하므로 누구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인터넷보다 정보 제공자가 제한적이다.

## 03

텔레비전은 전문가나 전문적인 소양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정보가 제공되기는 하지만 정보 제공자나 매체 생산자의 관점과 가치에 의해 정보가 선별되므로 이 점에 유의해서 정보를 수용해야 한다.

**오답 피하기** ② 인터넷은 정보의 생산자가 다양하여 신뢰도가 낮으므로 수용자는 여러 자료를 비교해 보면서 신뢰도가 높은 정보를 찾아야 한다. ③ 인터넷에는 방대한 양의 자료가 있으므로 그곳에서 자신에게 맞는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찾기 위해서는 적절한 검색어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④ 책은 '비교적 분량의 제약을 받지 않고 정보를 수용자에게 제공'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필요한 책이나 정보를 찾기 위해서는 차례를 활용하는 것이 유용하다. ⑤ 텔레비전은 동일한 내용이라도 다큐멘터리, 뉴스, 오락물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하므로 수용자에게 맞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선택해야 한다.

## 04

아무리 창의적인 표현일지라도 매체 자료의 특성에 맞지 않는다면 사용할 수 없다.

## 05

인터넷을 사용한 소통은 매체를 사이에 둔 간접적인 소통이지만, 과거의 매체와는 달리 쌍방향적 소통을 가능하게 하였다.

**오답 피하기** ① (가)에서 대중 매체는 사회 구성원에게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사회의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화 기관

### 대단원 핵심문제

본문 232~235쪽

01 ① 02 ⑤ 03 ① 04 ② 05 ② 06 ③ 07 ⑤  
08 ② 09 ④ 10 예시 답안 생산자는 자신의 관점과 가치를

으로서의 역할도 하게 되었다고 했다. ③ (가)의 내용으로 볼 때 '과거에는 특권 계층만 누릴 수 있던 문화'가 있었다. ④ (가)에서 '인터넷 공간을 활용한 새로운 형식의 예술 작품이 등장'하였다고 했다. ⑤ (나)에서 '개인적으로 한 이야기가 퍼져 나가 여론을 형성하기도 한다.'라고 했다.

## 06

대중 매체, 특히 인터넷을 이용한 누리 소통망 등을 통해 사회적 관계가 확장되고 있으나, 로빈 던바에 따르면 사람이 맺을 수 있는 인간관계의 수는 제한되어 있으므로 무분별한 관계의 확장이 진정한 인간관계를 보장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① 던바의 주장은 사회적 관계의 확장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자기 과시를 위해 무분별하게 관계를 확장해 나가는 행위를 문제 삼고 있는 것이다. ② 던바의 주장과 인간관계의 지속성과는 무관하다. ④ 사회적 관계는 대면뿐 아니라 매체를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⑤ 매체는 인간관계를 연결하는 매개로 기능한다.

## 07

현대 사회에서는 대화방에서 이루어지는 인간관계와 사회 활동이 실제 생활의 일부로, 서로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 자체를 규제할 수는 없다.

**오답 피하기** ①, ②는 대화방 이용자가 지켜야 할 인터넷 예의범절이다. ③, ④는 대화방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사회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다.

## 08

매체의 발달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게 만들었다. ②는 매체를 이용한 소통이 아니다.

**오답 피하기** ①, ④ 매체로 인해 공간을 초월하게 된 상황이다. ③, ⑤ 인간관계가 대면이 아닌 누리 소통망이라는 매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 09

매체에서 전하는 정보에는 정보 생산자의 의도가 숨겨져 있으므로 자신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재해석해야 한다.

**오답 피하기** ① (나)에서 개인의 취향이나 관심사 등은 대중 매체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 하였다. ② (가)에서 '매체 자료에도 생산자의 목적과 의도에 따른 다양한 관점과 가치가 담겨 있다.'라고 하였다. ③ (나)에서 우리의 '일상에 밀착되어 있는 대중 매체'라고 하였다. ⑤ (가)에서 '누구나 생산자가 되어 쉽게 자료를 게시할 수 있는 인터넷 환경의 매체 자료'라고 하였다.

## 10

생산자가 정보를 객관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자신이 선택하고 재구성한 내용을 수용자에게 보여 주는 것은 자신의 관점과 가치를 수용자가 받아들여게끔 유도하고 정치적, 경제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11

(A)는 '수입 과일 중량은 86만 3,663톤'이라는 객관적 근거를 통해 과일 수입이 역대 최대라는 주장의 타당성을 높이고 있다. '공정성'은 자료에 담긴 관점과 가치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자세를 말한다.

**오답 피하기** ① (A)와 (B)는 모두 표제에서 '수입 과일 전성시대'라고 하였다. ②, ③ (A)는 수입 과일의 증가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B)는 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⑤ (A)는 수입 과일의 증가로 이익을 보는 관계자 내지 소비자의 입장에서 기사를 서술한 반면 (B)는 수입 과일의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산 과일 농가의 입장에서 기사를 서술하고 있다.

## 12

(나)에서 대중 매체 자료의 생산자는 대개 대규모 조직의 전문가 집단인 반면, 수용자는 각각의 개인이라고 했다.

**오답 피하기** ① 매체를 정치적,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생산자이다. ② 생산자는 정보를 객관적으로 제시하지 않는다. ④ 주체적인 수용자는 매체가 보여 주는 정보에서 생략된 정보를 찾으려고 노력하지만, 모든 수용자가 생략된 정보를 찾아내는 것은 아니다. ⑤ 생산자는 자신의 관점에서 정보를 선별하고 만든다.

# IV

## 생활 속 언어와 매체

대단원 7월잡지

본문 239쪽

확인 문제

01 (1) ○ (2) × 02 외래어, 매체 언어생활

### 1 국어와 삶

#### [1] 국어의 규범

확인 문제

본문 243~248쪽

01 ⑤ 02 ④ 03 ④ 04 ③ 05 오늘 밤 나무 사 온다.  
06 ② 07 ② 08 ① 09 ⑤ 10 ㄱ, ㄴ, ㄷ, ㅁ, ㅂ, ㅅ, ㅇ  
11 ③ 12 ① 13 ①

01

두 개의 용언이 만나서 하나의 단어가 된 경우, 앞말이 본뜻에서 떨어진 것은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02

접미사가 붙어서 된 말은 일반적으로 널리 결합하는 접미사 ‘-이’, ‘-(으)ㄴ’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경우가 아니면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

03

‘매란없다’는 지역 방언으로서 표준어가 아니다.

04

표준어는 많은 사람들이 원활하게 의사소통하게 하기 위해 ‘두루 쓰는’이라는 조건을 사정 원칙에 담았다. ‘서울’이라는 지역을 특정한 것은 서울이 지닌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라는 상징성 때문이며, 이 역시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것이지 서울말이 다른 지역 방언보다 우월하기 때문은 아니다.

05

모든 단어는 띄어쓰는 것이 원칙이고, 띄어쓰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문장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오답 피하기** 구입 예정 물품이 ‘나무’가 아닌 ‘밤나무’라면 ‘오늘 밤나무 사 온다.’라고 적는다.

06

‘맑다’는 [막따]로 발음하지만 ‘맑고’, ‘맑게’는 [말꼬], [말께]로 발음하여 겹받침 ‘ㄹ’의 끝소리인 ‘ㄱ’이 소리 나지 않는다.

**오답 피하기** ①은 [늑찌], ③은 [밥찌], ④는 [넙똥글지], ⑤는 [넙쭈카게]와 같이 모두 발음할 때 겹받침의 끝소리가 드러난다.

07

조사 ‘의’는 [의]나 [예]로 발음할 수 있다. 첫음절 이외의 자리에 오는 ‘의’는 [의]나 [이]로 발음할 수 있다. 그러나 자음을 첫소리로 가진 음절의 ‘ㄴ’은 [ㄴ]로만 발음할 수 있다. 즉 나머지 모든 [의]로 발음될 수 있지만, ‘광희문’의 ‘희’에서의 ‘ㄴ’은 [ㄴ]로만 발음되어야 하므로 다른 것들과 발음이 같을 수 없다.

08

파열음 표기에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다.

**오답 피하기** ② 1음운 1기호가 원칙이지만, [t]와 [p]는 모두 ‘ㅍ’으로 적는다면 ‘커피숍(coffeeshop)’의 파열음 [p]는 ‘ㅂ’으로 적지만 ‘점프(jump)’의 파열음 [p]는 ‘ㅍ’로, ‘피아노(piano)’의 파열음 [p]는 ‘ㅍ’으로 적는 등 예외가 없다고 볼 수 없다. ③ 받침은 소리대로 적는다. ④ 이미 굳어진 외래어 표기는 굳이 고치기보다는 관용적 표기를 그대로 인정함으로써 언어생활에 혼란을 주지 않는다. ⑤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한글 24자모만을 사용하여 적는다.

09

된소리는 외래어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베트남어나 타이어는 된소리 표기를 인정한다.

10

외래어 표기법에서 받침은 소리 나는 대로 적지만 음절 끝소리 ‘ㄱ, ㄴ, ㄷ, ㄹ, ㅁ, ㅂ, ㅇ’ 중에서 ‘ㄷ’만큼은 ‘ㅅ’으로 적는다.

11

소리 나는 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적는 것은 한글 맞춤법의 원칙이다.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은 어법도 고려한 한글 맞춤법과 달리 소리(표준 발음)로 표기한다.

12

행정 구역 단위 앞에는 붙임표가 붙는데, 붙임표 앞뒤에서 일



어나는 음운 변화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파열음 ‘ㄱ’은 모음 앞에서 ‘g’,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 ‘k’로 적는다.

### 13

규범을 엄격하게 지키지 않더라도 상황과 맥락에 맞게 창의적으로 표현하여 의사소통 효과를 높일 수 있다. 그러나 창의적 표현을 위해서 국어의 규범을 꼭 파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소단원 핵심문제

본문 252~254쪽

- 01 ⑤ 02 ① 03 ⑤ 04 예시 답안 ‘한의사’의 ‘의’는 첫음절이 아니므로 [니]나 [리]로 발음할 수 있고, 조사로 쓰인 ‘의’는 [니]나 [리]로 발음할 수 있다. ‘희망’의 ‘니’는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리]로만 발음할 수 있다. 05 ④ 06 ④ 07 ③ 08 ④ 09 ① 10 예시 답안 고유 명사는 첫 글자를 대문자로 적는다. 된소리되기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11 ② 12 ④

### 01

형태를 밝혀 적는다는 것은 원형을 밝혀 적는 것을 뜻한다. 어간이나 어미의 형태가 바뀐 대로 적는 것은 소리 나는 대로 적는 방식을 따른 것이다.

**오답 피하기** ① (마)의 ‘뉘다’와 ‘뉘다’, ‘뉘다’와 ‘뉘게’의 발음을 보면 겹받침은 표기가 같아도 발음이 다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라)에 따르면 ‘의’가 조사일 경우에 발음이 달라질 수 있다. 이를 통해 품사를 알면 발음을 더 정확히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가)의 ‘용언’은 그 뜻을 파악하기 쉽도록 어간과 어미를 구별하여 적어야 한다. ‘의’ 어간과 어미를 구별하여 적는 것이 형태를 밝혀 적는 것을 의미한다. ④ (가)에 따르면 두 개의 용언이 만나서 하나의 단어가 된 경우, 앞말의 본뜻이 유지되는 것은 원형을 밝혀 적고 그렇지 않은 것은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원형을 밝혀 적는 것은 본뜻을 알기 쉽게 하기 위함인데 본뜻에서 멀어졌으니 원형을 밝혀 적을 이유가 없는 것이다.

### 02

‘노름’은 동사 어간 ‘놀-’에 명사화 접미사 ‘-음’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명사이지만 어간의 본뜻과 달리 ‘도박’의 의미를 띠게 되어 원형을 밝혀 적지 않고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것이다.

**오답 피하기** ② ‘길이’는 형용사 어간 ‘길-’에 널리 결합하는 명사화 접미사 ‘-이’가 붙어 만들어진 명사이기에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는 것이다. ③ ‘마감’은 동사 어간 ‘막-’에 제한적으로 결합하는 명사화 접미사 ‘-음’이 붙어 만들어진 명사이기에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지 않은 것이다. ④ ‘웃음’은 동사 어간 ‘웃-’에 널리 결합하는 명사화 접미사 ‘-음’이 결합하여 이루어진 명사이기에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는 것이다. ⑤ ‘주검’은 동사 어간 ‘죽-’에 제한적으로 결합하는 명사화 접미사 ‘-음’이 붙어 만들어진 명사이기에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지 않은 것이다.

### 03

‘이르러’는 동사 어간 ‘이르-’에 어미 ‘-어’가 결합한 말로 어미 ‘-어’가 ‘-리’로 바뀐 경우(‘리’ 불규칙)이다.

**오답 피하기** ① ‘실어’는 동사 어간 ‘실-’에 어미 ‘-어’가 결합한 말로 어간 받침 ‘ㄷ’이 ‘ㄹ’로 바뀐 경우(‘ㄷ’ 불규칙)이다. ② ‘하여’는 동사 어간 ‘하-’에 어미 ‘-아’가 결합한 말로 어미 ‘-아’가 ‘-여’로 바뀐 경우(‘여’ 불규칙)이다. ③ ‘날아’는 형용사 어간 ‘날-’에 어미 ‘-아’가 결합한 말로 어간과 어미의 형태가 그대로 유지된 경우이다. ④ ‘무거워’는 형용사 어간 ‘무겁-’에 어미 ‘-어’가 결합한 말로 어간 받침 ‘ㅂ’이 ‘우’로 바뀌고, 이것이 ‘-어’와 결합한 경우(‘ㅂ’ 불규칙)이다.

### 04

‘의’는 첫음절에서는 [니]로 발음하지만 다른 자리에서는 [리]로, 조사로 쓰일 때는 [리]로 발음할 수 있으나,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니’는 [리]로만 발음한다.

### 05

[보기]의 ‘닭’, ‘삶’을 제외한 모든 용례들은 겹받침 뒤에 자음이 이어지는데 발음할 때는 겹받침의 일부가 탈락하고 이어지는 자음이 된소리로 바뀌는 것들이다. 그런데 된소리는 예사소리가 두 번 반복되는 소리가 아니라 두 개로 나눌 수 없는 하나의 소리이다. 따라서 세 개의 소리가 유지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피하기** ① ‘뉘다’는 [막따]로, ‘엮거나’는 [얼껴나]로 소리 나므로 ‘ㄹ’은 이어지는 음운에 따라 발음이 달라짐을 알 수 있다. ② ‘뉘들글다’와 ‘뉘다’의 겹받침 ‘ㅈ’과 ‘ㅊ’은 모두 [ㅈ]으로 소리 나므로 표기는 다르지만 발음이 같음을 알 수 있다. ③ ‘흙과’와 ‘뉘고’의 겹받침 ‘ㄹ’에는 모두 ‘ㄱ’이 이어지는데, 명사에 조사가 결합한 ‘흙과’는 [흑과]로 소리 나고 용언(형용사)인 ‘뉘고’는 [뉘고]로 소리 나므로 품사에 따라 ‘ㄹ’의 소리가 달라짐을 알 수 있다. ⑤ [ㄱ, ㄴ, ㄹ]은 모두 겹받침의 끝소리이다. [ㅂ]은 ‘ㅈ’의 첫소리가 탈락하고 ‘ㅈ’이 대표음으로 소리 난 것이다.

### 06

붙임표를 쓸 때는 붙임표 앞뒤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화를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따라서 ‘Samjuk-myeon’과 같이 로마자 표기가 표준 발음 [삼중면]에 어긋나는 경우가 발생한다.

**오답 피하기** ① (가)를 통해 외래어를 우리말로 적을 때 새로운 글자를 만들지 않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한글 24자모만으로 적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② (나)를 통해 받침은 우리말 음절 끝 받침에서 나는 소리([ㄱ, ㄴ, ㄷ, ㄹ, ㅁ, ㅂ, ㅅ])를 적되, ‘ㄷ’만큼은 연음의 결과인 [슈퍼마케시, 슈퍼마케슬, 슈퍼마케스] 등을 고려하여 ‘ㅅ’으로 적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③ (라)를 통해 이미 굳어진 표기를 굳이 고치기보다는 그대로 받아들이어 언어생활에 혼란을 주지 않겠다는 생각이 담겨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⑤ (사)를 통해 파열음 ‘ㄱ, ㄷ, ㅂ’은 모음 앞에서는 ‘g, d, b’로 적고,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k, t, p’로 적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유음 또한 모음 앞에서는 ‘r’로 적고,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l'로 적는다. 즉, 같은 음운이라도 음운 환경에 따라 표기가 달라진다.

## 07

'p'의 표기가 'ㅍ', 'ㅂ', '프'와 같이 다른 이유는 하나의 음운은 하나의 기호로 적는다는 원칙에 예외가 있기 때문이다. 하나의 음운을 하나의 기호로 적는다는 것은 예를 들어 마찰음 [f]를 'ㅎ'으로 적기도 하고 'ㅍ'으로 적기도 하는 것이 아니라 'ㅍ' 하나로만 적는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파일(file)'을 '화일'과 혼동하거나 '파이팅(fighting)'을 '화이팅'과 혼동할 일이 생기지 않는다. 그러나 실제로는 2개의 음운을 1개의 기호로 적기도 하고 1개의 음운을 여러 기호로 적기도 한다. 예를 들어 '파일(file)'과 '피아노(piano)'의 [f]와 [p]는 모두 'ㅍ'으로 적는다. 그런가 하면 '커피숍(coffee shop)'의 파열음 [p]는 'ㅂ'으로 적지만, '점프(jump)'의 파열음 [p]는 '프'로, '피아노(piano)'의 파열음 [p]는 'ㅍ'으로 적는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실을 이 글에서 언급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③은 이 글로는 해결할 수 없는 질문이다.

**오답 피하기** ① 외래어 표기법의 받침 표기에 관한 것으로 (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② 외래어 표기법의 된소리 표기에 관한 것으로 (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④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의 거센소리되기에 관한 것으로 (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⑤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의 된소리되기에 관한 것으로 (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08

'thrill'의 'th' 발음에 해당하는 국어의 음운이 없지만 (가)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새로운 글자를 만들지 않고 현용 24자모 중 하나인 'ㅅ'으로 적은 것은 적절하다.

**오답 피하기** ① (다)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된소리를 표기에 반영하지 않지만 (라)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gum'은 관용을 존중하여 '검'으로 표기한다. ② (나)를 참고할 때 'rocket'은 [로케시], [로케슬]처럼 발음되므로 '로켓'으로 표기한다. ③ 'tobacco'는 (라)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관용을 존중하여 '담배'로 표기한다. ⑤ (가)에 따르면 'f'는 'ㅍ'으로 통일하였으므로 'frypan'은 '프라이팬'으로 표기한다.

## 09

붙임표는 발음이 혼동될 우려가 있을 때 음절 사이에 넣는다. '반구대'는 'Bangudae'로 적을 경우에 '방우대'로 읽힐 우려가 있으므로 붙임표를 넣어 'Ban-gudae'로 적을 필요가 있다. 나머지 표기들은 발음이 혼동될 우려가 없다.

## 10

'합정'과 '팔당'은 모두 지명으로서 고유 명사이므로 첫 글자

를 대문자 'H'와 'P'로 표기했으며, '합정'은 [합쟁], '팔당'은 [팔땅]으로 소리 나지만 된소리되기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아 [ㅈ]이나 [ㄷ]을 반영하지 않고 'j', 'd'로 표기했다.

## 11

'맨날', '짜장면', '이쁘다'는 최근 복수 표준어로 새롭게 인정된 단어들이다.

**오답 피하기** ① 어퍼지면 → 엮어지면 ③ 화일 → 파일 ④ 짜즈 카페 → 재즈 카페, 같은 → 간 ⑤ 미끌어질 → 미끄러질

## 12

된소리되기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고 했으므로 '곡성군'은 [곡쎡군]으로 발음되더라도 'Gokseong-gun'으로 써야 한다.

## [2] 국어 생활의 성찰

### 확인문제

본문 256~257쪽

01 ① 02 ③ 03 가상 공간 04 ② 05 욕설

## 01

(가)에서 '대화 상대와 잘 소통하기 위해' 국어 생활이 어떠한지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 02

'오나전'은 '완전'의 오타로 인해 만들어진 신조어로 줄임말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답 피하기** ① '버스 카드 충전'의 줄임말이다. ② '생일 선물'의 줄임말이다. ④ '학생 주임(예전예, 학생의 훈육을 주관하는 교사를 이르던 말)'의 줄임말이다. ⑤ '안구에 습기 차다(눈물이 난다)'의 줄임말이다.

## 03

컴퓨터에 의하여 현실이 아닌 허상으로 만들어진 공간을 일컬어 '가상 공간'이라고 한다.

## 04

상대방의 감정에 공감을 나타내는 것은 올바른 국어 생활을 위해 바람직한 자세이다.

**오답 피하기** ①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비난하는 경우, ③ 친근감을 표현하기 위해 욕설을 하는 경우, ④ 자신의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 위해 비속어를 쓰는 경우, ⑤ 대화를 하는 상대방이나 발화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는 모두

국어 생활에서 성찰이 필요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 05

‘욕설’은 남의 인격을 무시하는 모욕적인 말로, 특히 청소년들이 평소에 습관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 소단원 핵심문제

본문 261~262쪽

01 ④ 02 ④ 03 ④ 04 예시 답안 상대방이 신조어의 뜻을 잘 알고 있고, 발화자와 가까운 사이여야 한다. 05 ① 06 ⑤ 07 ④ 08 예시 답안 학교에서 긴장감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이다.

## 01

(나)에서 청소년들은 가상 공간에서 친구들과 소통할 때 만들어 낸 줄임말을 일상생활에서도 사용한다고 하였다.

오답 피하기 ① ‘ㅇㅋ’와 같이 초성의 음운만으로 줄임말을 만들기도 한다. ② ‘극혐(극도로 혐오하다.)’과 같이, 딸은 아빠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말을 하고 있다. ③ 상대방과의 소통을 위해서는 국어 생활의 성찰이 필요하다. ⑤ 아빠는 ‘생선(생일 선물)’이나 ‘버카충(버스 카드 충전)’과 같은 줄임말의 의미를 몰라 엄마와 딸의 대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 02

[보기]에서 인터넷과 같은 가상 공간에서 사용되는 특유한 언어적 표현들도 사회 방언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하였다.

오답 피하기 ①, ②, ③ [보기]에서 화자의 연령이나 세대, 성별, 사회 계층 등에 따라 사용하는 말이 달라지기도 하는데, 이러한 사회적 요인에 따라 분화된 것을 사회 방언이라고 한다고 하였다. 딸이 사용한 줄임말이나 신조어 등은 세대에 따라 분화된 사회 방언으로서 딸과 다른 세대인 아빠가 이를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보기]에서 다양한 사회 방언을 이해하는 것 역시 한 사회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 간의 효율적인 의사소통과 상호 협력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으므로 아빠가 딸의 말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은 사회 구성원 간의 상호 협력에 도움이 되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 03

‘갯영화’는 ‘갯(god의 의미)-’을 접두사로 활용하여 만들어진 신조어로서 ‘최고의 영화’라는 뜻으로 쓰이는 신조어이다.

오답 피하기 ① ‘광탈(광속 탈락)’, ② ‘취존(취향 존중)’, ③ ‘갑분싸(갑자기 분위기 싸 해짐)’, ⑤ ‘지못미(지켜 주지 못해 미안해)’ 등은 모두 줄임말을 통해 신조어를 만든 사례에 해당한다.

## 04

(다)에서 신조어는 그 뜻을 알고 있는 가까운 사이에서는 친밀감을 높이고 유대감을 형성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신조어는 상대방이 신조어의 뜻을 잘 알고 있고, 발화자와 가까운 사이일 때 사용할 수 있다.

## 05

(가)의 ‘친구들 사이에서 친근감을 표현하기 위해, 또는 자신의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 위해’에서 욕설을 사용하는 이유가 드러나고, (나)에 제시된 토론은 청소년 욕설의 원인에 대한 것이다.

오답 피하기 ②, ④ (가)와 (나) 모두와 관련이 없다. ③ (가)에만 드러나 있다. ⑤ (나)에만 드러나 있다.

## 06

(나)로 볼 때 관심과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구가 클수록 욕설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⑤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 피하기 ① (가)를 보면, ‘친구들 사이에서 친근함을 표현하기 위해’ 욕설을 사용한다. ② (나)를 보면, 청소년이 욕설을 하는 원인을 ‘청소년학, 심리학, 사회학’의 관점에서 다각도로 접근하고 있다. ③ (가)를 보면, ‘우리 모두 배려하고 존중하는 대화 습관을 기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제시되어 있다. ④ (가)를 보면, ‘자신이 사용하는 욕설이 구체적으로 어떤 뜻을 지니고 있는지 알지 못한 채’ 욕설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 07

(가)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욕설이 구체적으로 어떤 뜻을 지니고 있는지 알지 못한 채 습관적으로 욕설을 사용하고, 심지어 그것이 욕설인 줄 모르는 경우도 있다.’라고 한 것으로 보아, 욕설의 구체적인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면 욕설의 사용을 줄일 수 있을 것임을 알 수 있다.

## 08

(나)의 ‘사회학의 관점’에서는 ‘학교에서 받는 긴장감과 스트레스가 청소년의 욕설 사용을 부추기는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 중단원 핵심문제

본문 263~265쪽

01 ④ 02 ④ 03 ② 04 ④ 05 예시 답안 작은어머니.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인데, [보기]의 설명으로 볼 때 아버지 동생의 아내를 이르는 말인 ‘작은어머니’는 한 단

어이므로 ‘작은 어머니’와 같이 띄어 쓰지 않고 ‘작은어머니’와 같이 붙여 써야 한다. 06 ③ 07 ④ 08 ② 09 ③ 10 ⑤ 11 올바른 국어 생활을 위해 자신의 국어 생활을 성찰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대화 습관을 길러야 한다.

## 01

밥알(밥+알)은 합성어이고 [바발]로 소리 나지만, 어법에 맞도록 ‘밥알’로 표기하므로 D에 해당한다.

**오답 피하기** ① 낫잡(낫+잡)은 합성어이고 [남짹]으로 소리 나지만, 어법에 맞도록 ‘낫잡’으로 표기하므로 D에 해당한다. ② 놀이(놀+--이)는 파생어이고 [노리]로 소리 나지만, 어법에 맞도록 ‘놀이’로 표기하므로 C에 해당한다. ③ 지붕(집+--붕)은 파생어이고 [지붕]이라고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하므로 A에 해당한다. ⑤ 사랑니(사랑+이)는 합성어이고 [사랑니]라고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하므로 B에 해당한다.

## 02

‘ㄱ’과 ‘ㅣ’는 서로 다른 단모음이기 때문에, 서로 다르게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비치다[비치다]’와 ‘비취다[비취다]’의 발음은 각각 다르다.

**오답 피하기** ① ‘ㅈ’과 ‘ㅉ’는 서로 다른 단모음이기 때문에, 서로 다르게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내[내]’와 ‘네[네]’를 동일하게 발음하는 것은 표준 발음이 아니다. ② (라)에서 단모음 ‘ㅈ, ㅉ’는 이중 모음으로 발음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하였고, [보기]에서 ‘ㅈ’는 이중 모음으로 발음하면 [네]와 같아진다고 하였다. 따라서 ‘참외’를 [차웨](연음)로 발음하는 것은 표준 발음이다. ③ (라)에서 용언의 활용형에 나타나는 ‘처’는 단모음으로 발음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고쳐’는 [고쳐]로 발음하는 것이 표준 발음이다. ⑤ (라)에서 ‘의’가 첫 음절이 아닌 다른 자리에 올 때는 [ㅣ]로 발음할 수 있고, 조사로 쓰일 때는 [ㅣ]로 발음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민주주의의’를 [민주주이에]로 발음하는 것은 표준 발음이다.

## 03

‘맑다’의 ‘ㄹ’ 받침은 ‘ㄱ’ 앞에서 [ㄹ]로 발음하므로, (ㄴ)의 ‘맑구나’의 발음은 [말꾸나]가 되어야 맞다. ‘부피나 분량 따위가 본디보다 커지거나 길어지거나 많아지다.’를 뜻하는 ‘늘어나다’는 ‘늘다’와 ‘나다’ 두 용언이 만나서 하나의 단어가 된 경우인데 앞말의 본뜻이 유지되고 있으므로, (ㄷ)의 ‘느러진’은 ‘늘어진’이 되어야 맞다.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널리 밝혀지다.’를 뜻하는 ‘드러나다’는 ‘들다’와 ‘나다’ 두 용언이 만나서 하나의 단어가 되었지만 앞말이 그 본뜻에서 떨어진 경우이므로, (ㄹ)의 ‘들어나다’는 ‘드러나자’가 되어야 맞다.

**오답 피하기** (ㄱ) ‘쓰러지다’는 ‘쓸다’와 ‘지다’ 두 용언이 만나서 하나의 단어가 되었으나 앞말이 본뜻에서 떨어져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뵈-’은 자음 앞에서 [ㅂ:]으로 발음한다. (ㄷ) ‘넋죽하다’는 [넙쭈카다]로 발음된다. ‘넘어지다’는 ‘넘다’와 ‘지다’ 두 용언이 만나서 하나의 단어가 되었는데 앞말의 본뜻이 유지되고 있으므로 그 원형을 밝혀 적는다.

## 04

‘갈다’의 어간 ‘갈-’은 관형사형 어미 ‘-ㄴ’과 결합하는 활용을 하면서 어간의 ‘ㄹ’이 탈락하며 형태가 바뀌게 되므로 ‘간’으로 적는 것이다.

## 05

아버지 동생의 아내를 가리키는 말은 ‘작은어머니’이다. 띄어 쓰기는 단어별로 이루어지는데, ‘작은어머니’는 합성어로서 한 단어에 해당하므로 띄어 쓰지 않고 붙여 쓴다. ‘작은 어머니’와 같이 띄어 쓰면 ‘키가 작은 어머니’와 같은 의미로 읽힌다.

## 06

‘coffee shop’은 받침을 소리대로 적어 ‘커피숍’으로 표기한다.

## 07

④는 ‘목호’를 ‘Mukho’로 적는다는 예가 제시되어야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다.

**오답 피하기** ① [보기]의 모든 예는 지명으로서 고유 명사에 해당하므로 첫 글자를 대문자로 적었다. ② ‘울산’의 표기를 예로 들어 설명할 수 있다. ③ ‘종로’의 표기를 예로 들어 설명할 수 있다. ⑤ ‘해운대’와 ‘삼죽면’의 표기를 예로 들어 설명할 수 있다.

## 08

‘김밥’의 받침 ‘ㅂ’은 ‘p’로 적어야 하므로 ‘gimbab’이 아닌 ‘gimbap’이 옳은 표기이다.

## 09

(가)에서 대화 상대와 잘 소통하려면 자신의 국어 생활이 어떠한지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 10

㉔의 ‘타임푸어’는 외국어(영어)로 된 합성어로, ‘시간에 쫓기는 사람’을 뜻한다.

**오답 피하기** ① ‘각이야’는 ‘~ 듯한 느낌이야’, ② ‘혼밥’은 ‘혼자 먹는 밥 또는 그런 행위’, ③ ‘솔직하게 까놓고 말해서’의 준말로, ‘솔직하게 말해서’라는 뜻이다. ④ ‘핵사이다’는 사이다를 마셨을 때 느껴지는 청량감을 ‘속 시원하다’는 의미로 연상하여 쓰는 말로, ‘마음이 개운해진다’라는 뜻이다.

## 11

(다)의 주제는 올바른 국어 생활을 위한 바람직한 자세 또는 습관과 관련된다.

## 2 매체와 삶

### [1] 매체 언어생활의 성찰

확인문제

본문 269~270쪽

01 ④ 02 명예 훼손 03 ② 04 초상권

01

타인과 다른 의견을 격식에 맞게 표현하는 행위는 폭력 행위가 아니다.

02

‘명예 훼손’은 이름이나 신분, 사회적 지위, 인격 등에 해를 끼쳐 손해를 입히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비방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게재하는 행위도 명예 훼손이라 볼 수 있다.

03

출처를 밝히고 사용 동의를 받은 경우는 권리 침해의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다.

04

자기의 초상이 허가 없이 촬영되거나 또는 공표되지 않을 권리를 일컬어 ‘초상권’이라 한다.

소단원 핵심문제

본문 275~276쪽

01 ③ 02 ② 03 ③ 04 예시 답안 의사소통에 익명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고, 참여자들끼리 직접 얼굴을 맞대지 않기 때문이다. 05 ② 06 ① 07 ③ 08 예시 답안 소통의 규칙과 예절을 잘 인지하고, 윤리적 태도를 갖추어 다른 사람의 인격과 권리를 존중한다.

01

이 글은 매체 언어생활에서의 성찰과 윤리적 태도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02

(가)에서 ‘매체 언어의 수용자이며 생산자인 우리는’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즉 오늘날 우리는 매체 언어의 수용자이자 동시에 생산자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매체 언어의 수용자와 생산

자가 구분된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피하기** ① (가)에서 ‘매체의 사용이 일반화된 현대 사회’라고 언급하고 있다. ③ (가)에서 ‘현대 사회에서 매체 언어는 자기표현과 의사소통의 수단으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④ (나)에서 ‘공적인 상황인지 사적인 상황인지 등을 판단하여 그에 알맞은 예의와 격식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⑤ (나)에서 ‘편견을 조장하거나 차별적 인식을 심어 주는 등 사회와 문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내용을 전파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 감정을 조장하거나 성차별을 부추기는 것과 같이 사회와 문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내용은 전파하지 않아야 한다.

03

상대방이 말한 내용(가수 ○○○과 영화배우 □□□이 사귀다는 소문)에 대한 정보의 출처를 묻는 행위는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위해 필요한 행위로, [보기]의 문맥을 고려할 때 상대방(B)의 말을 믿지 못하여 공격적으로 말하는 것이라 보기 어렵다.

**오답 피하기** ① 사진작가가 찍은 사진을 올리는 행위는 허락 없이 다른 사람의 창작물을 공유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②, ④ B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가수 ○○○과 영화배우 □□□이 사귀다는 소문)을 함부로 말하고 있고, A는 그 사실을 SNS를 통해 퍼뜨리려 하고 있다. ⑤ ‘잠이나 자라’라는 표현은 상대방의 인격을 무시하는 공격적인 표현에 해당한다.

04

(다)에서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에는 익명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고, 참여자들끼리 직접 얼굴을 맞대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을 함부로 대하거나 명예 훼손, 모욕 등의 폭력을 가하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05

(가)에는 ‘명예 훼손, 모욕 행위, 수치심을 주는 행위, 공포와 불안을 느끼게 하는 행위 등’과 같이 폭력 행위에 해당하는 다양한 사례가 열거되어 있다.

06

ㄱ. A는 교통 법규 위반 장면이 재판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에, B가 교통 법규 등을 위반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여 재판부에 참고 자료로 제출하였다. ㄴ. 검찰은 A를 개인 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별도로 기소하였다. 이는 A가 제출한 영상이 개인 정보 보호법 보호 대상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오답 피하기** ㄷ. 재판부는 A가 제출한 영상이 개인 정보 보호법을 어긴 것으로 판단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이 판결은 B가 항소한 사건과는 관련이 없다. ㄹ. 이름, 연락처, 주소와 같은 개인 정보는 공개하는 것 자체가 개



인 정보 유출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 07

사진이나 그림, 글 등 다른 사람의 창작물을 허락 없이 무분별하게 인용하거나 임의로 내용을 변경하여 재사용하는 것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오답 피하기** ① '명예 훼손'은 이름이나 신분, 사회적 지위, 인격 등에 해를 끼쳐 손해를 입히는 것을 뜻한다. ② '모욕 행위'는 사람을 깔보고 욕되게 하는 행위를 뜻한다. ④ '초상권 침해'는 개인의 초상이 허가 없이 촬영되거나 또는 공표되지 않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뜻한다. ⑤ '개인 정보 유출'은 개인의 신체, 재산, 사회적 지위, 신분 등에 관해 알 수 있는 정보를 불법적으로 유통시키는 것을 말한다.

## 08

(다)에서 '소통의 규칙과 예절을 잘 인지하고, 윤리적 태도를 갖추어 다른 사람의 인격과 권리를 존중한다면 매체 언어생활은 건전한 공동체를 형성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 [2] 매체 문화의 발전

### 확인 문제

본문 278~280쪽

- 01 ④ 02 재스민 혁명 03 ④ 04 집단 사고 05 ③  
06 1인 미디어

## 01

불확실한 정보가 매체를 통해 확산되는 것은 매체 문화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볼 수 있다.

## 02

(나), (다)에 재스민 혁명의 발발 과정과 의의가 드러나 있다.

## 03

(라)에서 '집단 지성은 다양한 의견을 가진 개인들이 협력하고 경쟁하면서 공동의 지적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일'이라고 한 것으로 볼 때, 집단 지성이 실현되려면 다양한 개인들이 협력하는 과정에서 경쟁이 필요하다. 만약 협력하는 과정에서 개인들의 경쟁을 막게 되면 집단 사고에 빠질 위험이 있다.

## 04

집단 지성의 순기능을 맹신할 경우 빠지는 오류인 '집단 사고'

에 대한 설명이다.

## 05

사실 관계가 확인되더라도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내용을 여과 없이 제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06

'1인 미디어'란 개인이 매체 자료를 기획하여 제작하고 유통시키는 것을 말한다.

### 초단원 핵심문제

본문 284~285쪽

- 01 ⑤ 02 ② 03 ④ 04 ① 05 예시 답안 정보와 지식을 쉽게 공유하고, 지식의 폭을 넓혀 나갈 수 있게 되었다. 06 ① 07 ④ 08 ④ 09 예시 답안 개인이 매체 자료를 기획하여 제작하고 유통시키는 것이다.

## 01

집단 지성의 역사적 변천 과정과 관련된 설명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오답 피하기** ① (다)를 보면, 프랑스의 미디어 철학자 피에르 레비(Pierre Levy)의 견해를 인용하고 있다. ② (나)를 보면, 집단 지성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③ (나), (다)로 볼 때, '집단 지성'은 합리적인 의사 결정에 도달할 가능성을 높이고, 많은 사람들이 정보와 지식을 쉽게 공유하며, 지식의 폭을 넓혀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집단 사고의 오류에 빠질 수 있는 단점도 있다. ④ (다)를 보면, 집단 지성이 적용된 사례로 '사용자 참여형 온라인 백과사전'을 들고 있다.

## 02

(가)에 매체의 발달을 가능하게 했던 요인으로 기술의 발달이 언급되어 있을 뿐, 매체의 발달을 저해하는 요인에 대한 언급은 없다.

**오답 피하기** ① (나)를 보면, 의사소통 범위의 확장, 여론 형성, 집단 지성의 발현과 같이 매체의 발달이 끼친 영향이 언급되어 있다. ③ (나)를 보면, 집단 지성의 실현에 매체의 발달이 중요한 도구였음을 알 수 있다. ④ (다)를 보면, 사용자 참여형 온라인 백과사전은 다양한 방면의 지식이 방대하게 수록되고, 그 내용이 끊임없이 갱신되는 특징이 있다. ⑤ (나)를 보면, 집단 지성이 실현되면 여러 번의 확인과 수정, 검증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합리적인 의사 결정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 03

①은 완전한 지식은 특정 개인이 아니라 다수를 통해 이루어

진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나보다는 우리가 더 뛰어난 결과를 만든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①, ② ①의 의미를 포괄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특정 부분의 의미만 드러내고 있다. ③ 완전한 지식이 인류에 퍼져 있다는 말은 완전한 지식이 존재한다는 의미이다. ⑤ 인류에 퍼져 있는 지식을 모으기 위해서 집단 지성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즉, ①은 집단 지성의 필요성을 독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집단 지성을 실현하기 어렵다는 것을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 04

나머지는 일치된 생각과 결론에 도달하려는 집단의 모습으로서 집단 사고의 경향을 지닌다. 집단 사고에 빠지기 쉬운 조직은 의사 결정을 할 때에 다수의 의견이 무조건 옳다는 논리로 소수의 의견을 억압하거나, 반대 의견을 묵살하고 만장일치를 이끌어 내려는 경향이 짙은데, ①은 오히려 이러한 집단 사고를 예방하려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

## 05

‘사용자 참여형 온라인 백과사전’은 누구나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과 정보를 등록할 수 있으며, 기존에 등록된 지식과 정보를 수정하거나 보완할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작성한 다방면의 지식이 방대하게 수록되어 있고, 그 내용이 끊임없이 갱신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정보와 지식을 쉽게 공유하고, 지식의 폭을 넓혀 나갈 수 있게 되었다.

## 06

(다)를 보면, 매체 자료의 저작권을 보호하는 일은 생산자가 아니라 수용자가 해야 하는 일이다.

**오답 피하기** ② (가)를 보면, 새로운 매체 환경의 변화로 1인 미디어 시대가 열렸음을 알 수 있다. ③ (나)를 보면, 1인 미디어는 문자나 이미지 위주의 매체 자료를 주로 생산하며 활성화되었다가, 오디오나 동영상을 다루는 1인 방송의 형식으로 바뀌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④ (나)를 보면, 1인 미디어의 문제점으로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내용이 여과 없이 제공되는 것을 들고 있다. ⑤ (가)를 보면, 블로그(게임 블로그)를 통해 정보(게임 정보)를 검색하고 그 정보를 활용하면 1인 미디어를 경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 07

1인 미디어는 참여적이고 개방적인 매체 환경을 구현하고 있다. 따라서 다수보다 소수를 지향하는 성향으로 폐쇄적인 매체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피하기** ① 개인의 취향에 맞는 다양한 소재를 다루는 것은 ‘소재의 다양성’에 해당한다. ② 수용자의 반응에 즉각적으로 피드백을 함으로써 친밀감을 높여 주는 것은 ‘생산자와 수용자 간의 친밀감을 높여 주는 쌍방향 통신’과 관련이 있다. ③ 접근성이 편리하고 전달력이 빨라서 대중의 소통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은 ‘빠른 전달력’과 ‘대중의 소통 욕구 충족’과 관련이 있다. ⑤ 최근

에는 제작과 편집, 유통이 수월해지면서 오디오나 동영상을 다루는 1인 방송의 형식도 띠고 있다.

## 08

‘왜곡되다’는 ‘사실과 다르게 해석하거나 그릇되게 되다’라는 의미로, ‘조작되다(어떤 일이 사실인 듯이 꾸며져 만들어지다)’와 유의어 관계이다.

**오답 피하기** ① ‘몇 가지 부분이나 요소들이 모여 일정한 전체가 짜여 이루어지다’를 뜻한다. ② ‘손실 이전의 상태로 회복되다’를 뜻한다. ③ ‘새로 만들어져 정해지다’를 뜻한다. ⑤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 더 심해지도록 부추겨지다’를 뜻한다.

## 09

(가)를 보면, ‘1인 미디어’란 개인이 매체 자료를 기획하여 제작하고 유통시키는 것을 뜻한다.

### 중단원 핵심문제

본문 286~287쪽

01 ④ 02 ① 03 예시 답안 다른 사람의 사진이나 영상을 동의 없이 올린다. 04 ③ 05 ③ 06 ④ 07 예시 답안 쌍방향 소통을 전제로 하는 매체 환경이 토대가 되었다.

## 01

(라)의 핵심 내용은 다른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다양한 사례이다.

## 02

[보기 2]를 보면, 저작자와 출처 등을 표시하면(저작자 표시에 해당함.) 저작물의 변경이나 2차적 저작물의 작성을 포함하여 자유 이용을 허락한다(2차 변경 금지에 해당하지 않음.). 그리고 영리적 이용은 허락하지 않고(비영리에 해당함.), 동일 조건 변경에 대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동일 조건 변경에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저작권 표기 시에 ‘저작자 표시’와 ‘비영리’를 반영하면 된다.

## 03

(라)를 보면, ‘다른 사람의 사진이나 영상을 동의 없이 올리는 경우’는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

## 04

(다)를 보면, 캐스민 혁명이 일어난 계기로, ‘집권층의 부정부

패, 높은 실업률, 물가 상승, 청년의 죽음, 반정부 시위' 등을 언급하고 있다.

**오답 피하기** ① (가)에서는 기술의 발달에 따른 매체 문화의 발전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② (나)에서는 매체를 기반으로 하여 여론이 형성되고 널리 퍼진 사례로 '재스민 혁명'을 들고 있다. 하지만 재스민 혁명에 대한 개념 정의는 제시되지 않았다. ④ (라)에서는 피에르 레비의 견해를 인용하여 글을 전개하고 있다. 그리고 집단 지성이 적용된 사례로 '사용자 참여형 온라인 백과사전'을 들고 있다. 하지만 '사용자 참여형 온라인 백과사전'의 사례를 분석하지는 않았다. ⑤ (마)에서는 집단 지성과 집단 사고의 차이점을 대조한 것이 아니라, 집단 지성을 맹신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 05

사용자 참여형 온라인 국어사전은 누구나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과 정보를 등록할 수 있고, 기존에 등록된 지식과 정보를 수정하거나 보완할 수 있다. 즉, 정보가 끊임없이 갱신되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다양한 지식이 수록되어 있어서 정보 갱신이 쉽지 않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06

'선견지명(先見之明)'은 '앞을 내다보는 안목이 있다'라는 뜻으로, ㉠의 상황에 어울린다.

**오답 피하기** ① 칼을 강물에 떨어뜨리자 뱃전에 그 자리를 표시했다가 나중에 그 칼을 찾으러 간다는 뜻으로, 판단력이 둔하고 융통성이 없고 세상일에 어둡고 어리석다는 뜻이다. ② 눈을 비비고 다시 보며 상대를 대한다는 의미로, 다른 사람의 학식이나 업적이 크게 진보한 것을 뜻한다. ③ 고무래를 보고도 그것이 고무래 정(丁)자인 줄 모른다는 의미로, 글자를 전혀 모르거나 또는 그런 사람을 비유해 이르는 말이다. ⑤ 자기가 자기를 망치게 한다는 뜻으로, 자기의 언행으로 인하여 자신이 꼼짝 못하게 되는 일을 의미한다.

## 07

(가)를 보면, ④와 ⑥의 실현이 가능할 수 있었던 배경은 쌍방향 소통을 전제로 하는 매체 환경이 토대가 되었기 때문이다. 즉, 기술의 발달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매체들은 쌍방향 소통을 전제로 하여 재스민 혁명(누리 소통망을 통한 쌍방향 소통)이나 사용자 참여형 온라인 백과사전(쌍방향 소통을 통한 집단 지성의 실현)과 같은 일이 가능하도록 기능하였다.

### 대단원 핵심문제

본문 292~295쪽

01 ㉠ 02 ㉡ 03 ㉢ 04 ㉣ 05 ㉤ 06 ㉥ 07

**예시 답안** ㉠, ㉡, ㉢은 어법에 맞도록 적은 것이고, ㉣, ㉤은 소리

대로 적은 것이다. 08 ㉣ 09 ㉠ 10 ㉣ 11 **예시 답안** 매체 언어는 자기표현과 의사소통의 수단으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12 ㉤ 13 ㉤ 14 ㉡ 15 **예시 답안** 매체 환경이 인터넷과 이동 통신 기기 중심으로 발전하였기 때문이다.

## 01

(나)를 보면, 우리말로 존재하지 않는 소리들을 우리말로 적기 위해 새로운 글자를 만들지는 않는다고 제시되어 있다.

**오답 피하기** ① (다)를 보면, 외래어의 받침은 소리대로 적는 것이 원칙이다. ② (라)를 보면, 베트남어나 타이어는 된소리 표기를 인정한다. ③ (가)를 보면, '맨날, 복숭아뼈, 짜장면, 이쁘다'와 같은 단어들은 사람들이 '두루 쓰는' 말이기 때문에 복수 표준어로 인정을 받았다. ④ (나)를 보면, 외래어의 한 음운은 하나의 기호로 적는다는 원칙을 정하였다.

## 02

(다)를 보면, [ㄷ]만큼은 '인터넷'처럼 'ㅅ'으로 적는다. 'racket'의 경우도 t가 [ㄷ]이기 때문에 표기를 할 때는 'ㅅ'으로 적어야 한다. 따라서 '라켓'이 아니라 '라켓'으로 표기해야 한다.

**오답 피하기** ①, ③ 파열음 표기에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씨비스'가 아니라 '서비스'로, '빠스'가 아니라 '버스'로 표기해야 한다. ② 우리말에는 [f]와 같은 소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소리를 우리말로 적기 위해 새로운 글자를 만들지는 않는다. 그래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한글 24자모만을 사용하여 [f]는 'ㅍ'로 적기 때문에, 'fantasy'는 '환타지'가 아니라 '판타지'로 표기해야 한다. ⑤ 받침은 소리대로 적기 때문에 우리말 음절 끝 받침에서 나는 소리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ㅇ] 일곱 개이므로, '케첩'이 아니라 '케첩'으로 표기해야 한다.

## 03

(다)를 보면, 'supermarket'은 '슈퍼마켓'이 아니라 '슈퍼마켓'이라 표기한다. 즉, 'super'는 '슈퍼'가 아니라 '슈퍼'로 표기해야 한다.

**오답 피하기** ① 'gum'을 '껌'으로, ② 'net'을 '네트'로, ③ 'mania'를 '마니아'로, ④ 'scout'을 '스카우트'로 표기하는 것은 모두 이미 굳어진 외래어 관용을 존중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 04

첫음절의 '의'는 항상 [ㅡ]로만 발음해야 하므로 [의사소통]이 아니라 [의사소통]으로 발음해야 한다.

**오답 피하기** ② 조사 '의'는 [ㅡ] 또는 [ㅣ]로 발음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용언의 활용형에 나타나는 '저, 찌, 처'는 단모음으로 발음하므로 적절하다. ④, ⑤ 단모음 'ㅟ'는 이중 모음으로 발음하는 것을 허용하므로 [외래어], [웨래어] 두 가지로 발음할 수 있다.

## 05

(다)를 보면, 체언에서 일어나는 거센소리되기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고 ‘ㅎ’을 밝혀 적는다. 그러나 어간과 어미 사이에서 일어나는 거센소리되기는 체언에서 일어나는 거센소리되기가 아니기 때문에, 거센소리되기를 표기에 반영해야 한다. (나)를 보면, 어간과 어미의 결합인 ‘종고[조코]’를 ‘joko’와 같이 거센소리되기를 반영하여 표기하였다.

**오답 피하기** ① (다)를 보면, 고유 명사의 첫 글자는 대문자로 적는다. ② (라)를 보면, 발음이 혼동될 우려가 있을 때 붙임표를 쓸 수 있다. ④ (나)를 보면, 소리 나는 대로 적으면 외국인들이 수월하게 한국인과 소통할 수 있다. ⑤ (마)를 보면, 행정 구역 단위를 표기할 때는 붙임표 앞뒤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화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 06

‘동래구’는 지명(고유 명사)이므로 첫 글자를 대문자로 시작하였고,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는 원칙 때문에 비음화가 반영된 ‘Dongnae’로 표기하였으며, 행정 구역 단위(구) 표기이기 때문에 붙임표를 붙여서 ‘Dongnae-gu’로 표기해야 한다.

**오답 피하기** ① (바)를 보면, ‘ㄱ’은 모음 앞에서는 ‘g’로 표기해야 한다. 따라서 ‘가락’은 ‘karak’이 아니라 ‘garak’으로 표기한다. ② (다)를 보면, 된소리되기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얹집’은 ‘apjip’이 아니라 ‘apjip’으로 표기한다. ③ (다)를 보면 고유 명사의 첫 글자는 대문자로 적어야 한다. 따라서 지명인 ‘울산’은 ‘ulsan’이 아니라 ‘Ulsan’으로 표기한다. ⑤ (바)를 보면, 유음 ‘ㄹ’은 모음 앞에서는 ‘r’로 적어야 하므로, ‘지리산’은 ‘Jilisan’이 아니라 ‘Jirisan’으로 표기한다.

## 07

④, ⑥는 일반적으로 널리 쓰이는 접미사 ‘-이’나 ‘-(으)ㄴ’이 붙어 명사로 된 말로 어간의 원형을 밝혀 어법대로 적은 것이고, ③은 용언의 어간과 어미를 구별하여 어법대로 적은 것이다. ③은 두 개의 용언이 만나서 하나의 단어가 된 경우인데 앞말이 그 본뜻에서 떨어져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것이고, ④는 일반적으로 널리 결합하는 접미사가 아닌 ‘-에’가 결합한 명사로서 어간의 원형을 밝히지 않고 소리대로 적은 것이다.

## 08

(마)로 볼 때, 소통의 규칙을 잘 인지하는 것은 건전한 매체 언어생활을 위한 기본 조건에 해당하므로, 매체 언어의 소통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건전한 매체 언어생활이 불가능하다.

## 09

다른 친구를 따돌리는 친구에게 항의성 쪽지를 보내는 것은 이 글에서 제시한 폭력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오답 피하기** ② (라)를 보면, 음란한 글과 사진이 담겨 있는 파일을 메일로 발송하는 행위는 ‘상대방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주는 행위’에 해당한다. ③ (다)를 보면, 다른 친구의 평판을 나쁘게 하려는 의도로 누리 소통망에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명예 훼손’에 해당한다. ④ (다)를 보면, 특정 친구의 인격을 모독하는 내용이 담긴 게시물을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행위는 ‘명예 훼손’이자 ‘모욕 행위’에 해당한다. ⑤ (라)를 보면, 상대방이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인터넷 대화방에서 비밀 대화로 말을 거는 것은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는 ‘상대방이 원치 않는 접근을 계속적으로 시도하여 공포와 불안을 느끼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 10

‘절멸(絶滅)’은 ‘아주 없어짐, 또는 아주 없앴’이라는 의미로 ‘근절(根絶)’과 유의 관계에 있다.

**오답 피하기** ① ‘일에 관한 내용이나 결과를 말이나 글로 알림.’을 뜻한다. ② ‘바로잡아 고침.’을 뜻한다. ③ ‘못마땅하게 여기어 탓하거나 불평을 품고 미워함.’을 뜻한다. ⑤ ‘제도나 설비 따위를 없애지 않고 그대로 둠.’을 뜻한다.

## 11

(가)를 보면, 매체의 사용이 일반화된 현대 사회에서 매체 언어는 자기표현과 의사소통의 수단으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 12

(마)에는 저작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언급은 있지만, 그 방안에 대해서 다루지는 않았다.

## 13

(가)에서 ‘집단 지성’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살펴보면, 지적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의 신청 여부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 14

[보기]의 내용에서 집단 지성의 영향을 받았다는 근거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오답 피하기** ① ‘맛집 탐방’을 주제로 개인이 운영하는 블로그이기 때문에, 개인이 맛집의 정보를 기획하고 제작하여 유통시키는 1인 미디어로 볼 수 있다. ③ 수용자의 입장에서는 생산자의 매체 자료를 올바르게 활용하고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④ 블로그를 비롯한 1인 미디어 시대의 도래로, 개개인의 목소리와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⑤ 인터넷 개인 블로그에서 본 맛집의 정보를 검색하여 그곳에서 식사를 하는 것은 1인 미디어를 경험하는 것과 같다.

## 15

(다)를 보면, 매체 환경이 인터넷과 이동 통신 기기 중심으로 발전하였기 때문에, 1인 미디어가 점점 우리의 일상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Memo

Handwriting practice area with 20 horizontal dotted lines.



Memo

Handwriting practice area with 20 horizontal dotted lines.

Memo

Handwriting practice area with 20 horizontal dotted lines.

Memo

Handwriting practice area with 20 horizontal dotted lines.